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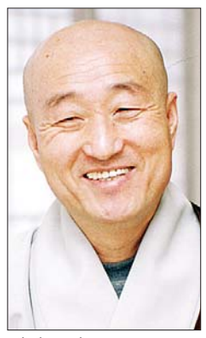
제 79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9월 1일 수요일 (음력 7월 22일 · 불기 2554년 · 주간)





일면 스님·유정길씨 대원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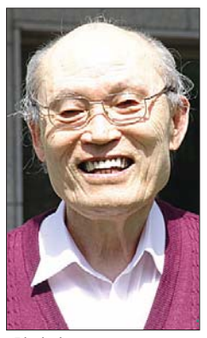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 제8회 대원상 심사위 결정… 동출 스님 등 선정


일면 스님
생명나눔 이사장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


동출 스님
설법연구원 대표


성의신
마하연실내악단 대표


한갑진
한진출판사 대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에코붓다 유정길 공동대표가 제8회 대원상 포교대상 승가 · 재가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8월 25일 제8회 대원상 최종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면 스님은 군포교 등 포교일선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스님은 일찍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불모지였던 불교계 장기기증 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교육 기회 확대 등 대외 확산을 도모해 왔다. 또,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하면서는 장병 및 간부불자 포교 지원 및 해외 파송 장병 위문 등 군 불교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포교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했다.

유정길 공동대표는 불교계 최초의 환경단체인 에코붓다 실무책임자로 불교 수행과 사회활동을 동시에 실천해 왔다. 유 공동대표는 에코붓다를 통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음식물쓰레기 제로-빈그릇운동'을 비롯해 환경 · 생태 · 녹색 운동을 전개하며 대안적 생활양식 확대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 JTS 등을 통해 제3세계 구호 및 개발협력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특별상 단체 부문에 설법연구원(대표 동출)을, 개인 부문에 마하연실내악단 성의신 대표를 선정했다. 또 한진출판사 한갑진 대표를 특별공로상에 선정했다.

대원상은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려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과 전파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대원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대상은 각 1000만 원, 특별상은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9월 9일 오후 4시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법당에서 봉행한다.

한편, 대원상은 2010년부터 부문Ⅰ(포교대상)과 부문Ⅱ(콘텐츠대상)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제8회 대원상 부문Ⅱ(콘텐츠대상)은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접수 마감한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 조계종 교육원이 구족계를 받은 모든 스님을 대상으로 새롭게 선보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였다. 스님들이 8월 26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강좌에서 불교적인 의사소통과 커뮤티케이션에 대해서 토론 실습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사진=박재완 기자

종교인 대북 인도적 지원 물꼬

교역 중단 조치 후 개성육로로 첫 식량지원 성사

8월 27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이하 종교인 모임)은 5 · 24 남북교역 중단 조치 이후 개성 육로를 통한 첫 방북 및 북한식량지원을 성사시켰다.

이날 방북한 종교인은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장 김대선 교무, 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 대북지원 대표 김훈일 신부, 전 대한성공회 서울대교구 교구장 박경조 주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남수 천도교 선도사, 경동교회 당회장장 박종화 목사, 신촌성결교회 담임 이정익 목사, 갈릴리교회 인명진 목사 등 9명이다.

종교인 모임은 밀가루 300톤 분량의 물자운송차량 25톤 트럭 13대와 함께 오전 9시 임진각을 출발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식량을 전달하고, 이날 오후에 돌아왔다.

밀가루 300톤은 북한 개성시(개풍군 포함), 황해남도 배천군, 청단군, 연안군 등 6개 지역의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 등에게 식량으로 지원된다. 이 밀가루는 5개 종단 종교인 528명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종교인을 통해 시작된 대북 식량지원에는 조계종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5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북한 담당관 두 토번(Due Torben)의 예방을 받고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쌀 창구를 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계는 민족공동체추진운동본부를 통해 지속적인 대북구호활동을 펼쳐왔다"며 "불교계 차원에서의 지원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해 직 ·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대북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상언 기자

장기기증 활성화 종교계 손잡아

생명나눔 · 한마음한몸 · 생명잇기 네크워크

불교계와 가톨릭 등 장기이식 등록단체들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불교계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가톨릭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의료전문가 모임인 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는 9월 11일 오후 1시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창립선포식을 개최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각각 불교계와 가톨릭계를 대표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기기증 홍보단체로 상당한 홍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생명잇기는 현직 의사 등 의학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돼 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장기기증네트워크가 결성되면 그동안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홍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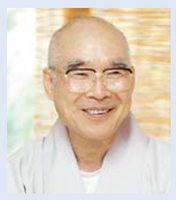
국내 장기기증 홍보는 각 단체들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비체계적이며, 일관성이 부족하며,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홍보 콘텐츠의 부족으로 산발적이고 이벤트성 홍보활동에 치우쳐 있어 홍보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를 위해 장기기증네트워크는 출범과 동시에 각 단체의 홍보 및 콘텐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콘텐츠와 홍보 아이템을 개발하고 장기기증 교육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기기증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별 장기기증 희망 안내실 설립 △초 · 중 · 고생을 상대로 장기기증 및 생명나눔 문화 교육 △장기기증의 날 제정 추진 등 장기기증 홍보 행사 △효율적인 장기기증 홍보를 위한 체계화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예정됐다.

창립선포식 후에는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희망걷기 대회가 열린다.

조동섭 기자



14 간화선 세미나 고우 스님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불교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禪)이 그 쪽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유신론 4.신행
9 현장 맑고향기롭게 알뜰장터
8 법당 아트메디테이션
16 강의실 리더스 불교문화특강

새 연재 _ 선원총림을 가다 …… 11면


역사상 가장 피크를 이루었던 당송시대 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천 년 전 그 시대, 선승들은 어떻게 참선, 수행했으며, 하루 일과는 어떠했으며, 참선은 하루에 몇 번 했고, 한 번에 몇 분가량 좌선했는지? 정말 경전이나 어록은….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독자 여러분을 선원총림으로 이끕니다.

몸도 쾌청 마음도 쾌청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집중수련 5일 참선삼매체험 산사의 다이어트
참선 아기 손잡아 일으켜 세우듯이 이끌어주는 참선체험
인생대전환 심신개벽 천성초월 창의사고력 능력발휘 천성초월 우울증 성격개조 신경쇠약 정서공포불안 대인관계 지혜증장 암기력 자신감 신념증대 인내심 담력대법
단식 다이어트1일최고3kg 금강단식 요요현상제로
해독 체질개선 면역성 당뇨 고혈압 피부 아토피 여드름 생리연장 생리불순 물만마시고 노화방지 질병퇴치 예방 금연 금주 예비감식 보식불필요
바로끊고 바로먹고 기적의단식 국민단식 생기충만
9월 19일, 10월 8일 매월 4박5일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원명선원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박준수의
그림 법구경



물이 깊은 연못이
맑고 고요하며
청명한 것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이
불도를 들으면
마음이 정결해지며
기뻐하게 된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통도사 등 전국 사찰 하안거 해제 법회



8월 24일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에서 하안거 해제후 수좌스님들이 걸망을 메고 만행을 나서고 있다.

근본 살피는 길을 걸어야 한다

전국 100여 선원의 2500여 운수납자들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수행 열기로 하안거를 마치고 운수행각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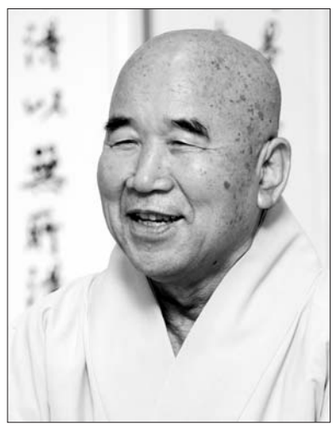
경인년 하안거 해제일인 8월 24일, 전국 사찰과 함께 불지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에서도 하안거 해제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해제법회에는 보광선원 47명, 극락암 호국선원 28명, 서운암 무위선원 21명, 조계암 대적선원 7명, 석남사 정수선원 49명, 내원사 동국제일선원 39명 등과 재가자 안거 도량인 보살선원 67명 등 방부 들였던 400여 명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장 원명 스님은 하안거 해제법어에서 "범부와 성인을 뛰어넘는 근본 도리를 밝혀보려고 모두들 한 철을 두문불출하고 애를 썼다. 나름 약간의 성취도 있었겠지만 과연 깊이 했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공부가 조금 수월해지고 진보한 듯해도 그것은 아직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혼신을 다해 깊숙이 살펴서 넓고 큰 바다가 돼야지 얕은 물처럼 소리만 요란해서는 안된다. 납자는 걸음걸음이 근본을 살피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두 스님이 웃은 까닭은?"



경인년 하안거 해제를 하루 앞둔 8월 23일, 영축총림 통도사에는 늦여름이 한창이었다.

기자들도 방장 원명 스님(사진)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스님은 수차례 고사 끝에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직접 찾아가 말씀드리고 나서야 만남을 허락했다.

"2007년 방장 취임 당시에도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속세를 버리고 산중에 와 공부하는데 세속 사람들이 알아야할 이유가 뭐꼬?' 하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 스님이 거들었다.

"방장스님, 세속 사람들이 스님을 다 만나 뵐 수 없어 귀띔해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봉 스님의 상좌인 원명 스님은 2007년 4월 영축총림 방장에 취임했다. 초대 방장 월하 스님이 2003년 12월 입적한 뒤 4년만의 일이었다. 원명 스님은 방장 취임 당시는 물론 그동안도 언론과의 접촉을 크게 꺼려왔다. 안거 결제 · 해제마다 내리는 법어가 대중이 스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다.

원명 스님이 말을 이었다.

"통도사는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궁에 와서 절하고 가고, 주지스님 만나고 가면 되는 곳이지, 내게까지 찾아올 이유는 없습니다."

스님에게 수행이 무엇인지 물었다.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그러면서도 스님은 손수 붓글씨를 써서 만든 다포를 들어 보이며 화두를 건넸다.

원명 스님은 "한산습득 가가소 수능식(寒山拾得 呵呵笑 誰能識)이라. '한산과 습득이라는 두 스님이 껄껄 웃는 것을 누가 능히 알겠는가'라는 말이다. 한산 · 습득 두 스님이 왜 웃었는지를 알면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 이유를 알겠습니까?"

조동섭 기자

■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영농법인 설립 생산불교 구현



영축총림 통도사 대웅전 뒷편에는 신라시대 조성된 연못이 있다. 구룡지이다.

통도사를 수호하는 용이 산다는 연못이지만 지금은 용 대신 내방객들이 던진 동전만이 가득하다. 이곳에 모이는 동전은 한해 얼마일까?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한해 구룡지에서 걷히는 동전만 2000여 만원에 이른다. 초등학교 무료급식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8월 24일 경인년 하안거 해제일을 하루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였다.

정우 스님이 통도사 주지에 취임한 2007년 이후 통도사는 많이 바뀌었다. 금강계단 사리탑만 해도 1년에 3회(음력 3월 보살계 수계법회, 4월 부처님오신날, 9월 개산재) 개방되던 곳이 스님이 주지가 되고 나서 24시간 개방됐다.

낙산사 화재가 있은 후에는 화마로부터 문화재 등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한 방재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도량 인근 나무들이 보기 좋게 간벌 됐고, 소나무며 차나무 연꽃 등이 방치되던 경내지 곳곳에 심어졌다. 소방수 확보를 위한 연못도 조성됐다. 1000여 명이 동시에 공양할 수 있는 식당이 세워졌다. 낙후된 화장실 8곳도 정비됐다. 절 울타리는 걷혀졌고 도량 입구 계곡에는 분수가 세워졌다. (이 날도 통도사 계곡에는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정우 스님은 "통도사는 조선후기 이곳에 주석하던 성해 스님의 두 제자, 구하 · 경봉 스님이 일구고 구하 스님의 상좌인 월하 스님과 경봉 스님 상좌인 벽안 스님으로 법맥이 이어지고 가풍이 전해져왔다"고 설명했다. 정우 스님은 월하 스님의 손상좌이다.

정우 스님은 "통도사는 1400년간 농사를 지으며 <백장청규>의 선농일치를 실천해 온 도량이다"라며 "영축총림의 가풍을 살려 영농법인을 설립해 차 등을 생산하는 등 생산불교에 초점을 맞춰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도사 경내지 10만평에서 생산되는 쌀은 한해 1000여 가마니이다. 스님은 "벼농사를 짓다보면 농비가 더 든다"면서도 "쌀농사는 지어야 한다. 사중에서 남는 쌀은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안거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사판승이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수행은 참선 · 염불 어느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수행은 어디에도 메이지 않고 근본을 잃지 않으며 자기 모습을 찾아지키는 그 모습입니다. 또,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통도사가 실천해 온 자비나눔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다.

통도사는 20여 년 전 월하 스님이 세운 복지재단을 기반으로 16개 시설에서 400여 근무자가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통도사 부도밭에는 옛부도가 50기 있습니다. 1400여 년 통도사 역사로 비춰볼 때 30년마다 통도사와 한국불교를 이끌 인물이 났다는 것이지요. 한국불교의 중심인물을 배출해 온 도량에 걸맞는 노력을 앞으로도 쉬지 않겠습니다."

조동섭 기자

"백양사 고불총림 운영은 위반"

의연 스님, 법규위에 총림 지정 해제 청구

중앙종회의원 의연 스님(성남 장경사)은 8월 26일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고불총림의 총림 지위를 묻는 서류를 접수했다.

스님은 청구서에서 1996년 고불총림을 지정한 중앙종회의 결의는 서옹 스님(前 백양사 방장 · 2003년 입적)이 백양사에 주석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옹 스님이 입적한 지금은 총림 지위를 재확인돼야 한다는 등의 취지를 구했다. 또, 총림이 해제되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림의 경우 주지를 방장이 지명하기 때문이다. 총림이 아닌 일반 교구본사는 산중총회를 통해 주지를 선출한다.

총림 지정 해제 청구의 배경에는 방장 수산 스님과 지선 스님 측의 10여 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 스님의 갈등은 수년 전 백양사 성보박물관장이던 지선 스님 측 00 스님이 탱화를 전시하면서 증명을 방장이 아닌 지선 스님으로 표기한 것을 비롯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또, 수산 스님의 방장 취임 후 임회에서 주지를 추대하던 관례를 깨고 주지 임명이 일방적으로 임회에 통보되면서 백양사 내 중진스님들과도 사이가 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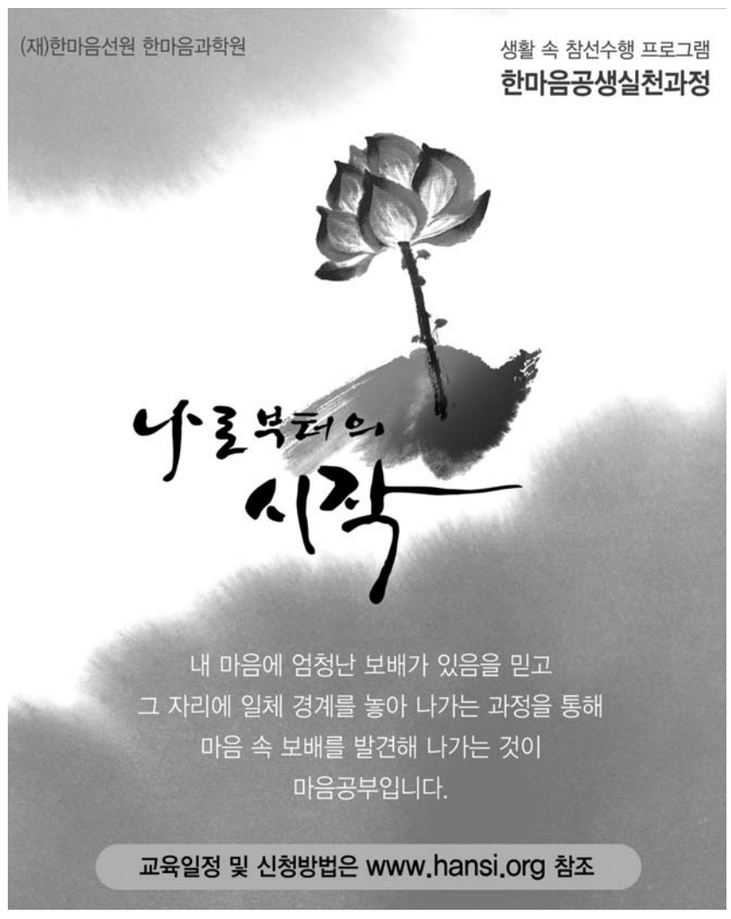
총림 해제 청구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선 스님이 최근 종무소로부터 백양사내 노석산방에서 퇴거해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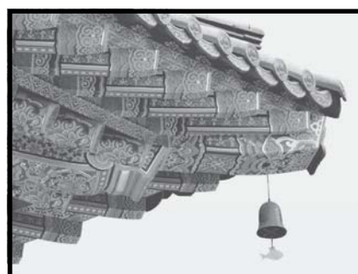
의연 스님은 "노석산방에서 연등 권선을 했다는 것은 총림 지위와는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면서도 "부처님오신 날이라 해서 사제가 불전에 마지 올린 것을 트집 잡아 지선 스님을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님은 "이번 청구건은 단지 고불총림 백양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산 스님 상좌인 만당 스님(조계종 기획국장)은 "노석산방에서 연등 권선했던 증거가 있다"며 "방장스님은 산중공사서 지선 스님을 퇴거시키자는 결정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2003년 중앙종회가 현 방장 스님을 인준함과 동시에 1996년 당시의 조건부 인준 조건은 소멸된 것"이라 반박했다.

조동섭 기자





봉 축

국태민안 및 국운융창 기원 영산대재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대한불교선각종 모후산 도원사 4주년 기념법회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광주 • 전남 불교사암연합회
■ 주 최 : 모후산 도원사 봉행위원회 • 신도회
■ 후 원 : 화순군사암연합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선각종전국교구본사, 선각종중앙포교원(완도수양사), 불교TV,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화순군계사회, 한국디자인(기획사), BBS광주불교방송, 광주일보, 호남일보
■ 초청가수 : 일운스님(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50호 영산 보존회장), 법능스님, 김상배, 현진우, 우연히, 정현, 7080뮤지컬(경규와 뮤직), 통기타(주권기), 신명화, 혜랑
■ 일 시 : 2010년 9월 11일(토) 오전 9시 영산대재 / 오후 4시 산사음악회 및 신도노래자랑
■ 장 소 : 전남 화순 모후산 도원사
■ 문의전화 : 061)372-1047. 061)433-2233 총무원 / 신도회장 011-636-4110

日用 齋 儀式 受講生 모집

조계종 어산 · 범패 · 작법 보존회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 동주원명스님을 모시고 안채비(일용 권공 · 법당 내 의식)를 중심으로 한 불전예식 및 재 의식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에 불교 의식에 관심 있는 學僧들을 모집합니다.

✻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 2010년 9월 9일(목요일) 오후 2시 홍원사 교육관

교 육 내 용

1. 이론
① 안채비 중심의 일용 권공 의식
② 한국 불교 무용
③ 한국불교 전통 재 의식
④ 한국불교 의식의 보존 방향에 관한 제안

2. 실기
① 일용 권공 의식의 진행을 위한 소리
② 바라무 · 나비무
③ 法具연주(태징·북·목탁·요령)

✻ 교 재 : 승가의 범(저자 : 동주 원명)
✻ 교육기간 : 1년 ✻ 특 전 :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 교육일시 : 매주 1~2회 (강의시간은 면접 당일 날 정함)



주관 : 조계종 어산. 범패. 작법. 보존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번지 홍원사 02) 2658-3100

5. 신행

만해 스님 개혁론은 진행중

#조선불교유신론 저술의 의의

만해 스님이 백담사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한 지 벌써 100년이 됐다. 그 후 3년이 지나 1913년 발간됐으니 한국불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그럭저럭 한 세기가 된 셈이다.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근대는 새로운 시대의 식을 여는 격변의 시대였다. 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던 수행자들은 개항 이후 축적된 시대인식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만해의 <조선불교유신론>을 비롯한 1912년 권상노의 '조선불교개혁론(朝鮮佛敎改革論)'과 1922년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朝鮮佛敎革新論)'이 여기에 해당된다. 모두가 한국불교계가 처해 있는 시대와 불교계의 내재적 모순점을 파악한 다음, 무질서를 바로하고 유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단을 정비해 그 총체적인 힘이 사회로 확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들은 전근대적 불교의 개혁을 주장한 셈이다.

조선조부터 시작된 수행자의 신분적인 하락과 사원경제의 몰락은 불교를 기복신앙으로 전환케 했다. 이런 경향은 불교의 본질과 이미지를 저하시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게 했다. 그 결과 민중들은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진언을 독송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신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한 내세적 신앙관의 형성으로 만일염불회와 같은 염불신앙이 행해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보이고 있는 기복적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개항이 단행되자 한반도에는 서구 사조와 외래 종교 등 소위 신문물이 물밀 듯이 들어왔다. 이때 불교는 사찰은 곤궁했고, 출가자는 하천한 신분으로 천대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승려의 자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었다.

개항 이후 나타난 사회의 급속한 변모는 한국불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시대에 맞는 정체성 확립과 대중적 성향에 맞는 포교의 혁신이었다. 그런 개혁의 기치를 높인 것이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이었다.

만해 스님은 개혁이란 자신이 처한 시대의 모순을 척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는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한국불교의 모순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기존 사찰이 자리한 장소의 비효율성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의 교육과 사회적 위상, 그리고 불교의례의 비실용적인 면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불교 신행과 만해의 신행관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그 역사의 장구함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산업화로 전환된 후 한국불교의 흐름은 결코 타종교에 비해 우월성을 주장할 만큼 특별하지 못하다. 현대에 이르는 동안 내재적 역량을 쌓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100년 전 우리에게 던져진 만해 스님의 개혁론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앙적 자세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1931년 3월 중앙선원(現 선학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수좌대회 사진. 이 대회는 선풍 진작과 납자들의 결속을 위해 열렸다.

조선조 사원경제 몰락은 후대에 기복신앙 불러 와
불 · 보살의 소상 · 소회 통합해야 발전한다 주장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한국불교의 신앙적 자세가 굳건하지 못한 것은 신앙의 대상이 많은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향한 의례 역시 개선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해 스님이 정의한 불교의례는 신앙의 대상인 소상(塑像)과 소회(塑繪) 그리고 대상을 경배하는 의식을 총칭하는 것이었다. 만해 스님은 그런 한국불교의 신앙 대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만해 스님은 소회가 중생의 사료로써 기능은 크지만 그것이 길흉화복을 비는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례가 불법의 본질로 인식될 때 소회의 기능은 불교의 본래성을 전복하는 미신이 되고 만다고 생각했다. 소상은 현상의 거짓 모습이며 현상은 진리의 거짓 모습이라는 것이다. 만해 스님은 거짓 모습의 소상이 오래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존재하는 현상을 따라 마음이 그릇된 곳으로만 흐르고, 여러 가지의 거짓 모습을 만들어 객관화됐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은 그런 소상과 그림에게 화복을 빌고 길흉을 묻는 것은 민중의 지혜가 미개한 탓이라 주장했다. 인간의 화복이란 자신이 불러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허황하고 신통치 않은 소상 앞에서 하인처럼 무릎을 꿇어 아첨하는 것은 불교의 본뜻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로 보았다.

이어 만해 스님은 한국불교 의례의 번잡함을 들었다. 의례는 간략해 번잡함이 없어야 하는데 근대 한국불교의 의례는 그렇지 못해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여러 의례 가운데 천왕 · 조왕 · 산신 등을 난신(亂信)이라 혹평하며 마땅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불교의 신앙정립을 위해 불 · 보살의 소상과 소회의 통합을 주장했다. 그것은 서로가 이름은 다르지만 이치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통합에 있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로는 여러 부처님의 뜻을 잇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섭수하여 제도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그 분의 사상적 유훈을 각자의 생활에 옮긴다면 불교의 개혁은 자연히 따라올 것으로 예견했다.

김경집
진각대학원대학 교수



만해와 문학

한국 근대문학의 한 획을 긋다

만해 스님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만해 스님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고자 문학적 저항의 전범을 보였는데 이러한 저항문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군사정권과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 비판하는 참여문학의 큰 줄기로 이어진다.

만해 스님의 이러한 문학성은 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설, 수필, 한시 등 다방면에 걸쳐 전개된다. 스님의 이러한 문학적 소양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졌다. 1879년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6세 때부터 한학 공부를 시작한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친 한응준에게 구국열사들의 일화를 들으며 민족정신을 자각했다. 스님의 성장과정은 문학 창작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 민족정서를 나타내는 글을 남기는 데 근간이 됐다.

현대에는 이러한 스님의 민족지성으로서의 모습과 끊임없는 실천과 행동을 이어받고자 축전과 문학상 등이 제정돼 열리고 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1997년부터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국내외 문인, 학자, 종교인,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만해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남북, 좌우를 초월하는 만해정신의 선양과 가치창조를 잇는 데 중점을 둔 만해축전은 문학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성향인 '한국작가회의'와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인 '한국문인협회'가 만해축전에서 함께 모여 문학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 문학축전이란 명칭에 맞게 매년 축제기간 동안 만해마을은 문인들의 친교의 한마당으로 변모한다. 특히 유심작품상 · 유심신인문학상 · 유심시조백일장 · 전국고교백일장 · 님의침묵 서예대전 등 축제 기간 내 다양한 문학행사가 펼쳐진다. 이중 강원일보사가 주최해 12회를 맞은 전국고교백일장은 시 · 시조 · 산문에 걸쳐 진행되는데 전국고교대상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등 권위 있는 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밖에 유심문학상은 시조부문을 별도로 시상하고 유심시조백일장 유심신인문학상 등을 통해서는 꾸준하게 신인들을 등단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전통시부분인 '시조문학'을 다시 살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 1973년 민족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비사(대표 고세현)가 만해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10년 경력 이상의 작가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만해문학상은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과 함께 주요문학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1920년 만해 스님이 창립한 조선불교청년회의 맥을 이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는 청소년들의 민족정신 함양을 위해 매년 3 · 1절 동국대 등에서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31회를 맞는 전국만해백일장은 시와 시조, 산문 분야로 나뉘어 초 · 중 ·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 주부반에 걸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백일장이다. 최고상인 만해대상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6세부터 한학 공부 9세에 '서경' 통달
만해축전 · 만해문학상 등 스님 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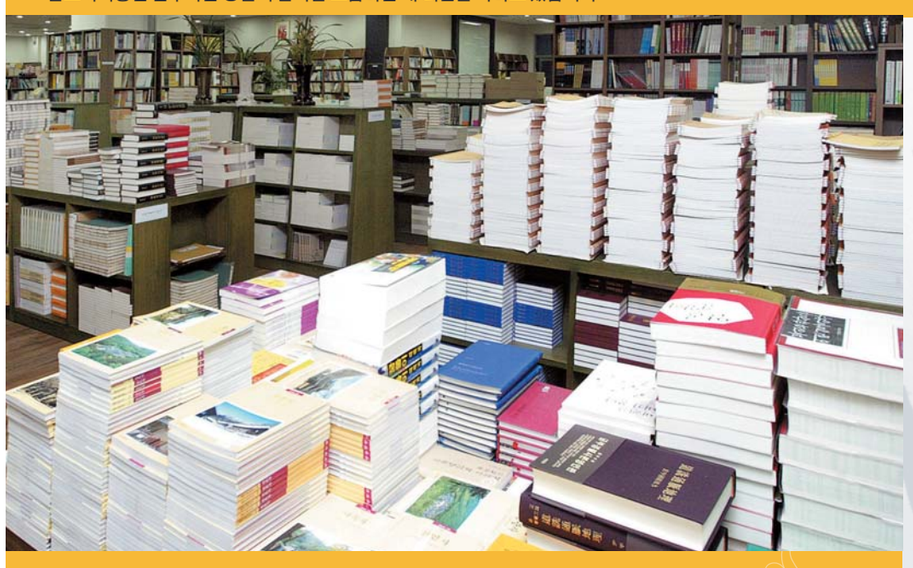


동국대 만해광장의 만해시비.

글 싣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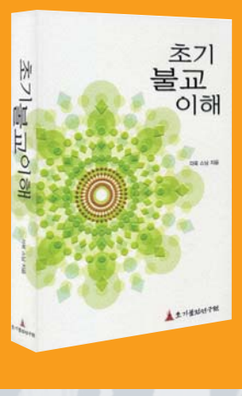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신행
6. 교육
7. 계율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음반 도매
불교서점 개설
도서관 납품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초기불교에 대한 개론서이자 본격적인 해설서



초기 불교 이해
각묵 스님 저/신국판/535쪽/
23,000원/초기불전연구원

이 책은,
① 한역 경전이 아닌, 빠알리 『삼장』을 토대로 한 초기불교 개론서이다.
② 빠알리 『경장』에서도 4부 니까야를 토대로 하였다. 부처님의 원음과 직계 제자들의 육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③ 특히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심도 깊게 다룬 경들을 모은 『상윳따 니까야』를 중심에 두었다.
④ 초기불교에 대한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라 초기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본격적인 초기불교 교리서 혹은 초기불교 해설서이다.
⑤ 철저하게 『청정도론』과 『아비달마 길라잡이』와 주석서 문헌들을 의지하여 필자의 주관에만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버드대 출신의 눈푸른 수행자 현각 스님을
백척간두의 세계로 이끈 스승, 봉철 노선사의
생동감있고 심심미묘한 법문

수개월, 수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스승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소백산 작은 암자에서 매일 아침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참선을 하였습니다. 봉철 큰스님은 정말이지 수행을 위해 나를 절벽 끝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큰스님께선 '좋다, 나쁘다' '성스럽다, 속되다' '맞다, 틀리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라는 나의 차별심에 대해 참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봉철 큰스님의 가르침과 신행信行, 그리고 본분사本分事에 대해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현각 스님)

노선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정수와 대자유인의 삶

극락도 불태워 버려라
김상백 엮고 씀/사룩판양장
252쪽/9,500원/운주사



일 주 문



고우 스님 육조 대사 구결 특강

고우 스님은 9월 8일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저녁 7시 총 10회에 걸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금강경 육조대사 구결'을 강연한다. (02)735-2428



마곡사 생태농장 김장모종 심기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8월 24일 마곡사 생태농장에서 김장모종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동곡학원 초대이사장 취임식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9월 9일 영천 선화여고에서 동곡학원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정토회 백일출가 11기 모집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9월 8일까지 백일출가 11기를 모집한다. (054)571-8993



길상사 신도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

서울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은 9월 5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길상사 신도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불레협 2급 전문지도자 과정 개설

불교레크레이션 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10월 2일부터 2급 전문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 (02)738-7860



병불련 추계 연합의료봉사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은 9월 5일 정읍 내장사에서 추계 연합의료봉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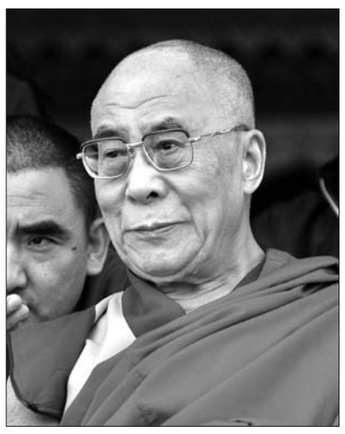
■ 달라이 라마 8월 19~20일 지스파에서 보살계 법회

"히말라야의 기독교 염려스럽다"

다람살라에서 지스파까지의 150㎞의 여정은 안개와 폭우 등으로 순탄치 않다. 길이 막히면 폭탄을 이용해 길을 뚫고, 진흙탕이 나오면 돌로 메워가면서 이동해야만 했다. 수행원들은 이런 점들을 염려해 달라이 라마에게 헬리콥터로 이동할 것을 권유했으나, 달라이 라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사코 육로만을 고집했다. 그 이유를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현지인을 비롯해 여행자들은 달라이 라마를 보기 위해 오랜 시간 비를 맞으며 길 위에 서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얀 카타(Ka-btags, 붓다에게 공양키 위해 쓰이는 명주 천)를 들고 달라이라마를 환영했다. 또 아이들은 작은 들꽃을, 여인들은 짜이(홍차와 우유 그리고 설탕을 혼합한 인도의 차)를 준비해 오랜 시간 여정에 지친 이들에게 건넸다.

1993년 이후 18년 만에 지스파를 다시 찾은 달라이 라마는 이런 사실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답례를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8월 19~20일 둑체코르 사원(Druk-Choekhor Monastery)에서 '청정한 붓다의 길로 들어섬(장춥 람뙨)'에 대해 설했으며, 헤루카 보살계(Heruka initiation)를 내렸다. 이번 법회에는 1000여 명의 지스파 지역민들과 호주 · 러시아 · 대만불자연합을 비롯한 외국인 불자들이 동참했다.





(왼쪽) 달라이 라마의 모습. 지스파 지역민들이 합장으로 달라이 라마를 맞이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법문을 통해 "만트라에도 양면성이 있음을 바로 보고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혜의 만트라에는 지혜를 구족키 위한 강한 열망이 농축돼 있으므로, 내가 붓다가 되는 것과, 붓다가 나라고 하는 자아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며 "이 패러독스에 바로 불교 철학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이 라마는 "만트라는 깊고 깊은 내면의 자아로 안내해 나를 바로 보게 한다. 나를 바로 보는 것은 매우 고귀한 수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손가락을 부딪쳐 '딱' 소리를 내곤 "이 소리는 자아와 시공간의 결합을 깨우쳐 준다. 우리가 속한 이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로 얽혀 인연 지어진 연기의 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설했다.

달라이 라마는 종교가 지닌 신앙성과 논리적 지식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는 철학적 논리에 근접한 종교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신과학 분야의 과학자들이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불교는 절대 구시대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2000년 간 인류의 진화와 변화의 역동을 함께해 온 가르침이다. 현재 몽고에서 강력히 펼쳐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믿음 형태는 종교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 반면 기독교인들의 사회 공헌 활동은 타 종교의 모범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히말라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물결은 염려스럽다. 한국의 경우 급속한 발전은 기독교의 역량이 컸다. 몽고는 이런 한국을 거울삼아 발전했으며, 이제 기독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며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숙념 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도 지스파= 가연숙 객원기자

아이넷TV 조계종 복지재단에 물품 후원



이충국 아이넷TV 대표이사(좌)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중)에 건강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

한 성인가요 채널이 어르신들의 무릎 보호를 위해 건강보조제를 기부했다.

성인가요 전문채널인 아이넷TV(대표이사 이충국)는 8월 26일 전법회관 지하1층 선운당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복지재단)에 건강보조제 5만 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클루코사민 크림 등 건강제품으로 단일 물품 후원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날 이충국 아이넷TV 대표이사는 "어르신들이 관절이 좋지 않아 돕고자 했는데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펼친다는 얘기를 듣고 건강보조제를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어려운 이를 위하는 분들의 뜻을 받아 '만행' 사업을 더 활발히 전개해 사회 곳곳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진각복지재단 조윤선 신임 이사 선임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은 8월 24일 조윤선 국회의원(한나라당)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다. 조 의원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한나라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조계종 출판사 인사

▲총무부장 최승천(전 편집부장) ▲출판부장 문종남(전 도서출판 선연 대표) ▲기획제작부장 박재영(전 디자인 시연 대표)

대구 법왕사, 백고좌법회



대구 법왕사는 8월 25일 삼장 백고좌대법회 전야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대구 법왕사는 8월 25일 대법당에서 제21회 100인 큰스님 초청 경 · 율 · 론 삼장 백고좌대법회 전야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법왕사에서 봉행되는 백고좌대법회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기원해 마련됐다. 법회에는 <법화경>, <화엄경> 등 경 · 율 · 론 삼장 전반을 주제로 8월 27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법왕사 큰법당에서 100일 동안 봉행된다.

조동섭 기자

밀양불교대학 하계수련회



밀양불교대학 대중들이 8월 21~22일 하계수련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맨 앞줄 오른쪽이 학장 정무 스님)

밀양불교대학(학장 정무 · 조계종 신도국장)은 8월 21~22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부처님 품 안에서 참 나를 찾는 시간'의 주제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특강과 108배 수행, 촛불명상과 참선 요가 및 태화산 솔바람명상길 산행 등이 진행됐다.

조동섭 기자

육군3사관학교 수계법회 · 위문공연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혜명 정사)는 8월 25일 경북 영천 호국사에서 육군3사관학교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진각종 대구교구청과 충성대 호국사 주최로 열린 수계대법회에는 학사 55기, 여군 55기, 간부 16기생도 300여 명이 동참했다.

수계대법회에는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혜명 정사와 통리원 포교 · 문화사회부장 덕정 정사, 문화사회국장 대원 정사, 대구교구 직무스승 관명 정사 등 대구교구 스승들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교 전통의식 3기 수강생 모집

단기 속성 – 3개월 과정
범음 범패 – 1년 과정

불광불교대학에서는 예불, 불공, 천도재 등 각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을 교육하고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 안내

- 입학자격 : 스님, 남 • 녀 재가 불자 및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사찰 및 포교원 개원 하실 분(종단 등록 가능), 수료 후 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
  《초신자 및 재가 불자 환영》
- 개강일시 : **2010년 10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도동 불광불교대학

2. 교육내용

▸ 단기 속성(3개월)과정 : 도량석, 조석종성, 상단예불, 각단예불, 신중청, 관음청, 지장청 등
천도재, 49재, 시달림, 관음시식, 화엄시식
(사물 – 북, 요령, 목탁)

▸ 1년(법사과정) 과정 : 천도의식(범음범패)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 옹호게, 상단권공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특강 : 승무, 살풀이(무형문화제 제7호 전수자 류희연 개인지도)

※ 불교의식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함

3. 접 수 처 : 불광불교대학 종무소(053-986-1080)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도동 불광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4(팔공IC 5분거리) ☎ 053)986-1080 / 010-5470-8730 (학장)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 육 생 상 시 모 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희귀 고미술의 귀환 展

서울 프레스센터 대전시장서 12일까지


신라금동소형인왕상.

우리가 흔히 보는 불상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중엄하게 앉아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다. 하지만 사진 속 불상의 모습은 중엄한 부처님 모습이 아닌, 마치 로마시대 조각 작품을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라시대의 정교하고 뛰어난 금속공예 기법을 엿볼 수 있는 금동인왕상은 신라시대(8세기 경)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 크기는 약 2cm에 불과하다. 또한 흰 곱돌재질에 자애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납석관음좌상(고려시대 12~13세기)도 매우 희귀한 불상이다.

이처럼 우리가 여태껏 국내에서 보지 못한 희귀한 미술작품 300여 점이 8월 30일~9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대전시장 '고미술의 귀환(歸還)과 향유(享有) 전'을 통해 소개돼 눈길을 끈다.

전시회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중 유출 또는 반출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고미술품을 한데 모으고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아시아기자협회, 홍명보장학재단, 고미술 전문화랑 '유심재'가 공동개최한 전시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는 주요 미술품들은 고미술 전문화랑 '유심재'의 정진호 대표가 직접 수집한 작품들이다. 정진호 대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고미술품들은 대부분 가난했던 시절에 유출 또는 반출된 것들이다. 이번 전시는 이런 사실을 정부나 국가 차원을 넘어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민간차원에게 알리고, 관심과 투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마련된 자리"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년 간 수 백 차례의 해외 답사를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며 훼손되거나 멸실될 뻔한 한국의 고미술품들을 수집해 왔다. 정 대표는 지구촌 곳곳의 개인 소장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은 물론, 세계 유수의 경매시장을 돌아다니며 작품들을 수집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아직도 일본, 미국, 유럽 등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물을 발견하고도 국내에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미술품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시아기자협회 아이반 림 회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한국 고미술의 귀환은 한국 정신문화의 귀환"이라며 "지금껏 서구 시각에서 바라보던 외래적 미감에서 벗어나 아시아 고유의 독창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적 자신감을 되찾아 이를 드높이는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의 수익금은 홍명보 올림픽축구대표 감독이 설립한 홍명보장학재단에 의해 어린이 암환자 및 취재 중 순직한 기자 유족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은 "해외에서 떠돌던 한국의 고미술품과 중국의 유물들이 한 자리에서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어 숨 쉬고 있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하다"며 "무엇보다 전시회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여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 십 만원에서 수 억원대까지 이르는 작품들이 전시되며, 일반인은 물론이며 전문가들도 함께 고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는 전시다.

조선시대의 '28성수도'. 음각나전함 등 시대를 넘나드는 근래 접하기 어려웠던 고미술의 세계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 (02)712-4111 이은정 기자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조계종 복지재단 '전국 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전국적인 불교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8월 21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마곡사 신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처음 실시했다.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이하 복지재단)은 불교자원봉사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8월 21일 마곡사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국 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마곡사 신도 등 100여 명은 불교자원봉사 기본교육과정으로 최종환 복지재단 사무국장의 '불교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이운희 복지재단 교육인적자원부분 과장이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사찰자원봉사 활동사례' 등의 강의를 듣고 수료증을 받았다.

불교계의 자원봉사활동은 1995년 복지재단이 설립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 및 대도시 중심과 일부 사찰에서만 활동을 전개해 그 한계가 있었다.

복지재단은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충청권 · 호남권 · 영남권 등 세 지역에 불교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2004년부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개한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찰별 자원봉사순회교육, 불교자원봉사 우수활동사례공모전, 불교자원봉사대축제 등을 진행해 왔다.

불교자원봉사센터는 △충청권-마곡사 · 수덕사 △호남권-선운사 △영남권-직지사에 설치되며 소속 사찰 신도들은 자원봉사교육을 받게 된다.

복지재단은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은 서울 및 대도시 중심, 몇몇 사찰의 활동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찰신도 조직을 자원봉사활동 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WFB 2012 대회 한국 개최 요청

세계불교도우의회(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회장 프라담 바라자라야)가 2012년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대회의 한국 개최를 요청해 와 개최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팰롭 타이어리(Phallop Thaiarry) 세계불교도우의회 사무총장은 8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2012년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를 한국에서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을 대신해서 예방한 팰롭 사무총장은 "1963년 한국에 지부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부터 한국 불교는 전세계 불교우의에 큰 힘을 실어왔다"며 "조계종단은 물론 전 한국 불교가 힘써 세계불교도대회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의 한국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의 한국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 사항이기도 해 개최 성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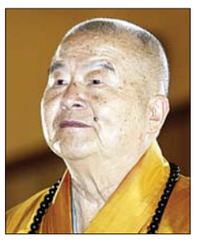
이와 함께 팰롭 사무총장은 11월 스리랑카에서 열리는 제25차 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 초청장을 자승 스님에게 전달하고 기념 법문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는 세계 146개국에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1950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창설됐고 한국은 1963년부터 활동해 왔다. 2008년 일본에서 열린 제24차 세계불교도우의회에서는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WFB 최초 여성 부회장에 당선돼 활동 중이다. 이상언 기자


WFB 사무총장 팰롭 타이어리는 8월 25일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제26차 WFB 대회 한국 개최를 요청했다. 사진은 팰롭 사무총장이 자승 스님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성운 스님 금강대 명예박사

성낙승 총장 등 대만 방문… 불광대학 교류도 협의



대만 불광산사 개산종장(종정) 성운 스님(사진)이 금강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

금강대(총장 성낙승)는 "성낙승 총장 등 학교임원진이 8월 29~9월 3일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해 개산종장 성운 스님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불광대학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성운 스님은 세계 각지에 200여 사찰을 창건하고 대만에 불광대학과 남화대학, 미국 서래대학, 호주 남천대학 등 4개의 종합대학을 설립했다. 또, 불광정사(양로원), 대자육유원(고아원), 불교진료소 등 의료기관, 도서관, 복지기관 등을 설립하고 교육을 비롯한 포교 · 문화 · 복지사업을 펼쳐 왔다.

금강대는 "성운 스님은 불교의 세계화와 현대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생 존중과 포용, 평등과 평화 등의 이념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인간불교'를 세계 각지에 전파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대는 2005년 미국의 서래대학(2005년), 2007년 대만의 불광대학 · 남화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환학생 파견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이다. 조동섭 기자

성호 스님 멸빈 자승 스님 당선 무효 소송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성호 스님(진안 금당사)이 멸빈 확정됐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6차 재심호계원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성호 스님은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 제기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회법에 제소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비위, 종무행정 거부 등의 혐의로 징계 회부됐다. 지난 4월 초심호계원에서도 스님은 멸빈 판결을 받았다.

성호 스님은 초심호계원에 이어 재심호계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동섭 기자

불교TV IPTV서비스

불교TV를 IPTV로도 볼 수 있게 됐다

불교TV(사장 구본일)는 "8월 16일부터 KT COOKTV를 통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 외에도 KT에서 COOKTV를 시청하던 시청자도 불교TV를 볼 수 있게 됐다. 조동섭 기자

금정중 명정관 착공

조계종립 부산 금정중(교장 현익채)는 8월 25일 교내에서 다목적 강당인 명정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명정관은 2012년 2월까지 32억 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2423㎡에 4층 규모로 지어진다. 강당 1층에는 주차장과 창고, 2층에는 급식실과 식당, 3 · 4층에는 700명 수용의 다목적 강당이 들어서게 된다. 행사에는 이사장 계전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교육원 연수교육, 순조로운 출발

전통불교문화원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등 성황리 진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의 연수교육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재교육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아본 스님들은 "좀 더 세련된 불교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8월 18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에서는 첫 통학연수에 이어 8월 25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는 숙박연수교육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8월 25~27일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연수에는 29명의 스님들이 신청했다. 연수에는 △설득에 필요한 리더의 자질 △소통영역별 특징과 논의구조 △설득의 기법 △토의와 토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의사진행 방법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스킬 △갈등관리와 코칭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수업은 실제 참여식 토론방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8월 25~27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스님들이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강태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스님들은 신도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했다. 주지스님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신도들과 대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도 많다"며 "스님들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면에서 정리가 안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태완 교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리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큰 스님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소통방식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설득이 어렵다"며 사안에 대해 토론식의 민주적인 방법을 수업 진행했다.

첫 숙박연수를 받고 있는 덕조 스님(경북 영천 진불암 주지)은 "기존 본말사 주지연수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참가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주지연수 왜 가야하느냐'는 말대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강의를 언제 들을 수 있겠냐'라는 반응이다"고 설명했다. 덕조 스님은 "세대 간 벽을 깨고 스님들 간의 소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도 다양한 장르와 특성, 개인의 효율까지 반영한 것 같아 기대이상의 만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8월 26~28일 '스피치 능력향상'에는 65명의 스님이 신청했다. △각자의 목소리가 최상이다 △눈과 귀와 마음 이야기 △목소리 만들기 △손동작, 시선, 표정, 몸의 여러 가지 동작 △커뮤니케이션의 진정한 목적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스님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대중 앞에서 1분도 못 서있겠다" "법회를 할 때 이야기나 설화를 할 때는 여유롭게 하는데 교리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말에 쉼표가 없다고 한다. 말이 자꾸 빨라진다" "시선 처리가 어렵다" "사투리가 심하다" "대중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선방에서 30안거를 살다보니 말주변이 없다" 등 고충을 털어놨다.

이 수업을 신청한 종률 스님(서울 세광사 주지)는 "새로운 연수교육이 기존 연수교육에 비해 확실히 효율성을 높이고 수업의 질도 좋아졌다 수업을 듣고 나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법향상, 사찰경영일반, 불교교학, 불교문화실기,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내용과 질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수업 내용들이 스님들이 기존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영역이나, 알고는 있었지만 기술적인 면에 이해가 부족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연수교육의 방향을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언 기자

특별 기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무아를 가르칠까?

〈無我〉

불교의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로서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불법은 어떠한 특정한 이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현실을 수용하면서 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불교의 가르침이 역사와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인성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문화적 콘텐츠로 개발되어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면 불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 문화적 콘텐츠로 개발
불교의 인식 달라질 수 있다

한마음과학원에서 개발한 한나무인성교육프로그램도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에 앞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먼저 2004년 초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모한 초등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응모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교육학 전문가와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기획팀을 편성하고 인성교육의 핵심 개념을 정립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펴나가시는 대행큰스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초등학생들에게 무아(無我)를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생명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이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현대적 해석이며, 이는 학생들이 이미 과학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핵심개념을 생명공동체로 잡아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 사회, 지구,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생명공동체로서 돌아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핵심개념이 정해졌다 해도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팀이 조직되었으며 여기에는 많은 초중고 현직교사가 개발자로 참여하였다. 개발팀은 월례세미나, 사례발표회, 전문가 특강, 방학 중의 집중워크샵, 수련회, 인성교육 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인성교육의 실천자가 되는 일이었다. 또한 모든 학교생활을 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는 개발팀 선생님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맛보게 된 자기 마음의 자유로움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수많은 분들의 7년 여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7월말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인성교육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다.

한마음과학원이 불교계 뿐 아니라 국내외의 많은 단체나 기관들과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4대강 관련 MB 면담도 검토"

23~24일 남원 실상사서 실무위원회 열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최종 조율 중이며, 의견이 정해지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8월 23~24일 남원 실상사에서 4대강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에는 위원장 도법 스님과 실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4대강 사업의 기술적 · 환경적 ·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실무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9월 중으로 실무위원안을 만들어 화쟁위원회에 보고한다.

화쟁위는 보고서 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내용을 다듬는다.

화쟁위에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면 총무원장스님에게 보고하게 된다.

4대강과 관련한 화쟁위의 입장과 별도로 정리된 의견을 종단 차원의 입장으로 활용할지, 이웃 종교와 연대하는 방법으로 쓸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달할지도 논의 중이다.

백승권 화쟁위원회 사무국장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했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일본 정부 권력형 범죄 책임져야"

기쿠치 유족찾기 지원활동가, 이천오층석탑 반환 촉구



기쿠치 히데아키 씨



일본에 반출된 이천오층석탑.

"일본강점기 민간 차원에서 수많은 한국의 문화재들이 밀반출된 것은 일종의 권력형 범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일본 내 민간이 소장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일 또한 일본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본 민간 소유의 한국문화재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인에게서 나왔다.

기쿠치 히데아키 태평양전쟁 유족 찾기 지원활동가(68)는 8월 27일 조계종 총무원과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가 이천시청에서 개최한 '제1회 이천오층석탑과 새로운 한 · 일관계 모색을 위한 제1차 국제심포지엄'에서 민간 소장 문화재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확대와 일본인들의 양심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기구치 씨는 옛 일본군 군인 · 군속으로 2차대전에 강제동원돼 사망한 조선인 2만 여명의 명단을 10여 년에 걸쳐 작성해 2008년 발표하는 등 일제로 인해 받은 국가들의 피해사항을 조사해 온 NGO활동가다. 현재 기구치 씨는 일본 내에서 이천오층석탑 환수위 네트워크 간사를 맡고 있다.

고려 초 세워진 국보급 문화재인 이천오층석탑은 1915년에 전시 명분으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1918년 군수품 납품 재벌 오쿠라 가하치로(大倉喜八郎)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돼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미술관 뒤편에 세워져 있다.

노덕현 기자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을 코칭하라!

펌프로 물을 퍼올리기 전 물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펌프에 부어주는 '마중물', 펌프를 작동 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다.
땅 밑을 흐르는 양질의 지하수가 아무리 풍부해도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이를 퍼올릴 수 없듯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코칭'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마중물의 힘〉은 저자가 자신의 인생역정 중에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코칭이라는 요즘 알려지기 시작한 특수한 기법에 엮어, 단문의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하나의 지식이 단지 도구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 '위기지학'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인생의 모든 답은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찾고 그 답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코칭은 좋은 동반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궁극에는 '코칭'이라는 말도 버려야 한다고 천명한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가장 코칭적인 선언이다. 불교도 코칭도 넘어서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갈 때 인간은 완성의 길로 가는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보관 스님 (남춘천 자비정사)

코치 허달의 사통팔달

마중물의 힘

여시아문 허달 지음 | 224쪽 | 10,000원 (3만원 이하 택배비 별도)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송광사 목조관음상 보물 지정

문화재청, 대혜보각선사서 등 34건 보물 지정 예고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보물 제1660호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 제1010-2호로 지정된 <묘법연화경(언해)>권1, 보물 제1658호로 지정된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순천 송광사 관음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 등 5건이 보물로 지정되고 '대혜보각선사서' 등 34건이 보물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등 5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보물 제1660호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은 순천 송광사 관음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그 복장유물이다. 복장유물은 경전과 옷가지 등 35점이다. 특히 배자와 경안군(慶安君)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빛 저고리 안에 적혀 있는 발원문은 불상을 모신 배경과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경안군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혔갔던 소현세자의 아들이다.

이 불상은 17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조각승 혜희 · 금문 스님의 작품이다. 1662년 궁중나인 노예성(盧禮成)이 경안군 내외가 오래 살 것을 기원하며,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취미수초(翠微守初) 스님 등의 시주로 조성됐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오춘영 학예연구관은 "이 불상은 조선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인 대중적인 평담한 미의식이 짙게 반영돼 있는 등 조성 배경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조각의 완성도에서도 이 시기 불상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물 제1661호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은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 복장됐던 복장유물 중 중요 불교경전 8점이다. 복장된 경전 중 <대방광불화엄경합론(大方廣佛華嚴經合論)>은 이권생(李權生), 박문손(朴文孫), 유약(柳約) 등이 판하본을 쓰고, 전라도 광주목(全羅道 光州牧)으로 하여금 판각, 간행하게 한 간경도감본 교장(敎藏)이다.

오춘영 학예연구관은 "복장유물 중 복장전적을 별도로 보물 지정한 것은 재조대장경은 해인사대장경(팔만대장경)의 15세기경 인본(印本)으로 희귀한 자료로 평가돼 복장전적으로 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 보존 · 관리해야 한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유물 35점과, 복장전적 8점은 8월 24~26일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특별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조가 직접 경문에 구결을 달고 윤사로 등이 간경도감에서 번역해 1463년(세조 9) 국역 간행한 '<묘법연화경(언해)> 권1 · 4'는 보물 제1010-2호로,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는 보물 제1658호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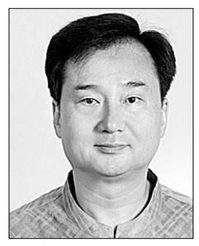
이어 25일, 문화재청은 <대혜보각선사서> 등 34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된 유물로는 <대혜보각선사서> <대승기신론의기> <묘법연화경> <상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등이 있다. 이외에도 '풍아익'과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 '김정희 해서 묵소거사자찬' 등 27건을 보물 지정 예고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 조각류 석불 · 마애불 123건(국보 5건, 보물 118건)과 전적 · 서적 · 서각류 352건(국보 48건, 보물 304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다. 변경된 내용은 대한민국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사성제 · 팔정도로 집단상담

박찬욱 소장, 23개 마당 3박4일간 진행



박찬욱 소장

불교 교학과 수행법은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들에 대한 탐구 결과다. 초기불교 이후 불교는 시대 · 지리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이해하는 이론체계와 다양한 방편들을 발전시켜왔다.

'밝은사람들연구소' 박찬욱 소장은 최근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불교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에서 초기불교를 바탕으로 불교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그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불교 수행방법을 적용해 개발한 서양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MBSR, MBCT, DBT, ACT가 있다. 이들은 모두 마음챙김 명상을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및 개발화에 있어 국내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 프로그램들은 불교 수행법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소장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이 서구에서 심리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점은 불교가 현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방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며 "그러나 마음챙김 수행을 주로 병증의 개선과 치료에 활용하고 있어, 정념 수행의 본질을 전달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 운영되는 불교 심리치료 상담 프로그램들의 경우, 서구와 달리 이론적 배경과 프로그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찬욱 소장은 초기불교의 핵심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바탕으로 삶을 성찰하고 명상을 습득하는 불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박 소장은 두 가지 가설 △마음챙김이나 수용행동 및 자기에 대한 자비심은 증진되고 집착심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신병리(불안, 우울, 대인예민성 및 적대감) 수준이 낮아지고, 주관적 삶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를 세운 뒤 총 23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3박4일의 불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서울 소재 D대학생 28명에게 통제 ·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14명의 실험집단 참여자들은 각 마당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5~10분 동안 입출식념(入出息念), 몸과 마음 현상 알아차리기, 자애명상을 반복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준비한 활동을 통해 성찰하고 집단상담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연기적 현상으로 다루도록 훈련했다. 훈련을 통해 내적 경험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내적 경험을 환영하고, 따뜻한 태도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내적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 고통의 확대를 예방하는 것임을 체험적으로 학습하도록 시도했다.

박 소장은 "실험집단 학생들은 통제집단과 비교해 마음챙김, 수용행동, 집착 수준이 긍정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러한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유지되거나 향상됐으며 참여자들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질이 통제집단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은 고정된 시각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경직된 지각 · 감정 · 생각이 유연해졌고, 당면한 상황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성있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게 됐다. 이밖에 불안, 우울, 대인예민성 및 적대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의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박 소장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동일한 전제하에 암 환자라는 점을 감안해 질병의 원인을 성찰하고 죽음을 직면하는 과정을 추가했다. 박 소장은 "이 실험에서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해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 불안, 우울 등 심리 문제의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인간의 이고득락(離苦得樂)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온 불교와 상담심리학은 호혜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심신치유, 신도 교육, 템플스테이, 대학교 교양과목, 청소년 인성개발 등 목적 ·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용된 원리

1. 각자의 삶이 주교재다: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에 대해 이해한다: 삼법인(三法印)의 이치를 이해하면 외부 대상, 본인의 몸과 마음 현상에 대한 탐심 · 진심이 약화된다.

3.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 본다: 탐심과 진심이 약화되고 알아차리는 힘은 강화된다.

4. 몸과 마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삼독심이 경감되게 한다. 집착과 두려움이 일어나도 수용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장한다.

5. 선(善) · 불선(不善)에 대한 안목을 갖는다: 의도가 행위에 선행하므로 의도를 알아차린다. 이 능력이 커질수록 치심(癡心)은 경감한다.

6. 생각은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은 보듬고, 욕망은 조절한다: 불편한 감정을 바꾸기보다 보듬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만족감이 증가한다.

7. 유익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한다: 선한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8. 궁극지향, 과정목표, 실천계획을 명료화한다: 목표가 없는 삶은 공허할 수 있고, 지향점이 선명하지 못하면 갈등한다.

9. 소통과 교류의 순기능을 활용한다: 진솔하고 진지한 상호피드백을 통하여, 신뢰감은 증대되고 성찰은 촉진된다.

10. 입출식념(入出息念)을 배우고 익힌다: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정념(正念) 수행을 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번뇌가 경감되며, 알아차리는 힘이 강화된다.

11. 자애심을 일으키고 증장한다: 자기에 대한 자애심이 커지면 번뇌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너그러워진다.

구분	해당 마당	주요 내용
도입	1	오리엔테이션
	2-3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
	4	참가목적, 행동목표 명료화
고	5	빈발하는 괴로움에 대한 수평적 분석, 괴로움 발견
	기타 마당 '나누기'	자기개방, 성찰, 괴로움 발견
집	6	빈발하는 괴로움에 대한 수직적 분석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해 증진
	기타 마당 '나누기'	자기개방, 성찰, 괴로움의 원인 통찰
도	7-8, 14-15	업, 습, 선 · 불선에 대한 안목 배양
	9,13	알아차림, 의욕, 의도, 의지, 노력
	10	욕망(욕구)확인, 조절
	11-12, 기타 마당 '나누기'	궁극지향 확인, 과정목표 세분, 실천계획 구체화
	16-17	선(유익)한 행위 실천
	18-20	긍정 사고 함양
	21-22	갈무리하기
	기타 마당 '명상'	입출식념(入出息念), 몸과 마음 현상 알아차리기, 자애수행 습득
	기타 마당 '나누기'	수용 · 공감, 인정 · 칭찬 등을 통한 괴로움 경감 괴로움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종결	23	주의사항 전달, 추후 모임 협의 등 마무리

※무상 · 고 · 무아통찰과 탐진치 삼독심 경감은 도입, 종결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짐

천문으로 보아 국가발전과 민족의 운명을 보며 인명은 제천에 있느니라. 각종신앙으로 자신에 접신한 신이 자손으로 안가고 자기대에서 보림하는 2010년 천년에 한번드는 음 7월 29일 자오신시에 양갑 칠살로 모든 잡신을 제도 성불 받는 대용맹정진 대법회

갑경칠살로 지구촌에 물과 불과 이름모를 소두무족균으로 천지개벽이 오고 있다. 그대를 초대하여 이 시대에 성불한 도인만이 살아 남아 중생을 구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다같이 도통 성불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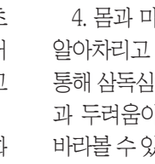
● 경신도통이란 멸하지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몸에 붙은 신을 떼지 못하고 자손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대에서만 부리는 도법을 받는 날이 천년에 한번드는 경인년 갑신월 경신일 갑신시에 갑경칠살로 성불 받는 날이다.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십년 수행한 공덕보다 나은 수행인 것이다.

◆ 특별 금년 경인년은 해도금묘 대운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도통군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수행마장, 기도마장 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업장소멸로 열어주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공덕과 행운을 얻어 팔자를 바꾸는 수행인 것이다.

2010년 음 7월 29일은 경인년 경신일 7월은 갑신월 경신일 갑신시가 천년에 한번 돌아오는 성스러운 해이므로 이 기도로 하늘 땅 모든 탈신을 받아 지금까지는 과거에 목을 메는 것을 미래에 닥쳐오는 운명과 길흉과 철학 점술예언 의통 즉시 예측하는 법을 얻어 천지와 복덕이 합하고 일월과 밝음이 합하고 귀신과 길흉을 합하고 사시 오행이 합하고 육갑음향과 세월 일시가 합하는 성스러운 대운을 받아 합신마장을 소멸 하는날 이므로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는 경신수행자에게 이 법을 주워 자신에 보림하는 법을 얻는 천장지법인 것이다.

천지공사 육경신도통이란? 천하의 비밀법에 자신이 운명을 비켜갈 수 있는 영포태로 업장소멸하여 자신이 운명을 조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도통법 인 것이며 천지공사인 것이다.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상통천문하달 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도천명 득도하는 법회를 봉행. 금년 유행되는 전염병과 그 어떠한 마장도 다스르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잡신에게 빙이 된 영혼문을 열어 일체 영가 해탈 시키는 초등력을 얻는 대법회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부산 금정구 장전3동 경문사 도량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경신도량 수행처 태양의집 봉황산 봉황사
법당인연자, 맞이공양자, 수행자, 인연자 동참자. 입종 환영.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3239-3110

● 입제 : 양력 2010년 9월 6일 (음 7월 28일 월요일) (해시)
● 해제 : 양력 2010년 9월 7일 (음 7월 29일 화요일) (해시)
02) 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 하시고 두번째 보라매병원 입구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웅조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중 중 본산 태일합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광수련원 ☎043)905-827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88번지>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재혼한 지 1년 가까이 되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게서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해 있고, 저와 남편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 전처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와 함께 제사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말을 하는데, 듣기 거북하고 왠지 못 올 곳 온 것 같았습니다. 이질감과 소외감도 생기더군요. 직장까지 조퇴하면서 남편 전처의 제사상을 차리는 제가 속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후처가 전처의 제삿날 꼭 참석을 하고 음식도 장만해야 하나요? 저는 절을 했습니다만 제사에 참석해서는 절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는 분께 여쭸더니 죽은 사람

남편의 자식은 님의 자식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도 아버지 옆에 새 어머니가 있음을 고마워할 겁니다. 살아가며 가족 간의 행사를 공유하는 것도 행복을 배가 시키는 길 일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처의 제삿날을 챙기는 것은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사에 절을 함은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예의이니 가족으로서 절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사법도에 관한 것은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집안마다 다르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통 유교적인 것을 원하시면 <주자가례>와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등 정통의식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처 제사를 지내며 가족과 괴리감이 느껴져요
재혼가족 관계 개선에 제사가 많은 도움됩니다

한테 잘 하면 나쁠 것 없으니 잘 해주라고 하는데요, 제 맘이 거북하고 불편해서요.

그리고 애들이 저 죽은들 제사 지내 줄 것 같지도 않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를 모두 없애자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사 지내준다고 해도 그리 반갑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A 조퇴까지 하면서 전부인의 제사를 챙기신 내담자의 배려에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지니신 심성이 고운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제사는 망자를 위해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지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흩어져 살다가 제사로 인해 모이고 가족임을 확인하며 제사 음식도 차리면서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함께 먹고 하니까요. <지장경>에는 망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면 그 망자에겐 1/7 공덕이 가지만 제사를 지낸 사람에게는 6/7의 공덕이 돌아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번은 처음이라 다소 서먹하시고 어려운 자리였겠지만 차츰 익숙해지면 마음도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재혼한 가족관계 개선에도 제사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많이 힘드셨겠지만 남편과 아들, 며느리는 배려와 따스한 마음을 분명 알것입니다.

Q 미국인 친구가 저에게 "다섯 살 된 아들이 한쪽 귀가 없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요즘은 학교 가기를 부끄러워해 그 고민을 덜어주고 싶다. 혹시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를 통한 해결책도 찾는 듯 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좋은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A 흔히 말하는 '인과설에 의해 전생에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신체 불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불교 입장에서 모든 것은 인연이 있어서 모이고 인연이 다 되면 흩어진다는 연기론적 입장은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을 할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아이가 비록 불구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부모와 인연으로 태어난 아이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그 인연을 잘 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의 힘든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같이 불교의 교리에 대한 책을 권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만다라 그리며 몸도 마음도 치유

사랑법당 탐방
동국대 일산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는 만다라.

한달 반동안 매일 참가한 환자도 있어
늘어가는 만다라 보며 마음 달래기도

동국대 일산병원에 색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1층 로비 접수처 뒤에 붙은 대형 화폭에는 형형색색의 그림이 붙어있었다. 그림들은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등 수백의 사람들이 오다 가다 한 장씩 그려 붙인 만다라로, 지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 대형 그림판에 붙여진 모습을 보고 또 보며 발길을 떼지 않았다.

동국대 일산병원(병원장 이진호)과 선문화진흥원(원장 강진구)은 7월 15일~8월 31일 병원 1층 로비에서 만다라를 이용한 아트메디테이션(Art meditati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는 '3S(Simple, Smart, Speed)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일 오전 11시~2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진행됐다.

아프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 병원. 살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신세를 지기도 하지만 병원에서의 시간은 불안, 초조, 두려움, 걱정에 휩싸인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루한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 문을 나설 때면 뒤도 안 돌아보고 휑~하고 떠나버리는데 여기서는 달랐다.

몇몇 환자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려 붙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도 살폈다. 때론 낮이고 밤이고 대형 벽화에 붙여진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명상하듯 고요히 바라보고 돌아가는 이들도 많단다. 대단하고 화려한 작품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살피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셈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문양의 만다라를 색연필, 크레용, 사인펜 등을 이용해 색을 칠했다. 어린이 색칠공부도 아니고 저것이 무엇일까 싶지만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을 문득 하게 된 어른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구분 없이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동참한다. 또 대부분이 상당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내면의 중심을 찾아간다.

참가자들은 "내 안에 잠겨져 있던 것이 풀어져 나온다" "내 중심을 찾은 것 같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린다" "그냥 재밌다" "편안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의상 대사의 대형 '화엄일승법계도'와 만다라판에는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만다라가 붙여졌다. 만다라 하나하나에는 자신의 내면을 담은 제목이나 글, 이름을 써 놓았다.

'소원, 희망, 확신, 멍든 내 맘, 꽃 피움, 꽃 같은 별, 안개 속을 걷는 나 새벽은 곧 온다, 마음의 번뇌 비우면서, 언젠가 모두가 정토에, 남편의 수술이 잘되길 바라면서, 나비의 여행, 꿈을 뿌리는 나비, 건강 희망, 꿈, 그리움, 분노의 억제, 인정, 사랑한다. 영숙 건강회복 기원'

아내의 건강검진을 위해 함께 왔다는 홍기문(57)씨는 초록색과 빨간색을 번갈아 사용해 꼼꼼하게 만다라를 칠했다. 완성한 만다라가 썩 마음에는 들지 않았는지 "더 잘 칠할 것을 그랬네"라며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잘했죠?"라며 봉사자들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장난 삼아 해봤는데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좋았다"며 흡족해했다. 아내 정정자(58)씨는 "다들 참 예쁘게 잘 한 것 같다.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며 대형 만다라를 감상했다.

조애리 선문화진흥원 아트메디테이션 강사는 "병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인데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한다. 입원 환자나 보호자 등은 '아픔'을 통해 자신의 삶과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점일 뿐 아니라 건강할 때는 몰랐던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조애리 강사는 "오랜 병원 생활의 환자나 보호자의 경우는 병원 내에서 특별히 할 것이 없다 보니 지루한 일상이 특별한 체험으로 다가간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동국대 일산병원 로비에서 진행중인 '만다라 아트 열린 프로그램'에 만다라 색칠하기 명상을 하고 있다.



만다라 아트 컬러링 아트메디테이션

아트메디테이션(Art meditation)은 그림, 만들기, 춤 등의 다양한 표현 예술 치료기법과 통합심리학, 현대분석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억눌려있던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표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해소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되도록 돕는다.

만다라 아트 컬러링은 어린시절 누구나 해 봄직한 색칠공부와 같은 식으로 진행된다. 밑바탕에 그려진 만다라 그림에 여러 가지 색과 방법을 이용해 색을 칠하며 내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한다. 같은 문양에도 각기 다른 제목과 모양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만다라 그리기 명상을 매일 하면 내적고요, 마음의 조화와 균형,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오는 힘,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된 만다라아트 프로그램은 만다라를 감상하거나 그리기 작업으로 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다. 만다라는 원상(圓相)이라는 의미로 내적 중심과 본질을 얻는 것을 뜻한다. 신성한 단에 부처와 보살을 배치한 그림으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1세기 말경 불상과 보살상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조성된 것이 7세기 만다라를 발생시켰다.

힌두 탄트라 도상인 얀트라를 밀교에서도 받아들여 본격적인 밀교 만다라가 조성됐다. 또 세계민속 풍습으로 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려지거나 안전을 위한 주술적 용도로 그려지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는 심리치료나 개인의 자아치유를 위해 그려지고 있다. 분석적이며 이성적인 한계점과 일상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삶과 자기와의 통합, 우주와의 합일을 찾으려는 욕구를 표현한다.

HOT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멍석(카페트)로 cool 하게~~

네츄럴 삼베 수제 멍석(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中) (大)

■ 삼베 매트(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수제 멍석(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자연 살림 나누는 지혜 소복



장터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친환경 화장품을 직접 테스트해 보고 있다.
친환경 화장품은 장터에서 가장 인기있는 상품이다.

맑고 향기롭게
알뜰 나눔장터



길상사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책과 음반을 구경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헌 옷을 직접 리폼한 가방을 구경하는 모습.

매달 넷째주 일요일 열리는 길상서 나눔 장터 '인기'
환경보호 위해 천연화장품 · 의류 재활용 리폼 강좌 등 실시

"우와 이게 다 1000원이에요? 진짜 싸다!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음반이었는데 정말 이 음반이 1000원밖에 안 해요?"

아침 일찍부터 안산에서 출발해 서울 길상사를 찾은 한정은(51)씨는 때 아닌 횡재에 박수를 치며 아이처럼 신나했다. 가수 박효신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한씨는 "시중 음반가게에서도 구하기 힘들었던 오래된 앨범을 이 곳 길상사에 와서 1000원에 구입해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장나영(10)양은 "엄마와 함께 길상사를 왔다 평소 보고 싶었던 책들을 싸게 구입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뜨거운 태양 볕이 내리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길상사 뜨락에는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했다. 8월 22일 오전 11시~오후 2시 길상사에서 열린 알뜰 나눔 장터.

맑고 향기롭게는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길상사에서 나눔 장터를 연다. 알뜰 나눔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취지의 벼룩시장이다. 현재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헌 옷이나 재활용품 및 친환경 화장품, 친환경 용품 등을 소액에 판매하고 있다. 화장품과 수세미, 가방 등 일부 생활용품은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직접 만들며, 책, 음반, 옷 등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수거한다.

나눔 장터를 주관해 온 연혜숙씨는 "우리가 여는 알뜰 나눔 장터를 물건을 싸게 파는 바자회로 인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자연 살림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사회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우월감 속에서 너무 풍족하게만 살아간다.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풍요로움을 얻는 대신 자연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가 이런 장터를 열게 된 것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다.

연씨는 "장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회원 분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들의 생활이 바뀔 정도로 이러한 취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터는 대부분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장터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직접 판매하는 봉사자원들만 30여 명에 달한다. 여느 때엔 학생 봉사자들까지 참여한다.

맑고 향기롭게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장터를 진행해 왔지만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것은 불과 1년이 되지 않는다.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장터를 진행하지 못한 적도 여러 번이다. 그러면서 연혜숙씨는 무엇보다 "장터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터를 꾸려나가는 특별한 노하우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없다면 장터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에 상관없이 무조건 장터를 엽니다. 꾸준히 장터를 여는 것만큼 좋은 홍보도 없습니다."

연씨는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 어쩔 수 없이 장터를 열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왜 장터를 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며 "점점 찾아주는 분들이 늘수록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요즘 맑고 향기롭게는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천연 화장품, 의류 재활용 리폼, 슬리퍼, 지갑, 모기 퇴치용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강좌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화장품은 장터에서 가장 인기를 끌며 품절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다.

친환경 화장품 만드는 법을 강의하고, 장터에서 판매 봉사활동을 하는 정애리씨는 "천연 재료로 만든 화장품이 명품 화장품 못지않게 효능이 좋다는 것을 알리고, 화장품이 좋으신 분들에겐 강좌를 통해 직접 만들어 쓰시라는 취지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장터의 수익금은 맑고 향기롭게에서 불우이웃을 위해 쓰이거나, 일부 장터 개설비로 쓰이기도 한다.

연혜숙씨는 "얼마 전 장터를 외부에 더 알리기 위해 마로니에 공원에서 장터를 열려고 했지만 취소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로니에 공원 관계자들이 장터의 취지는 좋으나 물물교환이 아닌 500~1000원의 소액이라도 돈이 오가는 상황이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칫 상업목적의 장터로 오해 받아 공원 이미지에 안 좋게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연혜숙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장터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확실히 계획된 것은 없지만 장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장터 꾸리고 싶으세요?

우리 집에서 안 쓰고 넘쳐나는 물건을 이웃들과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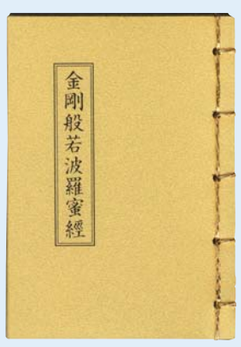
광주 무각사 재활용 장터 '보물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란씨는 "처음 장터를 꾸리고 싶은 분들은 절대 개인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인보다는 아파트 부녀회, 동호회, 회원이 많은 단체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장터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장터를 꾸려 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최소 1년은 조직의 인원끼리 의무적으로 장터를 운영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처음 '보물섬'을 개설 당시에도 지역 방송, 인터넷 등 꾸준한 홍보를 통해 장터를 알렸다. 대체적으로 장터가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려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장터는 조직력과 홍보, 사람들의 입소문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 또 김씨는 "벼룩시장형의 장터를 꾸리는 데 있어, 상업적 목적을 띠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이 공양 드시고 불제자 되세요”

‘따뜻한 밥상’ 전하는 금선사 일명 스님

8월 13일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 더운 날, 광주 송정시장에 5일장이 열렸다. 장날을 맞아 분홍색 앞치마를 입은 ‘자비나눔의 보살’들이 나타났다. 장날 하루 전부터 준비한 400여 개의 ‘따뜻한 밥상’을 전하는 손길이 바쁘다.

“워매, 정말 감사허요. 날씨도 더운디 요러케 맛난 도시락을 먹으니 너무 좋구만이라잉.”

‘따뜻한 밥상’ 도시락을 전해 받은 김남순 어르신(79, 여)은 연신 감사의 말을 전한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하지만 옛 풍경이 남아있는 송정시장은 시골 텃밭에서 재배한 야채를 갖고 나와 판매하는 어르신이 유독 많다. 어르신들은 하루 2~3만원 용돈을 벌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다. 이런 사정을 아는 금선사 자비봉사단은 작년부터 1년째 노점상 어른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이제는 장날이면 노점상 어르신들이 먼저 스님과 자비봉사단을 기다린다.

자비봉사단을 이끄는 일명 스님은 “동진출가를 해서인지 노인을 보면 부모 같아 한 끼 공양이라도 올리고 싶었어요. 매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어려운 노인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이 공양을 드시고 다음 생에는 불제자가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지요.”



광주 금선사 자비봉사단은 장날이면 광주 송정시장을 찾아 노점 행상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공양을 올린다.



일명 스님

평소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계획하던 스님은 사찰 인근의 송정시장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 후 스님은 신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봉사를 권유했다.

“뿌린 씨앗이 어디 가겠어요. 오늘 공덕 내가 못 받으면 내생에 자손이 받게 되거든요.”

스님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일까. 지금은 26명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활동과 십시일반 후원금과 물품 후원으로 운영된다.

자비봉사단의 따뜻한 밥상 나누기는 2009년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함께 시작됐다. 7월 16일에는 봉사 1주년 기념으로 무료급식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와 신도, 후원자들이 모여 지난 1년간의 활동보고와 포상, 다짐의 시간 등을 보냈다.

일명 스님은 향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소외계층 노인들을 방문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스님과 금선사 대중의 바람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폐교된 덕오초교 복지타운 건립 해인사자비원

폐교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 진주지부(지부장 성공)는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의 폐교인 덕오초교에 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복지타운에는 지역아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도자기만들기 체험장, 천연염색, 승마체험장, 다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재활승마치료 등 다양한 복지체험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해인사 자비원 진주지부는 8월 28일 복지타운 건립을 알리는 ‘다문화 음식축제’와 ‘도자기체험장’을 열었다. 오픈식에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네팔, 일본 등 10개국의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다문화 음식축제가 열렸다. 축제 기간 중에는 대중가수의 공연과 사물놀이, 통기타,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등이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성공 스님은 “2009년 3월에 폐교된 덕오초교에 복지타운을 건립해 지역주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055)763-1663

이재진 부산지사장

■ 동국사 창건 100주년 기념 법회

행사 전 귀한 토란꽃 피어나



국내 유일의 일본 건축양식 사찰로 유명한 군산 동국사가 올해로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국내 유일의 일본건축양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가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동국사는 10월 26일 창건 100주년을 맞아 2008년 발견된 복장물 재봉안 불사와 중수불사를 마무리한다. 또 동국사의 100주년을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동안 국가 기록원 등을 통해 수집한 과거 일제 강점기의 사진과 기록물을 정리한 책자의 발간 및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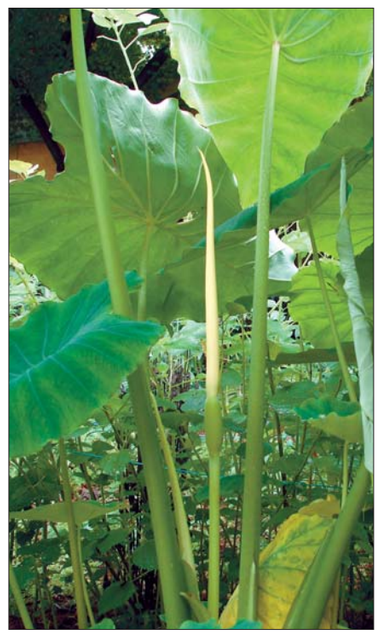
1909년 일본 조동종 우치다 선사가 창건한 동국사는 일본 에도시대의 건축양식과 일제 강점기 우리민족의 수난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이다. 2003년 국가등록 근대문화재(64호) 지정받았으며, 2008년 석가삼존불에서 300여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한편 창건 100주년 행사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국사에 100년 만에 한번 꽃을 피운다는 토란이 노란 꽃대를 2개나 올리며 꽃이 피어 화제가 되고 있다.

관상용과 식용을 겸해 화단에 심은 토란은 노란꽃대를 2개나 올리고 있어 토란꽃을 보고자 동국사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토란은 여러해 살이 식물로 줄기나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 꽃을 피우는 일은 매우 드물다. ‘100년만에 피는 꽃’이란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토란꽃이 피어난 장소나 꽃을 본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다.

동국사 거사림회 신도는 “속설의 신빙성을 차치하고라도 창건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귀한 토란꽃이 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겠느냐”며 “신도들 모두 동국사에 경사가 났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0년에 한번 꽃을 피운다는 토란꽃이 동국사에 폈다.

부산 생명나눔 메트로 부산과 업무협약 체결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과 메트로 부산(사장 문형만)는 8월 25일 부산 선암사에서 업무 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펼쳐온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협약식을 계기로 ‘메트로 부산’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및 홍보, 난치병환우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서 메트로 신문은 생명나눔의 집 활동에 동참해 생명나눔 운동에 협조를 약속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4대강 생명에게 가혹한 일하고 있다”

문수선원 , 4대강 반대 10만배 정진 입재 및 음악회 개최

정부의 정책들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영산강 승촌보에 설치된 문수선원(선원장 법선)은 8월 22일 승촌보 현장에서 ‘영산강 뭇 생명에게 참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10만배 정진기도’ 입재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10여 명이 참여한 정진기도는 실무자나 방문자가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뭇생명에게 매일 108배 참회기도를 올리는 프로그램이다.

승천보 현장을 보면서 10만배 정진기도 입재에 참여한 이승희 불자는 “4대강 공사로 인해 지난 수 백 만년 터전으로 살아온 생명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가슴 아프다. 인간도 지진과 같은 재해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으면 힘든데, 4대강에 있는 생명에게 우리는 너무 가혹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권에서 빨리 참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시사만화협회 회원들이 마을입구 도로변에 4대강에 대한 풍자 만화를 걸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전국시사만화협회 회원들의 4대강 반대 그림전과 설치미술 등이 선보였다. 여기에 문수선원은 영산강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전하는 ‘흘러라 영산강’ 8월 회보를 만들었다. 회보에는 영산강 이야기를 비롯해 4대강사업, 불교계 소식과 문수선원 소식이 담겨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의행 씨는 “향후 문수선원은 영산강 현장의 모니터링과 방문단 안내, 108배 정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애아동 · 가족 위한 템플스테이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웅)은 8월 20~22일 2박 3일 동안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와 인근 지역에서 ‘산사에서의 아름다운 휴가’라는 주제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2명, 중증장애 아동 28명, 인솔자 및 자원봉사자 73명이 참여한 가운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평소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느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삶의 여유가 없는 부모들에게 장애 아이들과 떨어져서 사찰과 문화체험을 하는 ‘아름다운 휴가’를 선사했다.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장애아동들에게는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는 중증장애 아동들에게 해남지역 유적지 관광,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①

총림의 창설, 석가모니 이후 불교사 최대사건

〈叢林〉

백장청규로 틀을 갖추다

중국의 선은 인도에서 건너온 보리달마(?-495)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의 큰 교단(종파)으로 발전한 것은 8대(代) 법손인 마조도일(709-788)과 그의 제자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에 의해서다.

마조도일은 조사선(祖師禪)을 완성시킨 선승으로 '평상적인 마음이 곧 진리다(平常心是道)' '그대가 애써 찾고 있는 부처는 곧 그대의 마음이다(卽心是佛)'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선을 일상 속으로 끌어 들인 장본인이다.

보리달마 이후 선은 4조 도신(580-651)과 5조 홍인(601-674) 그리고 6조 혜능(638-713) 때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다. 그러나 여전히 천태 · 화엄 · 정토 · 율종 · 법상(유식)종 · 구사종 · 밀종(밀교) · 삼계교 등 8종에 비하면 열세였다.

역사서에서는 도신과 홍인의 문하에는 500명이나 되는 많은 수행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수행자 집단으로서, 선종은 이른바 당(唐) 초기에 거론되고 있는 8종의 대열에도 끼지 못했다. 아직 선불교는 독자적인 선원이나 사원, 또는 참선 도량이 없는 상태였다. 선승들은 주로 율종 사원이나 또는 여타 사찰에서 당우 한 채를 얻어 거주했다. 말하자면 더부살이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승들이 율종 사원의 더부살이에서 독립하여 비로소 하나의 교단(종파)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은, 백장 선사(720-814)가 선원의 정관인 '백장청규'를 제정하여 공포한(700년대 말경) 이후의 일이다. 달마로부터 300년 후, 9대째에 이르러서다. 이에 대하여 송대의 한림학사 양억(楊億, 974-1020)은 '선문규식(禪門規式)'에서 "선문이 독립하여 행해진 것은 백장회해로부터 시작되었다(禪門獨行, 由百丈之始)"고 밝히고 있다.

백장회해가 집대성한<백장청규>는 선원 총림(叢林)의 생활규칙과 운영방침, 그리고 각자가 지켜야할 법규와 소임(직책) 등을 제정한 선원 최초의 정관이었다. 오늘날 하나의 사단법인을 운영하는데도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백장청규는 선종 총림의 법전(法典)이었다. 이 백장청규를 바탕으로 비로소 선불교는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어 백장산 백장사에 선종 최초의 총림인 백장총림을 창설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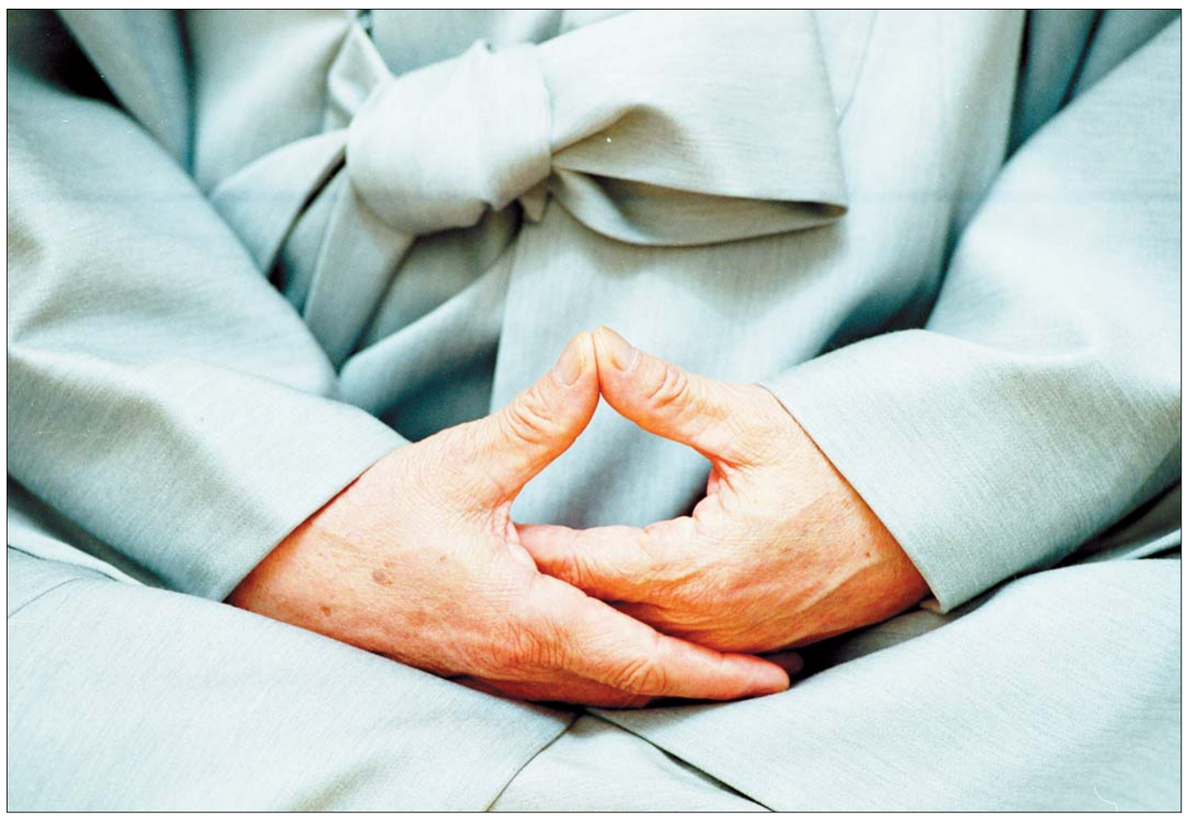
"덕망이 높은 이는 장로(長老)이고, 교화에 뛰어난 선지식은 방장(方丈)이다. 불전(佛殿)은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法堂=說法堂)만 세운다. 수행자는 모두 승당(僧堂)에 거처하도록 하고, 앉는 자리는 수계의 연차에 따른다. 상당법어는 5일마다 한번씩 하고, 아침저녁으로 모여 법문을 듣는다. 공양은 아침에는 죽(粥), 점심에는 밥(齋), 두 끼만 먹는다. 보청법(普請, 울력)을 시행하여 자급자족하며 상하 구별 없이 모두 일한다."

이상이 백장청규의 대강이다. 선원의 생활규칙인 백장청규의 출현과 '백장총림 창설'은 선불교 역사상 최초의 일로서, 이것은 곧 선종 교단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당말 송대에 이르러 중국 불교계를 휩쓸게 되는 서막의 종(鐘)이기도 했다.

사실 선불교는 백장회해 이후에는 공전절후의 발전을 거듭한다. 곧이어 일어난 당 무종의 회창폐불사건(845-847)은 불교계의 판도를 180도로 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모든 종파는 거의 다 멸절(滅絶) 상태에 빠지고 오직 살아남은 종파는 선종과 정토종뿐이었다. 특히 산악에서 노동으로 자급자족하면서 권위주의를 부정하면서 선불교는 무종 사후 점점 조야(朝野)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일반 지식층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이 선불교에 귀의했다. 당송팔대가 가운데 한유(韓愈, 768~824)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두가 선에 투신했다. 기존의 불교가 교학적, 권위적이었다면, 선불교는 서민적이었으며 수행법도 인간 존재에 대한 응시였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은 더욱 매력적이었다. 특히 선승들이 쏟아내는 탈속무애한 선시(禪詩)에 내로라하는 지식인들은 모두 탄성을 질러댔다. 문인들이 투항하자 일반은 바람이 쓸고 가듯, 당말 송초는 오로지 선종 일색이었다.

도원(道源)의 <전등록>(1004년 저술) 6권 '백장회해장(章)'에는 한림학사 양억(楊億, 974-1020)이 지은 '선문규식(禪門規式)'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고청규서(古淸規序)'라고도 하는데, 백장선사가 제정한 청규의 원형을 전하고 있는 자료다. 거기에는 백장회해의 말을 빌려 당시 선불교가 독립하게 되는 전후 과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백장청규는 선종 총림의 법전(法典)이었다. 이 백장청규를 바탕으로 비로소 선불교는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기존 교단으로부터의 독립

"소실(少室, 달마)로부터 시작한 선종은 조계혜능 때까지 대부분 율종 사원에 거주하였다. 비록 별도로 선원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설법이나 거주하는 것이 여전히 법규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과제로 남아 있었다. 조사의 도(道)를 널리 펴고 미래에까지 그 가르침이 끊이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어찌 아함 등 기타 부파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대소승의 계율에 국한하지 말고 선원 독자적인 청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소승의 계율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마땅히 넓게 고찰, 절충하여 올바른 규범을 제정하고자 한다. 선원에 맞는 청규가 있어야만 올바로 수행에 힘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롭게 뜻을 세워 따로 선종사원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육조혜능 때까지만 해도 선승들은 주로 율종 사원에서 더부살이로 살았다. 그러나 율종에서 행하고 있는 법규와 설법은 선원과는 맞지 않았다. 율원은 계율을 준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선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표어처럼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율원은 율장과 경전 탐구를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했지만, 선원은 조사어록의 탐구를 통해 깨달음에 도달했다. 계율을 공부하는 율종과 마음의 존재를 규명하는 선(禪)은 그 목적은 같았을지라도 방법은 달랐던 것이다.

독탈무의(獨脫無依)한 절대적인 경지, 무소유, 무집착의 정신세계를 추구했던 선승들의 입장에서 더부살이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사견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애감 같은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독자적인 교단과 수행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잊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별도로 선원을 두었지만, 설법이나 거주하는 것이 법규에 맞지 않아서 항상 마음의 과제였다"는 말은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기존 교단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반을 확립하기 까지는 늘 도전과 두려움이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다. 많은 대중이 공주(共住)하는 총림에서 의식주(衣食住) 문제는 그 어떤 과제보다도 큰 문제였다. 물론 기존 교단(종파)처럼 세력가들이나 신자들의 기부에 의존할 경우, 그것은 익숙한 일로서 그다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선승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속적인 유혹을 끊고 독자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명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시주 단련에도 적지 않은 공(功)과 시간을 쏟아야 했다. 독립성을 유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율종이나 교종 등 기성 교단을 그대로 추종하는 꼴이었다.

불전 세우지 않고 법당만 세운다

백장선사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방안이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의 보청법(普請法, 作務, 노동, 울력)이었다. 보청은 세력가들이나 신자들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토지를 개간하여 자급자족하겠다는 의지로서, 이는 기존 교단과 확연히 차별되는 혁신적인 제도였다. 또한 이것은 인도불교가 전통적으로 벌레나 곤충 등 살생을 이유로 농경(農耕)을 금지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구교단의 개혁이요, 선종교단의 자긍심이었다.

94세로 입적할 때까지 솔선수범했던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보청정신은 전법(戰法)에서나 쓰임직한 배수진으로서, 여기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었겠는가? 백장총림이 왕실이나 세력가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깊은 산악에서 고고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보청 곧 적극적인 노동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었다. 또 이것이 회창폐불의 돌풍에서 살아남게 되는 모멘트이기도 했다.

그런데 앞의 백장청규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불전(佛殿)을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法堂=설법당)만 세운다"는 것이다. '불전(佛殿)'이란 곧 부처님을 모신 곳으로 대웅전이다. '불전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주지(방장)가 수행자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공간,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교육장인 법당만 세운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법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강당(大講堂)이다. 그는 "주지(방장)는 곧 불조(佛祖)로부터 친히 정법을 부촉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으로서 불전을 대신한 것은 곧 주지(방장)의 권위를 불(佛)과 동격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 산문(一山)의 주지인 방장은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법을 부촉 받은 현신불(現身佛)이므로 불상 즉 등신불을 모시는 당우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선원총림에서 방장은 곧 부처님을 대신하여 교화하는 살아 있는 부처, 생불(生佛)이었다. 조사선의 기질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회창폐불

승려 20만명 환속

회창법난(法難). 당 무종(武宗) 회창 연간(841-848)에 일어난 폐불사건. 무종은 원래 도교를 신봉하였는데, 제위에 오르자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3년(843) 조칙을 내려 수도와 주군(州郡)에 절 각 1개소와 몇 몇의 승려만 남기고 26만명을 환속시켰으며, 4만 개의 사원을 헐어버렸다. 불상, 동종 등은 주전(鑄錢)토록 했다. 당시 사원은 4만 4천개, 승려는 26만 9천여 명이었으니, 무려 90%가 없어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파는 거의 멸종할 정도였다. 오직 살아남은 것은 선종과 정토종이었다. 무종이 사망 후 선종은 점점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하여 당말 오대에는 오직 선종 일색이었다.

■ 연재를 시작하며

역사상 가장 피크를 이루었던 당송시대 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천 년 전 그 시대, 선승들은 어떻게 참선, 수행했으며, 하루 일과는 어떠했으며, 참선은 하루에 몇 번 했고, 한 번에 몇 분가량 좌선했는지? 정말 경전이나 어록은 보지 않았는지? 조실, 방장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자를 지도했는지? 그리고 선원총림의 생활상과 소임, 역할, 가람의 구조, 선당 내부의 구조 등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 이 연재의 목적이다.

더불어 현재 중국과 한국, 일본은 얼마나 원형이 남아 있는지도 비교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불교이면서도 선의 법전인 청규의 모습(당시의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반면 일본 영평사 같은 곳은 90% 이상 남아 있다. 당시 생활상과 용어, 가람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 선의 고장인 중국은 50% 정도 남아 있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해인사 강원 13회 졸업.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수료. 논문으로는 '해방 이후 역경(譯經)의 성격과 그 의의',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성철스님의 오매일여관 비판'(불교평론 36호), '무자화두십종병에 대한 고찰'(한암사상 3집), 지은 책으로는 <왕초보 선박사 되다> 등.



불국사의 탑은 사랑을 바친 공든 탑이다



고요해진 불국사의 뜰에 아사녀가 애타게 그리던 석가탑이 서있다.

소설 <무영탑>의 무대
⑰ 경주 불국사(佛國寺)

경주 불국사에는 애달픈 전설이 있다.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이야기다. 전설은 소설이 된다. 현진건(1900~1943)의 소설 <무영탑>에서 부여의 석공 아사달은 혼인한 지 1년도 안된 아내 아사녀를 부여에 남겨두고 서라벌 불국사로 떠난다.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운 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지만 그들은 영영 만나지 못한다. 1938년부터 1939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무영탑>은 작가인 현진건이 동아일보 재직시(사회부장) 이른바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1년간의 옥살이 후에 쓴 작품이다.

그 옛날 연못 속 위에 떠있던 청운교 백운교가 지나간 소나기에 젖어있고, 자하문 지붕 너머에는 다보탑의 윗토막이 구름에 흘러가고 있다.

다보탑을 다 짓고 난 아사달은 석가탑을 짓기 시작했다. 부여를 떠나온 지 3년 째 되던 초파일 밤. 아사달은 고요하게 쏟아지는 달빛 아래서 다보탑을 돈다. 부여를 떠나기 전날 밤, 그 자그마한 가슴으로 꿀꺽꿀꺽 돌아누워 울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 떠나던 날 멀리서 불렀던 이름, 아사녀. 그 이름이 사무쳐 탑을 돌고 또 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는 528년(신라 법흥왕 15)에 세워졌다는 설과 이보다 앞선 눌지왕 때 세워졌다는 설이 있다. 임진왜란 때 가람이 많이 소실됐고, 40여 차례의 중수와 일제강점기의 대규모 개수, 1969년 구성된 불국사 복원위원회의 불사를 거쳐 오늘의 이르고 있다.

"여기가 분명히 불국사입지요?"

불국사의 저녁나절. 웬 여자 거지 하나가 절문 앞에 나타난다. 아사녀다. 남편을 만나기 위해 서라벌에 온 것이다.

"무슨 소관이 있어 불국사를 찾으시오?"

"이 절에 부여에서 온 석수가 있습지요? 아사달이라고. 그 어른이 제 남편이요."

"안 되오. 그 석수는 지금 볼 수 없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담. 절간에 아무 여편네나 함부로 들이는 줄 아나 봐."

석가탑이 다 지어지기 전에는 아사달을 만날 수 없다는 문지기의 말에 아사녀는 절망한다.

"제가 어디서 그 탑이 다 되고 안 된 것을 보고 온단 말씀에요. 온, 그 탑 그림자라도 보아야 알 것 아녜요."

"여보 아주먼네, 그러면 좋은 수가 있소. 여기서 훤하게 내다보이는 저 길로 한 10리만 가면 거기 그림자못(영지 · 影池)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못이 있소. 그 못에는 이 세상 어느 물건치고 아니 비치는 게 없단 말이오. 지금 아사달이 짓는 석가탑 그림자도 뚜렷이 비칠 거란 말이거든. 자, 그 연못에 가서 기다려보오."

끝내 석가탑의 그림자는 영지에 비치지 않는다. 하여 석가탑을 무영탑이라 한다.

불국사 뜰에는 아사녀가 그림자도 보지 못했던 석가탑이 노을에 젖고 있었다. 석가탑이 완성되던 날 아사녀는 영지에 몸을 던진다.

"나는 가요, 저 물 속으로. 내 시신 위에나마 당신이 이룩한 석가탑의 그림자를 비춰주어요."

경주시 왜동읍, 영지 위로 바람이 불고, 세상의 모든 그림자들이 물결에 흘러가고 있었다. 석가탑이 완성되고 난 다음 날 아침, 아사달은 죽은 아사녀를 찾아 영지를 헤매다 끝내 아사녀를 찾지 못하고 돌덩이에 아사녀를 새긴다.

'그 먼 길에 나를 찾아오느라고 그 파리해진 얼굴을, 그 저는 다리를 보여주지 않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의젓한 그였거늘, 그렇게 차근차근하였거늘, 그렇게 나이보다 숙성한 그였거늘, 얌전한 그였거늘, 사랑 많은 그였거늘 나를 버리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아사달은 허리춤에 꽂았던 마치와 정을 빼어 들었다. 그는 방장 나타난 제 아내의 환영을 그대로 그 돌에 새기기 시작하였다.' 영지 옆에는 석불좌상이 그것이라고 전해온다.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 간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갈 일이다. 사랑을 바친 공든 탑이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무영탑]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경주시 왜동읍에 있는 영지석불좌상.



아사녀가 석가탑의 그림자를 애타게 기다렸던 영지.

新 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유통중인모든양초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 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0>

중생을 교화하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학인(學人)과 도(道)가 서로 보지 못할 때도 서로 통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짐작(測)으로 통하느니라."
학승이 물었다.
"짐작하지 못해도 통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일 뿐이야."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짐작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을 바꾸어 가까이 가면 도는 더 멀어지는 법이야."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어찌 스스로 숨으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잖아"
학승이 물었다.
"어찌 바꾸지 말라고 말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래야 합당하기 때문이야."

問 學人道 不相見時 還迴互也無
師云 測得迴互
學云 側他不得迴互箇什麽
師云 不與麽是你自己
學云 和尙還受測也無
師云 人卽轉近 道卽轉遠也
學云 和尙爲什麽自隱去
師云 我今現共你語話
學云 爭道不轉
師云 合與麽

도(道)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가갈 수 없고 만져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깨달아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설사 누가 깨달아서 안다고 해도 그것도 또한 어디까지나 짐작으로 아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짐작은 물론이고 깨달음도 다 내다버린다.

그런데 도는 사람들이 도를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항상 사람과 통해 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도이고, 걸어가는 것도 도이고, 일을 하는 것도 도이고, 책을 읽는 것도 도가 드러난 것이다. 설사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도 도가 드러난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세상은 도 아님이 없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상사가 곧 도인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도는 알려고 찾아다니고 얻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더 얻기 어렵다. 알려하고 얻으려하면 벌써 고요한 마음이 흔들린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바꾸어진 것이다. 그렇게 바꾸어진 마음으로 도를 알려하니 도가 나타날 리 없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야 한다. 마치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방안에 있는 그릇 속의 물은 고요하듯이 마음이 완전한 고요를 얻으면 그때 문득 내 마음이 도와 합치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조주 스님이 문하 대중에게 설법했다.
"교화할 수 있는 사람은 금생의 일이지만, 교화할 수 없는 사람은 3생의 원한(?)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다고 교화하지 않으면 모든 중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교화한다고 해도 역시 원한을 맺는 것이다. 도대체 그대들은 교화하겠는가, 말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교화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일체 중생이 그대를 볼 수 있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짐작은 물론이고
깨달음도 다 내다버린다
부처가 되려는 자는 불법을 잘못 안 것

"볼 수 없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볼 수 없다는 것인가?"
학승이 말했다.
"무상(無相)이기 때문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지금 내가 보이는가?"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중생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네 스스로 알아차려라."

師示衆云 敎化得底人 是今生事 敎化不得底人 是第三生冤 若不敎化 恐墮卻一切衆生 敎化亦是冤 是你還敎化也無 僧云 敎化
師云 一切衆生還見你也無
學云 不見
師云 爲什麽不見
學云 無相
師云 卽今還見老僧否
學云 和尙不是衆生
師云 自知罪過卽得

금생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전생의 업보가 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선(禪)을 말하고 도(道)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다생의 업보가 크기 때문이다. 원래 업보가 중하면 정법을 멀리하는 법이다. 그런데 설하는 자와 듣는 자가 3생의 원한을 가진 사이라면 깨달음은 고사하고 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학승이 "화상께서는 중생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조주 스님이 보인다는 말이다. 조주 스님은 대담 말미에 "하물며 도를 닦는 너도 이 노승을 보는데 어찌 일체 중생이 너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네 말대로 일체 중생이 너를 보지 못한다면 그들을 불국토로 인도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들의 눈에 네가 보인다면 너는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찌 교화한다는 망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그대가 또한 교화하지 않는다해도 중생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자, 납자들이여! 중생을 교화하겠는가, 말겠는가? 만일 본 납자에게 묻는다면 "중생을 교화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하겠다. 조주 스님이 "지금 내가 보이는가?"하고 물으면 "보이지 않습니다."하고 대답하겠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이 납자가 이렇게 대답하고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중생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를 알겠는가? 그대들이 '모른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본 납자의 과오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즉시 알 것이다.

스님이 문하 대중에서 설법했다.
"8백 명이나 부처가 되려는 사람은 있어도 한 사람의 도인(道人) 찾기는 힘들다."

師示衆云 八百箇作佛漢 覓一箇道人難得

8백 명이 아니라, 항하수 모래알만큼이나 되는 수행자들이 부처가 되려고 수행한다해도 절대 부처가 되지 못한다. 설사 천년을 다시 태어나 수행한다해도 절대 성불(成佛)하지 못한다. 부처가 되려는 자는 불법을 잘못 안 것이다. 알겠는가?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옛 스승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지음자(知音者)를 만나기 어렵다고.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⓫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

염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계·정·혜
〈念〉

<역대법보기>는 돈황본 자료로는 스타인 516, 1611, 1776, 1916. 및 페리오 2125, 3717.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초기의 선종사서 가운데 탈락한 부분이 없이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전등사서이다. 오조홍인 이후의 초기선종 사서 가운데 사천성 검남의 정중사(淨衆寺) 및 보당사(保唐寺)를 중심으로 번성한 선종의 역사를 축으로 삼아 선사상을 체계화한 책이다. 보당무주(保唐無住: 714~777)가 입멸한 이후 오래지않아 그의 제자들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확실한 편집자의 명칭은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여기에서는 신라의 김화상 무상(無相 곧 정중무사(淨衆 · 684-762)의 선법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역대법보기>는 대정신수대장경 제51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는 전등사서로서의 성격이다. 당시에 소위 북종과 남종의 정통논쟁의 와중에서 남종의 종지가 정통으로 굳어졌다. 이런 틈을 타서 북종과 남종과 다른 제삼의 선풍을 주장한 계파가 홍인 – 지선 – 처적 – 무상 – 무주로 전승되는 법맥이었다. 이들은 자파의 정통을 주장하기 위해 <역대법보기>(774년 무렵 성립)를 내세웠다. 특히 정법안장의 상징인 의발(衣鉢)의 전승을 보리달마 – 혜가 – 승찬 – 도신 – 홍인 – 혜능 – 황제 – 지선 – 처적 – 무상 – 무주로 주장함으로써 정통임을 강조했다. 이것은 8세기에 치열하게 전개된 선법의 정통논쟁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등장했음을 말해준다.


돈황사본 <역대법보기>

둘째는 정중무상의 선법이다. 무상의 선사상은 기본적으로 삼구법문으로 요약된다. <역대법보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화상은 매년 섣달과 정월에 사부대중 백천만인을 모아서 수계를 했다. 수계를 할 때에 도량을 깨끗이 장엄하고 고좌(高座)에서 설법을 했다. 이 때 먼저 인성염불(引聲念佛)을 하는데 염불소리를 다 내쉬어 그 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계속한다. 그리고 나서 무억(無憶: 일체의 집착(相)을 떠나는 것), 무념(無念: 일체의 망념을 여의는 것), 막망(莫妄: 일체의 대상을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할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무억은 계(戒)이고, 무념은 정(定)이며, 막망은 혜(慧)이다. 이 삼구가 곧 총지문(總持門)이다."

이 삼구법문에 대해 종밀은 다음과 같이 세 번째의 막망(莫妄)을 막망(莫忘)으로 바꾸어 해석을 가한다.

"삼구라는 것은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忘)이다. 생각에는 이미 지나간 경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억하지 않는 것이 무억(無憶)이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영쇠성고(榮衰盛故)에 대하여 염려하지 하는 것이 무념(無念)이며,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지혜에 상응하여 혼착(昏)錯이 없는 것이 막망(莫忘)이다. 혹은 외경에 대하여 억념이 없고, 내심에 대하여 망념이 없으며, 수연에 대해서 의지함이 없는 것을 계? 정?혜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비록 종지를 연설하는 방편은 다양하지만 모든 종지는 이 삼구에 귀속된다."

또한 <역대법보기>에서는 삼구를 각각 삼학에 배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삼구는 곧 총지문이다. 집착(相)에 대한 억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계문이고, 분별에 대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문이며, 인연법에 대한 분별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혜문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갖가지 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계·정·혜이다. 과거 미래 현재의 항사와 같이 많은 제불도 바로 이 가르침에서 출현하였다. 그리니 이 밖에 따로 가르침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인성념불은 삼구 가운데 무념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이다. 곧 수계법회 때 한 번 호흡을 크게 내쉬면서 염불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멈추어 고요해지면 일체의 相에 대한 억념을 없애고, 분별에 대한 망념을 없애며, 일체의 것을 올바르게 사유하여 잊지 않도록 하는 삼구의 가르침을 설한 것이다. 곧 일자염불(一字念佛)을 하였다. 일자염불은 처음에 어떤 한 글자를 선택하여 목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부처님을 염하는 실천법이다. 그 목소리를 점차 약하게 하고, 나아가서 종국에는 무성(無聲)이 되어 소리가 부처님을 대신해 생각하는 말 그대로 염불이 된다. 이리하여 소리로 시작해 그것이 마침내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된다. 만약 이것이 한번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복하여 염불이 잘 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와 같이 한번의 소리를 길게 끌어 염불의 경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성염불이라 한다.

이처럼 무상의 선사상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법보기>는 한국의 선종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수강생 모집

사주 명리학에 입문후 열심히 하셨으나
공부에 큰 진전이 없어 고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참석하셔서 좋은 공부와 인연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개강의

■ 일시 : 2010년 9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 13시
■ 과목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기타
■ 강사 : · 전, 호서대 기문 관상학 주임교수
· 전, 동아 · 불교 문화센타 명리학, 기문학 강사
· 전, 사단법인 동양사상연구회 부회장 직강!
■ 장소 : 난곡입구사거리 다비취안경점 홍삼대리점 안골목 정운철학원
■ 전화 : 010-7154-8835
011-241-9681

정 운 철 학 원

종무법인 (법원등기 제 000006호) 禪農敎團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是燈紀風
旨溪傳天家
宗曹首西立
立勅葉代農
幢佛迦八禪
法明一十朝
建明第二今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法의 깃발 높여 이 道理 세움이여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입 종 비 : 없음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 사 무 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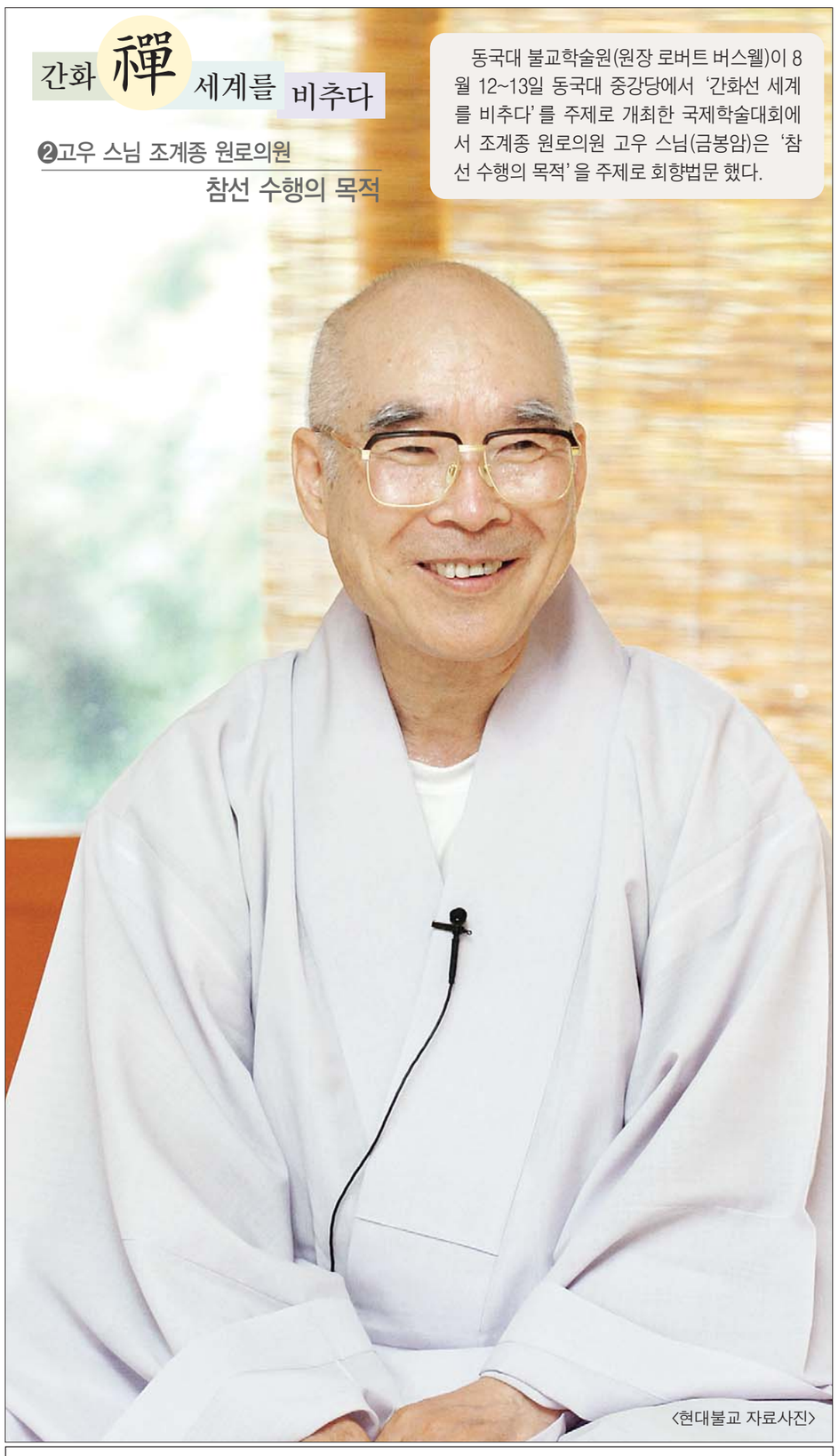
진짜 무소유는 '나'라는 생각 갖지 않는 평상심

간화 禪 세계를 비추다

❷고우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참선 수행의 목적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 버스웰)이 8월 12~1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암)은 '참선 수행의 목적'을 주제로 회향법문 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바로잡음-사과드립니다 798호 14~15면 '선지식을 찾아서' 고우 스님 편의 법문은 제작상의 실수로 797호에 실렸던 혜국 스님의 법문 내용이 교체되지 않은 채로 제작됐습니다. 혜국 스님, 고우 스님,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참선이 무엇인가? 참선도 부처님 가르침을 성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선을 왜 하는가?' '불교를 왜 믿는가?'라는 질문도 같습니다. 둘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불교는 여타 종교나 사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목적에 도달했을 때도 여타의 종교 사상과는 다릅니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내 밖에서 얻으려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가다보니 행복의 조건을 물질에 두게 되었습니다. 물질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밖으로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현대 문명이 풍요롭고 편리하지만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면 불행하게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출가해서 발견한 것이지만 밖으로의 추구는 행복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 100%의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기능만 있는 100%의 행복을 만들려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세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밖으로 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잘 얻게 되고 여기서는 순기능만 작용합니다. <서장>에서 대혜 선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체험하면 내가 바로 부처와 조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선(禪)입니다. 선이라고 하면 좌선(坐禪)을 떠올리는데 그 자리를 발견해야 진정한 좌선입니다. 몸이 앉아 있는 것이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앉는 것이 진짜 좌선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일상생활이 매일 매일 행복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음덕을 끼쳐 줄 수 있어서 공익(公益)을 위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불교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사회와 이웃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제 군주국에 살았던 대혜 선사는 대신(大臣)이 수행을 잘해서 정치를 잘 하면 임금을 요순의 지위에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매우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내 혼자 잘 되려고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와 우리 집을 위하여 하다가, 선을 자꾸 하다보면 눈이 열리고 이웃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이웃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참선 잘못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이기심이 없어지며 남과 더불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내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도 편안하게 하려는 큰마음이 열립니다.

최근에 저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4D의 좋은 기술로 상영되는 영화를 보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불교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선(禪)이 그 폭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지구 자원이 고갈되어 판도라라는 행성에 가서 자원을 약탈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약탈하려는 인간의 수단이나 그것을 방위하려는 나비족의 방법이 모두 다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은 악순환만 되풀이 할 뿐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절대로 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좋다고 한다면 누구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을 저는 부시형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서 저는 부처님의 위대성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힘으로 하는 그것이 무슨 대단한 해결 방법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부처님의 불법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한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과학이 여러 방면에서 부처님께서 발견한 세계를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연기로 존재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연기란 어떤 것도 단일로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으며,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것이 서로 관계 맺어서 가상의 존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해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100% 행복을 만들려면 부처님 가르침 깨달아야

몸이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앉는 것이 좌선

〈반야심경〉에 "정신과 몸이 공한 줄 알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공(空)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공(空), 무아(無我)를 깨달으시고 절대적인 행복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포함한 우주 자연의 존재 원리를 깨닫고 영원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공을 이해하여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선은 공(空), 무아(無我)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입니다. 참선해서 공,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가? 불교 수행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선이 공, 무아를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음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의식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8아뢰야식, 제7말나식, 제6식이 이것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되어 내가 있다는 생각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화하면 공과 무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6식은 표면의식, 7식은 잠재의식, 8식은 무의식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식은 가장 심층의 미세한 마음의 작용인데 예를 들어 문틈으로 햇볕이 들어오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아주 작은 먼지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 가지 미세한 작용이 이 8식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세 가지 미세한 망념 즉 무명업상(無明業相)이라는 근본 무명, 능견상(能見相)이라는 주관적 인식, 경계상(境界相)이라는 객관적 인식 대상이 작용을 시작합니다.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도인이나 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꼭 같습니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데 도인은 정화돼서 작용하고, 도인 아닌 사람은 오염돼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인 안 된 사람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데 주관과 객관이 있다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도인이 안 된 사람은 제8식 무의식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심해져서 잠재의식, 표면의식으로 나오면서 집착이 강하게 생깁니다. '이것이 이익이다, 손해다'라는 분별심을 일으키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또 <서장>에서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것을 심고 또 심는 종자와 같다고도 합니다. 구름과 바람과 같다고도 합니다. 처음 작용하면서 거기서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분별로 착각에 빠져서 이런 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관도 허구이고 착각이라는 것, 이것이 무아, 공인 줄 알면 거기서 세탁이 되어서 주객 없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주객이 없는 작용은 개인의 욕망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전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혜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참선으로 정화해서 본래부터 작용하는 지혜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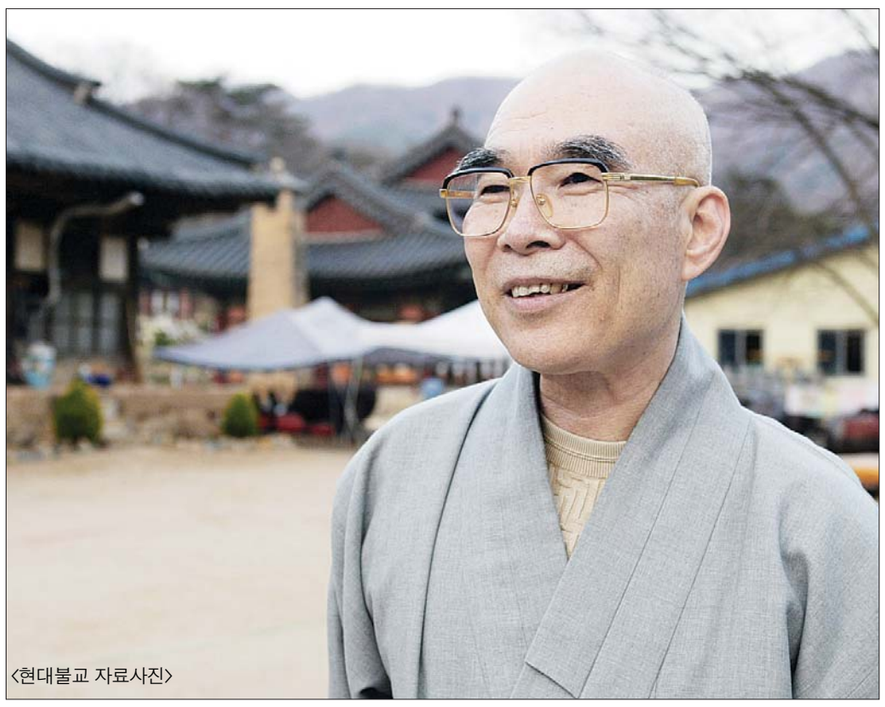
불교는 잘못된 의식을 지혜로 바꾸어 행동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참선은 세탁기와 같습니다. 어디나 작용은 있습니다. 하나는 세탁돼서 작용하고, 다른 하나는 주관 객관으로 오염돼서 작용합니다. 오염돼서 작용하다 보니 우리는 인종과 민족, 이데올로기, 종교 갈등과 같은 역기능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허구이고 착각인 줄 알아서 정화하면 갈등이 없는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창조 자본주의니 생명 자본주의니 하는 그런 주의를 능가하는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종류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평화적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선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참선도 능력





‘연기’ 믿어야 공부할 수 있어


<현대불교 자료사진>

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한 마디에 깨달아 버립니다[言下大悟]. 드물지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옛날에도 얻기 어렵다고 하여 난득(難得)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라는 질문에 “뜰앞의 잣나무다” “마른 똥 막대기다”라는 주관 · 객관이 끊어진 말을 들으면 딱 막힙니다. 이 막다른 순간에 주관과 객관이 확 무너지면서 깨닫게 됩니다. 육조스님께서 의발을 뺏으러 대유령까지 쫓아온 도명 스님에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명 수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뜰 앞의 잣나무’나 ‘마른 똥 막대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명 스님은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주관과 객관이 딱 끊어지면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아바타’의 경우처럼 힘으로 의발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집착과 욕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아의 지혜로써 해결합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을 무소유라고 아는 것은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무아, 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수달다 장자는 재산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는 더 가져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나 출세, 권력을 아예 안 갖는 것이 무소유가 아닙니다. 내라는 생각이 없는 평상심을 깨달으면 밖으로 가지든지 갖지 않든지 서로 통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무소유는 ‘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평상심입니다. 가져도 가졌다는 생각 없는 평상심으로 지혜롭게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밖의 것을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라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소유는 자기라는 생각에 집착 없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불교는 ‘나’라는 집착이 없이 형편에 따라 있는 그대로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무아(無我)를 알고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형상은 달라도 본질이 다 평등하다고 알아서 비교를 안 하게 되고, 비교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모양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우리는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양은 다르나 본질은 모두 하나입니다. 갈등 · 대립 · 투쟁은 자해 행위입니다. 본질을 알면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가치와 의미를 알면 하는 일이 즐거워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함으로써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니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 받는 사람이 되고 인격이 갖추어져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훌륭한 어른이 많은 사회와 국가는 안정되고 좋은 사회이고 좋은 국가입니다.

셋째, 자주적인 사람이 됩니다. 안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당당히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넷째,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의 국책 사업 몇 가지가 정책을 세울 때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계획했다가 오히려 정쟁(政爭)의 도구가 되어 국민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소통부재의 소음이 국민을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국가와 국민을 잘 되게 하자고 만든 제도이고 수단입니다. 오직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잘 되게 하자는 것 하나 뿐임을 알면 수단이 목적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수단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이 되어야 국민 세금으로 주는 세비를 받을 자격도 있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교통과 정보망이 발달해서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소통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형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아서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것을 알면 자연적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종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공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역동적인 활발발(活潑潑)한 평상심이 있습니다. 인종 문제, 민족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종교 문제 등등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본 모습입니다. 갈등 · 대립 · 투쟁하는 모든 일들은 착각과 오해에서 나온 허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착각과 오해와 허구로부터 깨어나려면 오직 부처님께서 깨치신 본질을 체험해야 합니다. 본질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화두 참구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갈파(喝破)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가깝고 절실하게 꼭 알아야 할 화두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화두를 통하여 깨달으면 사람은 물론 동물과도 소통하고, 자연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위대한 공부는 없다고 봅니다. 파급 효과는 이렇게 굉장하지만 화두를 참구하는 공부는 간단합니다.

존재와 비존재, 작용과 비작용, 이렇게 하나이면서 두면이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인과 중생, 내 종교, 타 종교도 없습니다. 편리를 위해 방편으로 이름 지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본래 그 자리에서 보면 저 문 밖의 사람이고 몰랐다고 하면 죽은 송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직 손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살활(殺活)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것은 그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서 ‘수행하라. 깨달아라’하는 것은 멀쩡한 맨살을 긁어 부스럼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정리=조동섭 기자

한국불교 승려열전


운허 스님(가운데)이 해인사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인 1957년 해인사에서 찍은 사진.

현대 한국불교의 또 다른 출발점, 운허

광동중 설립 인재불사… 첫 한글 불교사전 편찬

운허용하(耘虛龍夏). 1892년 왕조의 막바지에 태어나, 망국의 아득함을 맛보고, 만주로 건너가 대동청년단에 가입해 독립투쟁의 길에 나섰던 조선의 젊은이. 1921년 일제 경찰에게 쫓겨 숨어들었던 금강산 봉일사에서 부처를 만나 불자가 되고 말았던 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에게 불교는 운명이었고, 곡절이었다. 유자(儒者)가 불자(佛子)가 되었다. <운허선사어문집>에는 다음과 같이 스님의 회고를 전한다.

“내가 중이 된 것은 30세 때였는데 만주에서 서울로 잠입해 들어왔더니 고향인 평안도 정주에서 형사가 쫓아왔다. 그래서 금강산으로 피신하다가 그 길목인 강원도 회양 땅에 봉일사란 절에 들른 것이 숙연이었던지 참말 중이 되었다.”

이후 20여 년, 부처를 보고 부처를 듣고 부처를 읽었다. 당대의 걸승이라 일컬어지던 월초(月初) 스님이 길라잡이였다. 월초 스님은 그가 경전에 몰두하는 데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한문으로 된 경전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이가 드물었던 시대, 타성에 물들지 않고 의지를 지닌 동량을 절집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는 이 시절 절집에 살기는 하되 부처님 말씀을 직접 보고 듣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된다. 이후 광복까지의 20여 년은 세상에 들기 위한 기다림의 세월이었다.

운허용하(耘虛龍夏). 그에게 있어서 삶은 해방공간에서 시작됐다. 승려가 불보살이 중생에게 다가서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망국의 한을 짊어지고 세상에 쫓겨 달아났던 절에서 부처를 만났던 이가, 나라 잃어 저마다 곡절을 안고 세상을 부유하던 중생들을 광복의 마당에서 만나러 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처음 제안한 해답은 교육이었다. 광동중학교 설립하고 인재불사에 나섰다.

하지만 중생이 부처를 만나기도 부처가 되기도 쉽지 않지만, 부처가 보살이 중생을 만나는 일도 또한 그러했다. 사연은 곡절을 만들고, 곡절은 다시 사연을 낳는다. 동족의 상잔, 속가의 부인이며 가족을 잃었다. 또 부역자로 몰려 신고를 겪었다. 독립을 위해 집을 떠나고, 그 독립투쟁의 와중에 일제 경찰에 쫓겨 들어왔던 절집, 그 절집에서 만났던 광복이 기쁨에 겨웠건만.

세상은 아이러니하다. 스님의 곡절이 이 땅의 중생에게는 복이 되었다. 스님의 이후 30년이 부처와 이 땅의 중생이 만나는 가교를 놓는 세월이 되었던 까닭이다. 1961년 한국불교 역사상 우리 말 우리 글로 된 첫 번째 불교사전이 세상에 등장했다. 1964년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에 역경원이 설립되고 원장에 취임했다. 1980년 11월 봉선사에서 입적하실 때까지 스님의 삶은 ‘한글역경’ 일로매진이었다. 스님이 가신 지 20여 년, 그리고 동국대 역경원에서 <고려대장경>의 한글역경 사업이 시작된 지 37년 만에 <한글대장경>은 318권으로 완간됐다.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사업이 한국현대불교의 첫 반세기 동안에 완성된 것이다.

부처님 법음은 형상화된 몸짓, 곧 문자와 언어를 매개로 중생에게 이른다. 부처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고, 그 경전이 사막과 바다와 산과 강을 건너서 다른 세상에 전해졌을 때, 그 첫 번째 불사(佛事)는 언제나 경전의 번역이었다. 번역이 이루어지면 뜻맞추기[格義]가 시작되고, 뜻맞추기가 반복되면서 새로운 땅에 ‘부처가 되는 길’ ‘부처로 사는 길’이 열렸다.

이 땅의 불교역사가 1700여 년이나 되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 한국인들은 한글로 문자생활을 오로지하는 첫 번째 세대이다. 그 세대에게 한문은 남의 글일 뿐이다. 때문에 한문으로 된 우리 불전이 아니라 한글로 된 우리 불전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부처님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는 한글로 부처님과 대화하는 첫 번째 세대이고, 뜻맞추기를 반복하기 시작하는 세대이다.

현대 한국불교에서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로 부처를 만나는 큰 길이 운허 스님의 한글역경 사업에 대한 서원에서 비롯됐으니, 그가 현대 한국불교의 또 다른 기원이기도 한 셈이다. 한국 땅에서 만들어진 세 번째 대장경의 주인공,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과 글로 불교를 읽고 쓰게 한 주인공, 실은 현대 한국불교 전법(傳法)의 큰 줄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기적의 목 • 어깨 전문 지압기 보급에
함께하실 전국 지역 총판 대표님을 모십니다

세계유일의 가정용 경추지압장치입니다.

사용 즉시 효과 100%

• 40,50견으로 어깨가 자주 결리고 아프신 분
• 목디스크 환자
• 운전 등으로 목이 자주 피로하신 분
• 수면자세가 불량하여 목이 불편하신 분
• 두통, 치통, 코막힘 등 얼굴과 머리부위 이상
• 테니스, 골프 엘보
• 악기 연주시 손가락 저림 현상을 느끼시는 분
• 목에 통증과 피로를 자주 느끼시는 분

The People for the human being
KUNHEUNGTECH
서울시 서초구 양제동 402-12 서도빌딩 5층
www.kun-heung.co.kr

지역 총판 특전
1. 무자본으로 40억
2. 소자본 무점포 사업
3. 마케팅 Tool 지원
: e-마케팅지원 (검색광고지원)
(본사 사이트 매출 → 지역총판분배)
: 팜플렛 / 리플렛 / 포스터지원
: 판매메뉴얼제작 / 배포 → 방판사원 교육지원




• 특허등록출원 제2010-34096호
• 상표등록출원 제2010-39768호
• FDA등록출원
• 의장특허출원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하여 드립니다.
상담 및 주문전화
02)2058-1482~3

“불교문화유산에 감춰진 과학기술 많다”

강사 : 이준(건국대 명예교수 · 실상과학연구원장)
일시 : 2010년 8월 18일
주제 : 과학의 눈으로 본 불교문화유산
장소 : 만해 NGO 교육센터
주최 : 불교아카데미

불교문화는 한국 문화유산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이 뛰어나 전 세계적으로도 불교문화는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8월 18일 만해NGO센터에서 열린 불교아카데미 리더스불교문화특강에서는 이런 불교문화를 과학의 시각으로 바라본 강연이 열렸다.

건국대 명예교수이자 실상과학 연구원장인 이준 교수는 ‘과학의 눈으로 보는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과학자들이 불교의 문화유산 즉, 불자들이 수행을 위해 조성한 유물들을 깊이 관해 볼 때 그 속에 정밀한 과학과 기술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의 범종, 고려대장경 경판, 장경각에 감춰진 과학과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

#한국의 범종

한국의 범종(Temple bell)은 동양종의 한 종류로 옹기 물동이를 뒤집어 놓은 모습입니다. 종의 밑면이 지면에서 50cm 정도 되는 높이에 매달고 당목이라는 큰 나무 봉으로 종 외부의 당좌를 쳐서 소리를 냅니다. 서양종의 소리는 높은 주파수의 금속성 음향인데 반해, 한국 범종의 소리는 낮은 주파수의 부드러운 음향으로 그 여운이 매우 먼 거리까지 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양종은 크게 한국종, 중국종, 일본종으로 나눕니다. 세 나라의 종들 중 한국종은 동체가 아름답게 디자인 돼있고, 신비롭고 긴 여운을 갖는 우아한 소리로 가장 우수한 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종은 두 나라의 종에 없는 음관(音管, sounding pipe)과 종 밑의 지면 아래로 종소리의 공명을 유도하는 명동(鳴洞, resonance hollow)을 만들어 두기 때문입니다.

특히 771년(신라 혜공왕 7년)에 만들어진 국보 제29호 봉덕사 종은 가장 우수한 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성덕대왕 신종’이라고도 불리는 봉덕사 종은 무게가 20t, 높이가 3663mm, 밑면의 지름이 2227mm , 밑 부분 두께가 203mm, 음관의 높이는 648mm, 음관 상부의 지름이 148mm, 음관 하부의 지름이 82mm이다. 이 종의 재질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으로 돼있습니다. 그 당시 신라는 스키타이 청동문화(Scythian bronze culture)와 중국의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청동기문화의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원료의 조합기술 및 밀납을 이용한 로스트왁스(lost wax) 주조법 등 현대의 고도화된 주조기술이 무색할 정도로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종은 중국종, 일본종과 그 형태와 음향학적 특성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종은 타종을 했을 때 소리가 긴 맥놀이로 이어지고 2차적 여운으로 변한 저주파의 소리가 매우 멀리까지 도달합니다. 그것은 한국종에만 있는 음관과 명동이 있어서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종이 갖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봉덕사 종의 기본 주파수는 65Hz입니다. 음관과 명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맥놀이 주파수는 0.35Hz입니다. 이 주파수는 상원사 종의 맥놀이 주파수 2.02Hz에 비해 5.8배나 느린 속도로 소리의 맥동이 반복돼 매우 은은하고 장중한 음향을 들려줍니다.

신라종은 지상으로부터 20~50cm 이내의 높이에 종의 밑면이 오도록 매다는 것이 오랜 관례로 돼있습니다. 또한 종의 밑에는 신라시대부터 명동을 둬 공명에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점은 신라의 장인들이 명동을 만든 것은 음향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해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흥망성쇠와 전란 등에 의해 원형이 훼손돼 신라장인의 손으로 지어진 명동의 정확한 치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 설치돼 있는 봉덕사종의 명동은 종의 높이 450mm이며, 명동의 지름1850mm, 등가 공명동의 중심 깊이는 940mm입니다. 이런 신라종의 독특한 구조와 그 신비한 음향과 넓은 확산범위는 우리나라 불교문화 속에서 성장한 청동기 문화의 정수라 봅니다.

#고려대장경 경판

고려대장경 안에는 그 당시까지 알려진 모든 삼장(三藏, 경(經), 율(律), 논(論))을 다 포함하며, 전체가 구양순(歐陽珣)체로 오자나 탈자가 없는 자랑스러운 경판입니다. 대장경 경판은 당시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과학적인 공정과 처리과정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서울대 이태영 교수는 1993~1995년 연구한 ‘고려대장경판 보존을 위한 기초학술연구’를 통해 대장경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장경의 경판을 조성한 나무는 마구리 등 부속재료까지 하면 10여 종이 넘습니다. 하지만 경전의 판각에 주로 사용된 나무는 산벚나무와 돌배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비교적 단단하면서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 정밀한 각자에 적합합니다.

우선 목재는 적합한 두께의 널빤지로 잘라 바닷물에 3년 정도 담가둡니다. 이는 다당류 등 가용성 성분들을 추출제거함으로써 목재 속의 굳은 맥질 성분을 연화시켜 효율적인 건조와 균일한 판각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좀이 쓰는 것을 예방하며, 판각 후 칠이 잘 먹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음지에서 건조해 나무가 뒤틀리거나 휘지 않도록 합니다.

건조된 목판은 정확하게 경판의 치수로 자르고 양면을 대패로 민 다음 마구리와 보강용 금구를 부착해 원판을 완성합니다.

완성된 원판에는 한지에 쓴 경문을 뒤집어서 붙이고 한자 한자 각자를 합니다. 각자를 한 다음에는 그 소지(素地) 표면에 먹을 바른 후 2~3회 걸쳐 옻칠을 합니다. 이 때 안료가 함유된 다른 목기의 칠과는 달리 순수한 옻칠만을 사용했습니다. 칠을 올리기 전 바탕에 먹으로 밑칠을 한 것은 염색의 목적이 아닌 경판표면의 고운 결을 메워 표현을 평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해인사 고려대장 경판 외에는 옻칠을 한 경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옻칠은 주성분이 천연고분자유기물인 우루시올(urshiol)이고 거기에 미량성분으로 단당류와 다당류 그리고 락카제(laccase) 등의 효소들이 함유돼 있습니다. 경판 표면의 옻 칠 도막(塗膜)은 내습성, 내열성, 내산성 그리고 유기용제에 대한 내성이 양호해 내후성과 내구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도막은 소지인목재 안의 수분함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옻 칠 도막의 이와 같은 우수한 특성은 건조 및 숙성과정에서 주성분인 우루시올과 공존하는 미량성분들의 화학반응으로 중합된 복합체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불교문화유산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가치를 인정 받고있어”

옻칠은 숙성과정에서 미세입자의 균일한 적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세 입자들의 크기는 그 지름이 0.1~10㎛의 범위에 듭니다. 이 적층 입자막이 수분의 침입을 막고 산소 투과를 방지합니다. 또한 막은 균일한 적층구조여서 표면 입자 층이 손상되면 새로운 입자층이 새로운 표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양호한 인쇄 품질을 가지게 됩니다.

#장경각

고려대장경이 750여 년 동안 완전하게 보존된 데는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보 제52호의 장경각은 4동의 건물로 돼있습니다.

해인사 장경각은 긴 전각으로 남쪽의 수다라전과 북쪽의 법보전이 나란히 있고 동편과 서편에 각각 작은 사간고가 있습니다. 장경각 4동의 건물에는 모두 4면의 위와 아래에 두 줄의 창이 있습니다. 위쪽 창과 아래쪽 창의 넓이는 각각 면적이 다 다릅니다. 위쪽 창과 아래쪽 창의 넓이 비는 수다라전의 남면의 경우는 1대 3.6이고, 북면의 경우는 1.05대 1입니다. 법보전 남면의 경우 1대 4.6이며, 북면의 경우 1.6대 1입니다. 이들 건물은 경판의 완벽한 보존을 위해 전각내의 온도, 습도, 공기순환 등이 최적화 되도록 자연적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더욱 장경각 바닥은 습도를 조절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목탄, 소금, 생석회를 점토와 혼합해 다졌습니다.

산 아래서 언덕을 따라 불어 올라오는 바람은 주로 수다라전 남면의 아래쪽 큰 창으로 들어오고 소량은 위쪽 작은 창으로 들어옵니다. 아래 창으로 들어온 공기는 북쪽 벽으로 옮겨가 일부는 벽과 경판가(經板架) 사이를 통해 위로 올라가고, 남쪽 면의 위쪽 창으로 들어온 공기는 대류에 의해 경판 사이를 통해 하강합니다. 이런 순화과정에서 남면을 통해 들어온 공기 만큼의 공기는 북면의 위쪽 창을 통해 일부는 아래쪽 창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 바람은 다시 법보전에 들어가 수다라전에서와 동일한 기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다라전의 남면에 도달한 바람의 속도와 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보전의 창문의 크기와 비율이 다르게 설계됐습니다.

실제로 수다라장 내의 모든 부분의 온도 변동은 항상 2℃ 이하고, 24시간 동안 외부 온도변화가 10℃ 이상일 때도 실내온도는 연중 5℃이하 였습니다. 연중 전각내의 온도 변동은 15℃이하 입니다. 전각내의 상대습도는 외부에 충격적 변동이 있을 때도 연중 80% 전후를 유지 했습니다. 장경각이 지어진 위치는 매우 습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아마도 과도한 건조에 의해 경판이 휘거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곳에 건립됐으리라 봅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왼쪽부터) 고려대장경, 봉덕사 종, 해인사의 장경각. <현대불교 자료사진>

佛敎儀式(범음, 범패) 學人 모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2010년 9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9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051)524-9406 / 010-6569-1010(법선)

사)대한불교전통문화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본 불교대학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범음범패 불교의식반을 모집합니다.

- 아 래 -

1. 과 목 :
▫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제 9호(나비)작법무
▫ 천수바라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사다라니작법, 삼귀의작법)
▫ 삼신이운, 거불, 복청게
▫ 사물

2. 교육시간 : 매주 월 · 화요일 (2010년 9월 6일 입교)
오후 1시~3시 : 범음 범패(통영안정사소리) 및 사물 다루는 법
오후 3시~5시 : 제 9호 오공양 작법무. 천수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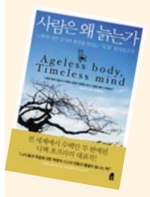
3.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1동 447-4 해동사
1) 부산 영산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스님 직강
2) 수료기간 1년 (10개월)
3) 성적우수한 학인 무형문화재 작법무 전수장학생 추천
4) 사)대한불교전통예술원 입학식 및 수료식

접수처 : 010-2563-5550 / 051)336-8975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귀 해동사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 연수원

신간 도서

사람은 왜 늙는가



심신의학자 디팩 초프라가 인간의 노화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과학, 인도철학, 현대의학을 가로지르며 전방위적 탐구를 시도했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의 양자물리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오감이 인식하는 3차원을 넘어 근원까지 내려가 보면 우리 몸을 비롯한 모든 사물은 에너지와 정보로 이뤄진 하나의 빛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인체가 하나의 물질적 객체가 아닌 에너지 꾸러미라면, 시간에 따라 차곡차곡 주름살을 늘려가는 인간의 이미지도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그 빛을 제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의식이며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의지로 좋은 유전자의 전원을 켜고 나쁜 유전자의 전원을 끌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디팩 초프라 지음 | 이균형 옮김 | 휴 | 2만원

살아남은 로마 비잔틴 제국



현대 사회는 매 순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비잔틴제국의 사람들은 새로운 체계를 받아 들이면서도 어디까지 이념대로 갈 수 있을까, 어디쯤에서 현실과 타협해야 할까, 이념을 그대로 두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각 시기마다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 1000년 동안 다양한 상황과 마주하며 시대에 발맞춰 현실에 현명하게 대처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비잔틴제국의 역사를 기존의 서양 중심 관점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시각으로, 비잔틴 역사학의 기본서로 재구성했다.

이노우에 고이치 지음 | 다른세상 | 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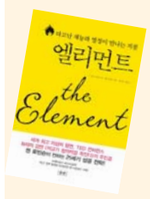
악화의 진실



1866년 대원군은 정쟁으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 중건사업을 벌이는 한편,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맞아 군비를 확장시킨다. 국가의 재정지출은 날로 확대되는 반면, 재정수입은 계속 축소되는 가운데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원군은 당백전을 발행했으나 1~2년 사이 물가가 6배까지 폭등하는 등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 <악화의 진실>은 이처럼 당백전이 발행됐던 조선 말기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을 통해 대원군을 비롯한 집권 관료들이 어떤 생각으로 당백전을 발행했는지, 또 발행된 당백전이 어떻게 일반 백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묘사해 잘못된 화폐 정책이 어떻게 국가를 멸망케 하는지 보여준다.

박준수 지음 | 밀리언하우스 | 1만3000원

엘리먼트



지금처럼 창의성을 주목하는 시대는 역사적으로도 드물다. 수많은 기업이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또한 수많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말살시키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안정적인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선호한다. 사회는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저자인 켄 로빈슨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타고난 소질과 개인의 열정이 만나는 지점, 즉 자신의 엘리먼트를 찾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켄 로빈슨 · 루 애로니카 지음 | 승영조 옮김 | 승산 | 1만4000원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어느 개그프로그램에서 나온 유행어로, 언제부터인지 최고만 기억하게 된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말이다. 소설가 김우남씨는 얼마 전 세상의 최고가 아닌, 우리 주변에 있을법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굿바이 굿바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이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엮어 만든 이 책은 '막장드라마'가 즐비 하는 현 시대에 죽비 같은 소설이다.

김우남 작가는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을 조용히 응시하는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왔다. 작문치료사, 치유상담사 등을 통해 그는 사회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갖게 됐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특히 작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을 종교적 사유와 맞물려 글로 표현한다. 이러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른 삶과 종교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김우남 작가를 만나 작품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첫 작품인 <엘리베이터 타는 여자>에 이어 <굿바이, 굿바이>에서도 그러하듯, 인간의 삶에 대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반목은, 결국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해 못할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처지와 그때의 상황을 들어보면 전혀 이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책을 통해 소외되고 상처받은 인물들의 다양한 삶을,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굿바이 굿바이>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사랑'과 '희망' 등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의 삶에 진정한 '사랑'과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순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쓴 어느 자살자의 글이 생각납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랑으로 껴안아주는 온기입니다.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가 쓴 <벽>이라는 단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엉뚱하게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벽만 허물면 전혀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말입니다.

-<굿바이 굿바이>는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구원의 글쓰기'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칫하다가 사이비교주로 오인될까 무섭습니다.(웃음) 남들이 보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상담치료를 받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들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가까운 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와 내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나 자신은 "걸림 없이 살 줄 알라"라는 말을 늘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소설에는 유달리 종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불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지는데요, 한 인간의 삶의 상처를 그려내는 과정을 종교와 연관 지어 풀어낸 의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태신앙인 불교는 자연스럽게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조차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 호도하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평정을 찾으려는 현대인에게 불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 소설 속 작품이 불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어느 종교에 빗대어도 가능한 삶의 문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굿바이 굿바이>를 출간하신 것에 대한 소견과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설집은 대중소설과 달리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대신 판매가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소설집이 우수도서로 선정되고 3쇄 이상 인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설집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 10월부터 3개월 동안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로 뽑히기 됐는데, 그곳에서 현재 준비 중인 장편소설을 쓸 예정입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기억을 스스로 단절시킨 '기억의 조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이한 행각으로 종단에서 소외된 한 스님의 일생을 통해 불교의 참의미를 되짚어 보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굿바이 굿바이 | 김우남 지음 | 문예출판사 | 1만1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3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법산	운주사
4	당신은 부처님	무비	염화실
5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6	붓다 브레인	릭헨슨	불광출판사
7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8	기도하는 즐거움	보경	불교시대사
9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일아	민족사
10	대의단의 타파, 무방법의 방법	성엄	탐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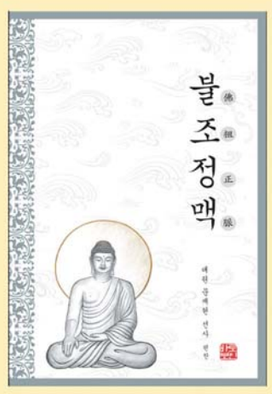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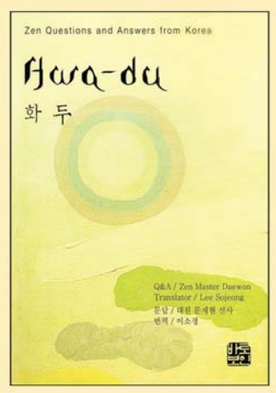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평 ~ 20평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금강경
최상승해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구입문의〉
유명서점 · 불교서점
총판 :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저자 고목 | 신국판 478쪽 | ₩17,000
도서출판밀양 T.055-355-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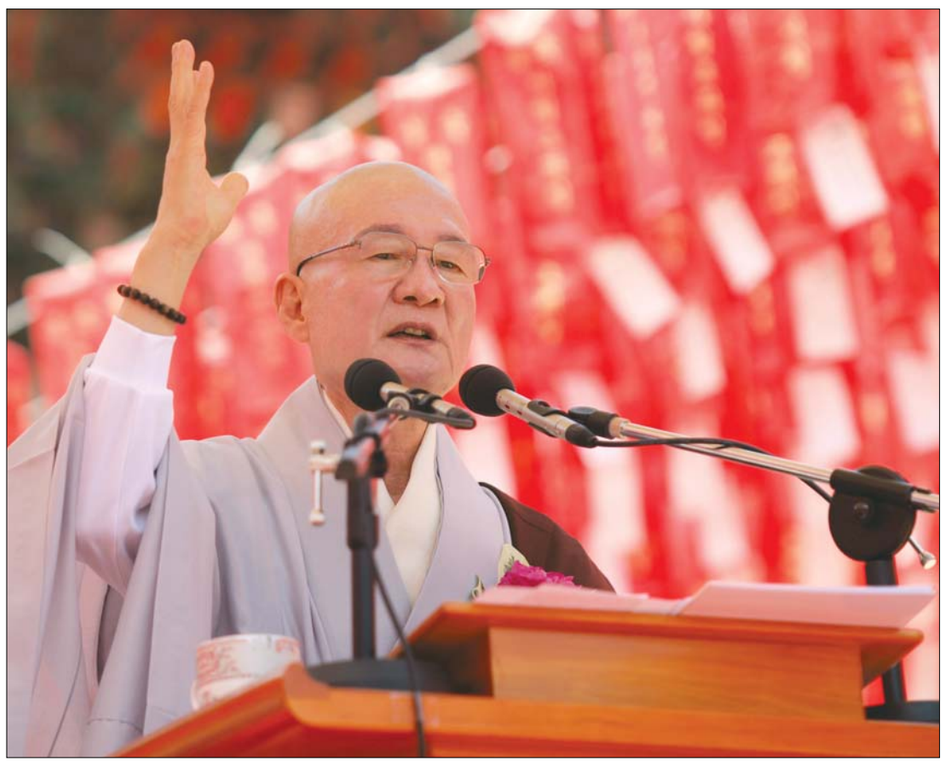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 / Hwa-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말한다!

부처님의 실존과 윤회의 주체인 영혼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불교는 환골탈태해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성지 영산불교 현지사

불세존의 본불(보신불)인 노사나불과 여러 붓다님들이 상주하신다는 성지, 특히 영산 당시의 가섭존자 광명 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 자재 만현 큰스님께서 정법을 펼치고 계신다는 영산불교 현지사(顯智寺). 깊은 산 속 명당자리도 아니고 화려한 시가지도 아닌 춘천시 교외 북단, 화천군과 경계를 이루는 38선 이북,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통일의 꿈을 품고 흘러오다 잠시 머무는 북한강 춘천댐 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

현지사(顯智寺)는 부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처님의 지혜가 오롯이 드러나는 절이라는 의미이다. 영산불교는 부처님 당시 여러 제자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수많은 불자들이 인연 따라 다시 모여 교단을 이루고 인도 영산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다시 펼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불교 수행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두 분 큰스님을 찾아 묍고 불교 교리에 있어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고, 영산불교에서 제시하는 해답을 통해 이 시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런 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하늘의 여섯 세계를 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도윤회입니다. 이 육도윤회세계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죽어 저승(명부)에 들어간 영혼체는 49일간 열시왕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갈 곳이 정해집니다. 살생 등 중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도 그 고통의 강도에 따라 극무간, 무간, 중, 하, 대기 다섯으로 나누어지고 각 지옥의 부분 지옥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중지옥 이상은 영혼체가 까무러칠 정도의 가혹한 형벌이 자동적으로 집행됩니다. 간탐하고 인색한 자는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귀보를 받습니다. 짐승처럼 행동하면 축생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산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수라, 천상의 삼선도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물론 윤회를 벗어난 성자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해탈계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죽으면 절대 다수가 중지옥으로 갑니다. 그 고통이 극심해 차마 눈뜨고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은 중생들이 의지할 곳은 부처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부처님의 구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재만현이 증득한 바에 따라, 나의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겁생 동안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악업은 모두 우리 영혼체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반영된 또 미래에 반영될 모든 악업들을 업장(業障)이라고 합니다. 업장은 행복한 삶을 가로막고 고통을 주는 주범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생은 한결같이 태산만한 업장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소멸은 영혼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해탈계로 가는 것은 우리 모든 불자들의 목표입니다. 불교 수행은 목적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영혼체에 심어진 이 업장은 모든 과보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피에 의한 업장소멸 이외에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만이 지니신 우주적 구원력의 정체입니다. 이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부처님만의 고유하고도 희유한 능력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의 교주나 그 어떤 도인과 초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만이 실질적인 구원의 종교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지니신 부처님께서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존재하고 계시기에 실질적인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고 제1성으로 부처님 실존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2600여년 전 반열반하신 부처님은 어디로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실존하고 계시는지요?

▶ 참으로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유타 아승기 무량겁 전에 인류 최초로 부처님이 되셨고, 그 동안 중생 교화를 위해 여러 차례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에 관한 내용은 법화경 여래수량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년 전에도 부처님께서는 인도 땅에 오셔서 다시금 붓다를 이루시고 45년간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두 그루의 사라나무 아래서 대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럼 열반에 드신 부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불교계에서는 그저 우주 본성인 공(空)으로, 적멸로 회귀하여 어떤 유형적 존재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실 때 육신으로부터 네 개의 빛덩어리 영혼체가 빠져나왔습니다. 육신에서 빠져나온 부처님의 빛덩어리 영혼체는 우주의 가장 심원한 차원인 무아 속 절대계, 즉 연화장세계에 여여히 계시는 무량광 빛의 몸인 당신의 보신불(노사나불)과 하나로 계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리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멸도하지 않으시고 살아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시겠다고 판단하시면 이 보신불에서 당신의 영혼체가 빠져나와 인연 있는 부모를 만나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큰스님께서 선언하신 부처님의 실존은 바로 이 보신불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이 기회에 불신(佛身)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 불신론(佛身論)은 불교의 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차원이 높고 핵심 중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경론에도 부처님의 삼신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만 추상적이고 부정확합니다. 불신론은 붓다의 경지에 가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특히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산불교에서는 험증(驗證)을 토대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삼신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지는 세 가지 유형의 몸은 법신불(法身佛), 보신불(報身佛), 화신불(化身佛)입니다.

법신불은 붓다가 우주 온 법계와 하나 된 무형의 우주적 광명체입니다. 법신불은 우주를 넘어 전 법계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상계를 넘어선 자성의 빛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신의 본체이며 진불입니다. 이 법신불은 감각도 형상도 초월해 있으므로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주 법계를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어디에도 아니 비추는 곳이 없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보신불은 법신불에 의지하여 존립하는 유형의 본불입니다. 보신불은 붓다의 불신과 네 영체가 완전히 하나로 합해진 빛의 몸, 지복의 몸입니다. 보신불은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사람의 형상을 한 인격체로서, 생각과 판단을 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중심불입니다. 보신불은 투명하고 영롱한 억종의 무량광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원히 멸도하지 않으며,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를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우주적 위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부처님이 바로 이 보신불입니다.

세 번째 몸인 화신불은 중생구제를 위해 천백억의 몸으로 나투시는 부처님을 말합니다. 보신불은 필요에 따라 무량수의 화신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화신불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십니다.

지금 티베트불교에서 말하는 불신관과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불신관은 대단히 잘못된 불신관입니다. 티베트불교에서는 수행자의 의생신(意生身)이 원초의 빛(淨光明– 우주 본성의 빛)을 받아 만들어진 청정환신(淸淨幻身)을 보신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불신론의 보신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저급하고 유한한 몸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선불교에서는 마음 속에서 삼신(自性三身)을 찾고 있으나 이 역시 불신의 경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망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화경 비유품에서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본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본불인 보신불은 어느 정도의 경지에 가야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현신하실 때 큰스님께서 보신 여러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매우 궁금합니다.

▶ 부처님의 보신불을 보는 경지는 붓다의 경지입니다. 보신불은 무량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생은 볼 수 없지만, 본다 해도 가루가 되어버릴 만큼 강도와 광도가 상상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붓다가 아닌 사람이 불신을 보았다면 그것은 천마 등에 의한 가짜를 본 것입니다.

현지사에는 불세존의 보신불이신 노사나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시지만 중생들은 볼 수 없습니다. 보통 보신불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에는 여러 가지 변화신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삼계지존이시고 우주 법왕이시며 남섬부주의 교주이시기에 머리는 말끔히 백호 친 모습에다 언제나 회색 장삼에 108쪽 빨강가사를 수하시며, 보통 때는 8고리 석장을 짚고 다니십니다. 다보부처님은 짧은 수염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약사부처님은 아래는 백색 옷을 입으시고 가슴 위는 가사만 두르시며 몸이 투명하십니다. 아미타부처님은 언제나 황금색 장삼에 55쪽 빨강가사를 수하십니다. 문수보살님은 전통적인 한국의 선비 모습에다 무량의 빛을 띤 칼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보현보살님은 머리를 풀어 길게 늘어뜨리신 선비차림이시고 용머리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준제보살님은 전형적인 왕비차림을 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하얀 실크 한복을 입으신 전통적인 한국 여인상이십니다. 지장보살님은 회색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배가 불룩 나온 모습입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에 나오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은 모두 사실로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처님의 위신력은 우주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부처님의 희유하신 위신력은 대적정삼매, 무량억종광, 삼신불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억겁 동안의 수행으로 지혜와 복덕을 완성하여 우주본체(마음, 공)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주본체인 공이 가지고 있는 무한의 힘 · 사랑 · 지혜 · 질료 · 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불가능이 없을 정도입니다. 보신불이 내는 억종의 무량광명 하나하나마다 희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고 죽어 지옥, 아귀, 축생의 악도에 빠진 영혼체를 하늘세계로 천도시켜주는 등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붓다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 한 분의 능력으로도 외도의 전부를 조복받을 수 있는 몇 억도의 화광삼매에 자재하십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전부를 던져버릴 수도 있으며, 몸을 지구만하게도 나툴 수도 있고 깨알 속으로도 들어갈 만큼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신불은 여러 불국토에 수천만의 화신불을 내어 개별적 인격체로 활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견보탑품에서 다보불이 다보탑과 함께 땅을 찢고 올라오는 장면, 허공에 있는 다보탑 속에서 불세존과 다보불께서 자리를 나누어 앉으시면서 4부대중을 허공으로 이끌어 올려 설법하는 장면, 여래수량품에서 부처님의 구원실성과 무한대의 수명을 이야기 한 내용, 그리고 여래신력품에서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위로 범천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 등은 모두 사실입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도 지상과 천상을 오가시면서 각 처에 몸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다른 장소로 가시는 등 보신과 화신을 자유자재로 나투시면서 낱낱 털구멍에서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광명을 방광하시어 부사의한 끝없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 자재 만현은 법화경과 화엄경의 이 모든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위신력은 모두 사실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방편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에서는 부처님의 능력을 극히 일부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결코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붓다의 경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부처님의 희유하신 능력입니다.

큰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부처님께서 정말로 위대하신 어른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길러내신 수많은 붓다님들 중에 우리 불자들이 알아야할 큰 부처님과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는 무량겁 전에 불과를 이루시고 수없이 사바세계를 오가시면서 수많은 붓다를 길러 내셨습니다. 많은 부처님 중에서도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과 우리가 알아야할 큰 부처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법계에는 일찍이 붓다 되신 오여래부처님이 계시고, 사바세계에서 보살행하시는 4대부처님, 그리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담당하시는 3대부처님 등이 계십니다.

오여래부처님은 불과를 이루신 순서대로 석가모니부처님, 다보부처님, 약사여래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보명부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로 불과를 이루신 칠구지불모왕불 대준제보살은 어머니 역할로 오여래에서 빠지게 됩니다. 특히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님 등 네 보살님은 지금 교학에서 말하듯이 다음 생에 붓다가 될 일생보처보살이 절대 아니며 무량겁 전에 붓다 되신 큰 부처님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길흉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은 보명부처님, 산왕부처님, 치성광여래부처님입니다.

미래불이라 알려져 있는 미륵부처님에 대한 진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륵부처님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십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도 계셨고, 불멸 후 9백년쯤 뒤 무착 당시에도 오셨으며, 불기 3000년 경에 다시 오셔서 불법을 중흥하고 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정식불명은 미륵선광불, 혜위등왕불, 보시등광불입니다.

붓다는 겁에 한 분 날 정도의 희유한 성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되는 과정도 무척 어렵고 험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정의 일부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붓다는 우주 온 법계와 하나 된 우주적 성자이십니다. 지극히 어려운 공부와 시험을 거쳐 부처님의 인가를 받아야 붓다가 됩니다. 불신을 갖는 붓다가 되려면 반드시 남섬부주에 몸을 받아와야 합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계신 극락정토에서 공부를 마치고 약사부처님의 불국토인 약사정토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 사바세계에 몸 받아와 부처님의 선택을 받고 붓다가 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정토에서 공부를 마친 증표가 바로 불신에 있는 양 팔의 팔찌와 목에 걸린 영락입니다. 이것은 붓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붓다가 되려면 억겁의 수행을 통해 다겁생 동안 지은 죄업장을 모두 소멸시키고, 탐?진?치 삼독이라든지 백팔번뇌가 하나도 남김 없이 뿌리 뽑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악과 습의 탁한 기도 전부 빠져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광명 만덕 큰스님이나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그런 작업을 해 주시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결, 악연 등이 모두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겁생의 은혜와 빚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팔정도로 공부하여 보시 등 6바라밀의 보살도와 보현행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수행자가 수천만생 동안 지혜와 복덕을 닦는다면 그 어느 때에 이르러 부처님의 빛, 무량광을 보게 됩니다. 이 희유한 억종의 내외명철한 빛을 보게 되면 인간 내면의 가장 심층에 있는 두터운 무명의 장막이 벗겨져 비로소 네 영체는 완전히 빛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 되어 칭명염불을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대적정삼매에 들어 붓다의 관문인 무량광을 보고 부처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안으로 육종진동을 경험하면 부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지도받게 됩니다. 붓다가 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광명만덕 큰스님과 내가 겪었던 삼매력 시험으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화염이나 독사 동굴 등을 통과하거나 산더미만한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등의 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대법회를 열 때 불세존께서 현신하셔서 참석불자들의 업장을 씻어주신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붓다세계에서 나 자재 만현은 문수의 법왕자로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사바세계를 포함, 수많은 불국토를 다니면서 설법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내가 현지사 법회에서 설법을 할 때에는 절대계에 있는 나의 보신불이 내 몸 속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불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불세존께서 내 정수리 위에 정좌하시고 양 옆으로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께서 시립하십니다.

수많은 본화보살들의 지도자인 상행 · 정행보살님도 내 법좌 좌우로 섭니다. 오여래부처님과 여러 부처님께서도 오시고 수많은 정토보살과 성중들, 하늘사람 백천만이 법회에 운집하십니다. 불세존께서는 무량광을 방광하여 참석불자들의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참석한 여러 부처님들도 역시 방광합니다. 세계 어느 법회에 가도 청법대중의 업장을 씻어주는 법회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업장을 씻어주는 법회! 이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큰스님 법회에만 열심히 와도 업장이 많이 씻겨 금생을 마칠 때 편히 갈 수 있고 삼악도를 벗어나 천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열반경 여래성품에는 "대열반광명이 중생의 털구멍으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큰스님이 계신 붓다회상에 와서 부처님의 무량광명(대열반광명)을 받으면 다음생에 불도를 이루는 엄청난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만생에 한 번 오기도 힘든 희유한 인연입니다.

19면에 계속

불교 역사상 최초로 밝혀지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실체

우주법계 최초불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신불을 총섭하시다

▣ 우주 온 법계를 비추는 무량억종광 자체의 우주적 무형의 존재

비로자나불은 진여자성과는 다른 대지(大智)의 광명체로서 자성광보다 백천만배 밝은 무량억종광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로자나불은 형상과 인격을 지닌 보신 부처님의 기반이 되는 형상없는 초인격적 실체이다.
수행자의 영혼체가 삼독과 번뇌를 제멸한 후 악과 습의 탁한 기가 소멸되어 무량억종광을 봄으로 인해 무명이 제거되었을 때 우주 온 법계와 계합하여 그 자체가 되어버린 몸을 말한다.

▣ 비로자나 부처님의 절대하신 위신력

모든 붓다님들은 빛으로 상속되어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인 비로자나 불에 총섭되어 있다. 지구적 차원의 큰 작업을 하실때는 모든 붓다의 보신불이 비로자나 법신불 속으로 계합하게 된다. 이때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은 우주와 본체계(적멸계)에까지 미치며 상상할 수 없는 초창조주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불가능한 일이 없다.

▣ 현지사 대적광전, 비로자나 부처님을 점안하다

현지사 대적광전은 두 붓다에 의해 점안되어 실질적인 위신력을 발휘하는 비로자나부처님이 봉안되어 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우주적 위신력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 이루어지며 세계 평화의 기틀을 한층 공고히 한다.
이러한 부처님의 큰 위신력과 더불어 두분 큰스님의 하화중생 발원으로 이곳 현지사의 대적광전은 다보탑과 더불어 유일무이한 지구촌의 보물 중의 보물이되며 현지사는 불교 역사상 유례없는 성지중의 성지가 된다.



정법불교의 메카이자 중생구제와 호국평화불교의 산실, '현지사'



지금 세계 불교계는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스님께서는 현재의 불교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지금 세계 불교계의 큰 흐름은 동남아 중심의 남방불교, 한국 · 중국 등의 북방불교, 그리고 티베트불교의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불교도 부처님의 정통법맥을 이어받은 불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방불교는 5부 니까야(아함경) 외의 대승경전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스스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빠사나 수행법도 주로 아라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방불교의 교설과 선수행은(물론 한국의 간화선을 포함하여) 중국의 도교와 혼합되어 본래의 불교와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티베트불교도 즉신성불이라는 교설과 수행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계속 환생하면서 대를 잇는 것도 우주이법에 어긋남을 지적합니다.

현재 세계불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문제점 내지 한계는 첫째, 부처님의 실존과 위신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다는 점, 둘째 무아설을 잘못 해석하여 윤회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영혼체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 셋째 완전한 생사해탈을 이루는 수행법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행의 수준에 따른 법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고 불보살의 적멸세계에 대해서도 아주 깜깜하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문제점들은 불교의 근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의 불교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불교는 우주적 진리로서의 위대성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왜소화 되어 있습니다.

영산불교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하고 다시금 정법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영산불교가 지향하는 핵심사상은 부처님 실존, 영혼체 윤회, 팔정도를 바탕으로 한 자력과 더불어 타력에 의지하는 칭명염불수행입니다. 이런 정법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고 호국평화불교를 실현하는 것이 영산불교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기존 불교계에서 2000년 이상 무아설을 잘못 해석해 왔다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정확한 무아설의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 무아설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니 않을 만큼 불교교리의 중요 핵심부분입니다. "제법무아(諸法無我)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 또는 열반적정(涅槃寂靜)과 함께 불교의 삼법인(사법인)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반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모두 현상계에 국한된 교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단 무아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현상계에는 영원불멸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아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다른 방향에서 해석 적용하여 "현상계의 나는 나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는 무아보다 비아(非我)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무아의 개념을 본체계(불보살의 해탈계)까지 확대 적용하여 본체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진아(眞我)까지 부정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본체계와 실체로서 진아(眞我)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아설을 잘못 해석하면 불보살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우리의 실체인 영혼체의 존재마저 부정함으로써 윤회와 해탈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어 불교를 왜소화시키고 위대한 불교의 진면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힌두교에 밀려 인도에서 쫓겨나 자취를 감추고 서구 등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뻗어나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불세존께서도 무아가 잘못 해석되었고 이것이 불교를 망친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무아의 해석은 바로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칭명염불을 해야하는 논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영산불교에서는 올바른 무아설의 해석을 바탕으로 영혼체윤회론을 세계 불교계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불교에서는 칭명염불, 그것도 석가모니불 칭명염불을 강력히 주장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불교의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중심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타력중심 수행입니다. 자력중심 수행은 말 그대로 자력에 의존하는 수행방법이고 타력중심 수행은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오는 수행방법을 말합니다.

영산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성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칭명염불 수행이고, 칭명염불 중에서도 석가모니불 칭명염불 수행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산불교의 칭명염불은 부처님 경전인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 다라니인 비로자나총귀진언을 독송한 후 석가모니불 성호칭명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토종 계통의 아미타불 칭명염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칭명염불은 지관(止觀)을 통한 자력 수행으로서의 기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한한 위신력을 지니신 불세존을 칭명하면 타력에 의지하여 지중한 업장까지도 소멸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실존하시기에 부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 부처님의 가피를 받지 않으면 자력만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가 지극히 어렵고 보살, 붓다가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천마와 용신 등의 빙의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4중죄를 포함한 업장을 소멸시키고 한삶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4영체를 각각 분리해야 하고, 여자의 경우라면 영체를 남자로 만들어야 하며, 정토에 자기의 아기 해탈신도 두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오로지 부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 우주의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칭명염불은 해탈의 지름길이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유일한 미증유의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칭명염불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불보살님께서 권장하시며 많은 경전에 근거가 있는 최고로 수승한 정통 수행법입니다. 칭명염불을 하면 죽을 때 똥오줌 누지 않고 잠자듯 편히 갈 수 있으며 전쟁 · 전염병 등의 큰 재난이 닥쳐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찰에서 천도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현지사에서도 천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사 정법의 천도재는 어떤 점이 다른 절과 다른지요?

▶ 천도재는 지옥, 축생 등 악도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 조상님의 영혼체를 하늘 세계로 올려주는 최고의 효행입니다. 세속의 큰 뜻을 이루려 하거나 더 나아가 수행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루려는 이들은 반드시 이러한 효행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조상님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찌 자신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조상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사찰에서 하고 있는 천도재는 실질적인 천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천도를 하려면 대상영가를 법석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그런 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조상이 돌아가셔서 어디에 가 계신지도 모르는데 지옥 · 아귀 · 축생계에 가 있는 영가를 어디 가서 어떻게 데려 옵니까? 그리고 천도를 시키려면 천도 법석에 지장보살님을 모셔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붓다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가 수배도, 천도도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찰에서 하고 있는 천도재로는 절대로 완전한 천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현지사 천도재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자리할 수 없으실 때에는 지장보살님께서 대신 주관해 주십니다. 그 결과 천도시마다 보통 한 단계식 신분이 올라갑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천도재는 현지사 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현지사는 수만의 영가를 악도에서 건져내어 하늘세계로 올려주었습니다. 역사상 유래없는 현지사 천도재의 특징과 좋은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①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며 불과 이룬 큰스님께서 직접 영가를 수배하고 참석하여 축원하시는 지구촌 유일의 천도재로서 본인 · 배우자의 친가와 외가 4가계 4대 조상까지 80명 가량을 동시에 천도합니다.

② 위 조상영가들이 죽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지옥, 무주고혼, 축생 등) 밝혀내어 수배까지 마칩니다.

③ 부처님께서는 천도재 복위자의 효행을 가상히 여겨 복위자를 비롯한 참석자의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④ 성중들을 보내 복위자의 집을 영적으로 청소해주시기도 합니다.

⑤ 4번의 천도재를 통해 영가들을 완전히 하늘로 올려보내주게 됩니다.

⑥ 영가들이 특별재심을 받아 어디로 천도되었는지 1주일 후쯤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천도재 집전 장소에 남아있는 영가들의 탁한 기운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 도량을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청정하게 씻어 놓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나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관음태교를 강력히 권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음태교는 일반태교와 무엇이 다른지요?

▶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널리 보급토록 부촉하신 태교법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도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기존 여러 나라의 각종 태교는 모두 자력태교이지만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위신력을 받는 타력태교란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태아 영혼체의 업장을 씻어줌으로써 뛰어난 재능과 성현의 성품을 동시에 지닌 나라의 동량을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혁신적 태교법입니다.

방법은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독송한 후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을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틈나는대로 배를 쓰다듬으면서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엄마가 바라는 이런이런 아이를 낳게해 달라고 발원하면 됩니다.

관음태교는 물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어 국가의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 태교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적극 권장해야 할 태교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정책도 앞으로는 태교와 영유아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과감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지사 큰스님 법회 때는 전국적으로 많은 신도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사가 특별히 다른 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 현지사의 붓다회상은 전국에서 상시 1000여명의 불자가 참석을 합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제주도나 일본에서도 참석하러 옵니다. 현지사가 다른 절과 다른 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완벽한 불법승 삼보를 갖추고 있는 세계유일의 절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현지사는 부처님 보신불(본불)인 노사나불께서 상주하시고 현신하시는 세계에서 하나 뿐인 사찰입니다. 다른 절은 부처님 화신불이 계시지만 보신불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화신불조차 없는 절도 있습니다.

둘째, 현지사는 불과 이루신 두 분의 큰스님께서 살아계신 도량이기 때문에 부처님 본불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붓다회상을 열기 때문에 사바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법맥을 완전하게 이어받은 정법도량입니다. 그러므로 현지사는 완벽한 법보(法寶)를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현지사는 가섭존자의 후신이신 광명 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의 후신이신 자재 만현 큰스님께서 금생에 불과를 이루시고 제자를 양성하며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사찰입니다. 현지사 스님들은 세계 어느 절에서보다 청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빵 조차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중심사상인 효행과 나라 사랑, 스승공경, 자비이타행을 적극 실천하도록 가르칩니다. 실제로 현지사에서는 3년전부터 매년 초파일 등을 기해 모범효행자 표창과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지사 스님 중 20여명이 윤회를 벗어난 성자이고 정토보살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렇게 현지사는 완벽한 승보(僧寶)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과를 이루신 분이 출세했다면 불교계는 물론 국가적,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경사스런 일인데, 두 분 큰스님과 관련하여 직접 한 말씀 해 주시죠.

▶ 우리나라에 불과를 이루신 분이 출세했다면 이것은 한민족 역사 이래 최대의 경사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사건입니다. 붓다는 겁에 한 분 정도 태어나는 희유한 우주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이후 수보리존자(명상불)와 사리불존자(화광불)가 각각 중국과 한국에서 불과를 증하셨지만 출세하지 않고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여기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과 자재 만현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내 책 서문을 통해 실로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선언하셨기에 이제 직접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년 1월에 법화경의 수기내용이 실현되어 나 자재 만현은 일생일대의 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 보다 1년 수개월 먼저 광명만덕 큰스님께서도 불과를 이루셨습니다. 광명 만덕 큰스님은 불세존의 법의 태자로서 불세계에서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나는 영산 당시 아난존자의 후신이고 만덕 큰스님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십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붓다는 겁에 한 분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지 2600년도 못 되어 벌써 여러 분의 붓다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좋은 질문입니다. 붓다가 겁에 한 분 정도 나온다는 말은 1겁이 지날 때마다 한 분 씩 나온다는 그런 순차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평균적인 기간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인도 땅에서 처음으로 붓다가 되신 것이 아니고 무량 겁 전에 인류 최초로 붓다 되신 후 사바세계에 여러 번 사람 몸 받아오셨기 때문에 "겁에 한 분 나온다"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금의 세계불교계와 우리 불교의 앞날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 나 자재 만현은 세계불교계와 사부대중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실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 속 절대계에 빛의 인격체로 여여히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주(主)이시고 최초불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무한한 위신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옥과 극락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세상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지사 광명 만덕 큰스님은 전생에 가섭존자셨고 금생에 불과를 이루었습니다.

나 자재 만현은 전생에 아난존자였으며 금생에 불과를 증했습니다. 화신이 아닌 보신의 부처님께서 한국의 현지궁 현지사에 상주하시고 현신하십니다. 영산불교는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한 세계유일의 정법교단입니다.

현지사는 정법의 메카이고 중생구제와 호국평화불교의 산실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영혼체이고 이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입니다. 무아설은 현상계에 국한된 개념이고, 본체계는 무아가 아닌 유아(有我=진아)입니다.

불보살이 되는 유일한 길은 석가모니불 칭명염불입니다. 해탈 넘어 불보살의 적멸세계를 말할 때 비로소 불교의 위대한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현지사는 부처님 이후 26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붓다회상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의 왜곡되고 왜소화된 불교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없고, 윤회주체(영혼체) 없는 지금의 빈 껍데기 불교를 혁신해야 합니다.
하루 속히 우주적 진리의 불교 본래 모습을 되찾아 인류구원의 종교로 정착해야 합니다.
정법의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이 여정에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천도재 안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서만 가능한 불교역사상 유례없는 조상님 천도대재 봉행

효행을 장려하는 현지사에서는 조상영가의 수배에서부터 실질적인 천도 작업, 복위자의 업장 소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특별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불교방송 안내

자재만현큰스님 BBS 불교TV 9월15일(음력 8월 8일 정기법회) 방송녹화 예정



법화경 다보불탑! 현지사 대적광전 앞에 빛으로 솟아나다!

그 날 나와 다보불은 현지사 다보탑 속에서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해서 앉아 있을 것이다 - 석가모니 불세존 말씀 -

현지사에 솟아난 빛의 묘탑

2008년 음력 10월 15일. 현지사 대적광전 개원식 마당에 빛으로 된 묘탑이 땅을 찢고 솟구쳤다. 그날 자리를 참석한 어떤 이는 땅위에서 곧게 뻗어 하늘 끝까지 휘몰아 치는 소용돌이를 보았고 어떤 이는 땅에서 소용돌이 치며 솟구치는 금빛 휘황찬란한 거대 묘탑의 형체를 보았다. 이 탑의 정체는 다름아닌 불교 최상의 경전인 묘법연화경에서 소개되는 다보탑이었다.

점안된 다보탑이 있는 현지사

현지사에서는 빛의 묘탑이 솟아난 그 자리에 시공을 초월한 절대계에 존재하는 탑을 실제 크기보다 축소하여 재현하였다. 광명 만덕, 자재 만현 두 분 큰스님에 의해 점안을 거친 이 탑은 보정정토의 실제 다보탑과 도킹되어 있으며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본화보살님이 상주하시는 곳이다.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본화보살님들의 능력은 실로 무한하여 중생의 그 어떤 소원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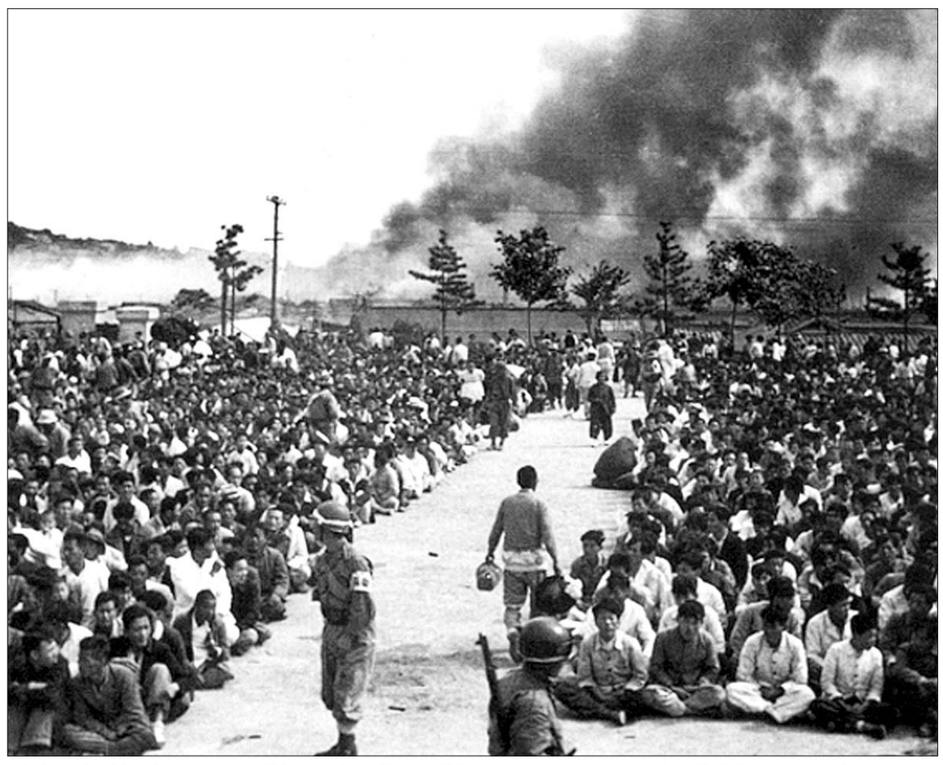
다보탑의 위신력

다보탑 조성으로 인해 현지사는 다보부처님과 천만억의 본화보살님께서 실제로 현신하여 우주적 위신력을 발휘하는 역사상 초유이자 세계 유일의 성지가 된다.
현지사의 다보탑은 국운융창과 호국 불교의 차원을 넘어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는 원대한 원력을 담고 있다. 인류 문화사에 길이 남을 우주적 보탑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불자들의 무량한 복전이 될 것이다.

■ **현지사** :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033-243-1795)

대 이어 살던 이웃끼리 피 흘린 과거 고스란히 남아

아직도 아픈 역사, 여수


1948년 10월26일 여수 서국민학교에서 벌어진 좌익 협조자 색출 장면. <호남신문> 이경모 기자가 찍었다. 여수사건 기록물 중 가장 중요한 사진이다. 학교 너머 마을은 진압작전으로 불길에 싸여 있다.

풍족하던 여수의 비극은 일본의 비행장 건립에서 시작

여수 진압군, 우익인사의 손가락총에 주민 무차별 살상

일본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1945년 8월부터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멈춘 날까지 8년 동안의 세월은 아무리 곱씹어도 어떻게 우리 겨레에게 이런 일들이 겹쳐 일어났는지 너무 슬픕니다. 돌아보면 이 비극의 시작은 전승국으로 이 땅에 진주한 미군의 한반도 정책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군은 조선인들의 자발적 준정부기구인 건국준비위원회(건준)와 건준의 발전적 해체에 이은 조선인민공화국(인공), 또 김구 주석이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패망한 한반도 주둔 일본군을 내세워 치안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름을 타서 친일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그들만의 조직을 만듭니다. 이들은 그해 12월 모스크바회의에서 채택한 신탁통치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친일의 과거를 거적때기로 덮고 자신들이 독립투사인양 거리로 나섭니다.

신탁통치의 내용은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돕고, 그에 필요한 적절한 방책을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남한의 미군사령부와 북한의 소련군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 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한국임시정부와 협의하고, 협의를 위한 임시정부의 수립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의 묵인인지 아니면 후원인지, 남한의 언론은 이 회의에서 '신탁' 을 결정한 듯이 보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소련이 적극 주장한 것으로 말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 영, 중, 소 4개국이 참여하는 직접지배방식의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었고, 영국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련은 한반도의 즉각적인 독립 및 민주주의 절차를 통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신문보도의 내용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반세기에 이르는 식민통치에 대한 감정이, 그것도 해방이 되었다고 하면서 역시 미군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판에 이 왜곡보도는 불을 지른 꼴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친일반민족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파와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좌파의 대립은 시간이 갈수록 극렬한 양상으로 치닫습니다.

여수는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지독히도 아픈 역사가 배인 도시입니다.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미군정을 반대하고 망국적 분단정부로 가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봉기였습니다. 서북청년단 등 외지의 극우세력이 가세한 진압대는 그 다음해까지 제주도민 5만여 명을 살해합니다. 이승만정부는 제주봉기 진압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를 투입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로부터 14연대의 1개 대대를 제주 진압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연대는 제주도로 가지 않습니다. 여수항에서 제주도로 가기로 한 시각, 1948년 10월 19일 저녁 8시. 남조선노동당(남노당) 14연대 조직책 지창수 상사의 지휘로 연대원은 병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하고, '친일세력이 장악한 경찰타도, 제주도 출동 결사반대, 분단정권을 거부' 를 내걸고 총궐기를 주장합니다. 봉기군은 이에 반대하는 하사관 3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연대를 완전 장악합니다. 봉기군은 다음날 새벽, 여수의 각 관공서와 주요기관을 접수하였고, 그날 낮에는 순천까지, 다음 날엔 남원, 구례, 보성을 차례로 장악합니다.

국방경비대에서 봉기군이 된 14연대가 있던 곳, 여수시 신월동에는 지금 한국화약공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수수협 냉동창고를 돌아 해안도로를 달리면 왼쪽으로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바다를 끼고 오른쪽에 그 여수 앞바다를 굽어보는 산이 우뚝 서있습니다. 이곳이 부대 자리입니다. 이곳 주민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큰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땅도 기름져서 이곳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복 받은 마을이 우리 현대사에 비극의 마을로 전락한 데에는 패망을 앞둔 일본의 저주가 작용했습니다.

1942년 8월. 이 마을의 앞바다가 디귿자(ㄷ) 모양이라 '천혜의 요새' 임을 확인한 일본해군은 비행장을 만들고자 바닷가에 호안을 쌓고 콘크리트 포장길을 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들었을 때 일본은 패망하였습니다. 그 뒤 미군정이 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남한단독정부가 들어선 뒤 곧바로 국방경비대가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는 그 자리에 화약공장이 들어섰으니 참 착잡합니다. 화약공장이라 그런지 경계도 삼엄합니다. 정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니 대뜸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용무를 묻는 경비원에게 대충 얼버무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공장은 산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빙 둘러친 철책의 중간 중간에 초소가 있어 그 안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사진은 찍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여수의 비극은 봉기군을 진압하기 위해 이 지역에 투입된 군경이 만들었습니다. 10월 21일 정부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에 법에도 없는 '계엄령' 을 선포합니다. 장갑차를 비롯하여 중화기로 무장한 병력을 앞세워 25일에는 여수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탈환하였습니다. 여수 진압작전은 2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전 육군 병력의 3분의 1과 공군, 해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여수는 앞바다에 떠있는 미군의 함정에서 발사한 포탄으로 완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여수수산시장과 선착장이 근방에 있어 늘 북적거리던 이곳은 1948년 10월 26일 국군의 육해공군 진압작전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수 시내에서 좀 떨어진 집이란 집도 모두 구멍이 뚫렸다고 할 만큼 포격과 사격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국회에 보고된 피해 현황을 보면, 시의 6할이 파괴되고 시내 중심가의 주택 1700여 호, 그 외 2600여 호가 완전 잿더미, 이재민 2만수천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온갖 병력과 화력을 다 동원하여 초토화하며 여수에 진입했지만 시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봉기군은 앞서 24일 밤에 병력을 빼내어 지리산, 백운산 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산사람이 된 이들은, 최종적으로는 1963년 11월, 정순덕을 마지막으로 '빨치산' 이 되어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수를 장악한 진압군은 이때부터 살인마가 됩니다. 진압군은 여수 서국민학교에 민간인 4만 명을 집결시키고 봉기군과 이에 협조한 좌익을 색출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여수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익을 선별하는 작업은 마구잡이식이었는데, 우익인사가 경영하던 고무신공장을 좌익이 털어갔으므로 흰 고무신을 신은 사람은 모두 '빨갱이' 라고 하여 즉결처형을 했습니다. 손에서 화약냄새가 나기 때문에, 군인양말을 신었다고, 학생복이나 국방색 속옷을 입었다고, 머리를 짧게 깎은 죄로 살해하였습니다. 또 경찰이나 우익진영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은 끌어내어 때려 죽였습니다. 이 손가락질이 얼마나 무서우면 '손가락총' 이라고 했을까요. 일본군출신의 군간부는 '칼 시험을 해 보겠다' 며 일본도를 빼들고 청년 7명을 모두 베어 죽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진남관, 종산국민학교에서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백산맥>(조정래)에 그려졌듯이 순천도, 고흥도, 보성도, 벌교도.

'진압군의 협력자 색출과정은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시내는 공포분위기로 완전히 뒤덮였다. 14연대는 이른바 ' 반동분자 'イント 경찰관, 우익인사, 우익 청년단체원들만 지목하여 처벌했고 일반 시민들은 처벌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큰 우려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국군은 전 시민을 일단 혐의자로 의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시민은 ' 보호의 대상 'イント 아니라 ' 진압의 대상 'イント었다. 무자비한 몽둥이 고문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참수 즉결총살 등으로 여수시내 중심부의 시청과 경찰서 주변에는 시체가 대강 정렬돼 있거나 혹은 난잡하게 포개져 있어 그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 만성리로 가는 터널 뒤쪽에는 집단 총살된 사람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같이 가담자 색출작업은 '같은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 이었다. '여수는 공포와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성대경 엮음,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역사비평사 간)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중에서)

여순사건의 피해는 끔찍합니다. 앞서 인용한 대목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 도시에 사시는 분 얘기에 따르면, 제주 4 · 3은 뭍에서 파견된 군경과 청년단이 한패가 되고 이에 맞서 제주도민이 싸운 사건인데 반해 여수사건은 같은 고을에서 대를 이어 오랫동안 살던 사람끼리 피를 본 사건이라 그 상처가 더 깊고 후유증도 심하다고 전합니다. 그때의 원한으로 자식끼리 혼례도 못하게 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를 하고자 그때의 피해자에게 증언을 듣고자 하여도 선뜻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가 있어 그렇답니다. 남해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여수엔 그런 아픔이 서려있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 밑 흙에는 아직도 그때 상흔이 고스란히 있을 겁니다.

한반도에서는 가장 마녁끝(남단)에 있는 역, 여수역. 서울에서 호남선을 타고 오다 익산역에서 전라선으로 갈아타고 여수역에 내렸습니다. 내리고 보니 내가 탄 기차에는 해수욕을 즐기려는지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역 앞 관광안내소에 그 젊은이들이 북적댑니다. 나도 끼어 관광명소랑 맛집이 소개된 안내지도를 받아들고 역 앞을 휘둘러보았습니다. 8월의 뜨거운 해가 도시를 녹일듯하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견딜만 했습니다. 문득 이 도시에서 요즘의 젊은이처럼 여유로운 청춘을 누리지 못했을 그때의 젊은이가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조국의 건설만이 지상의 과제였을 겁니다. 그리하여 산사람이 되어서도 '투쟁' 을 멈추지 않았고요. 그 도시에 와보니 그네들의 바람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아, 내가 큰 실수 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인 서국민학교를 진남국민학교로 착각하는 바람에 엉뚱한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여수 시내의 전경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사진기에 이상이 생기지 뭡니까. 햇빛을 받으면 영상이 분홍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거기서 고칠 수도 없어 진남국민학교를 열심히 찍은 걸로 만족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서국민학교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있다니…. 핑계 김에 시간을 내서 다시 여수에 가보려 합니다. 이번엔 챙길 거 제대로 챙겨서 말입니다.

서동석 前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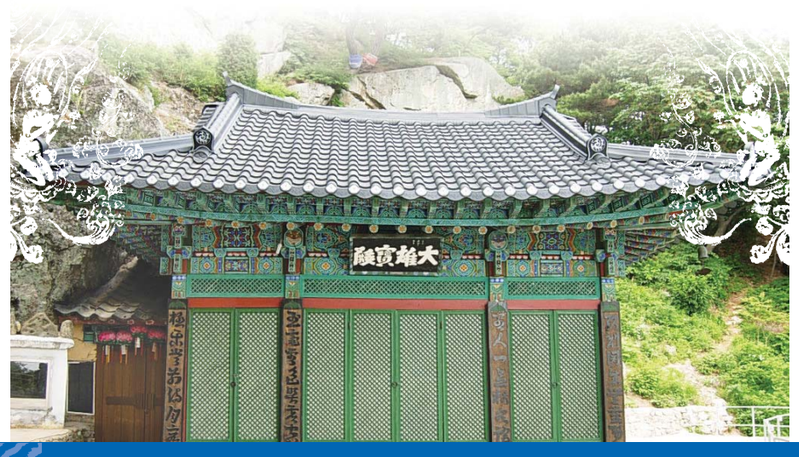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퇴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금광 자미두수 철학원

신통방통 자미두수
자미두수 별점궁합
궁합, 사주, 택일, 작명, 개명,
진로, 사업 (책 판매함)

(김정희 원장 직접 상담)

02)921-1954

018-276-1954

지하철 신설동역 2번출구

역학(명리학).작명학

수강생모집

기초 3개월, 응용(실무) 3개월
개인 및 단체강의
저렴한 비용

문의 전화 : 011-711-5072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영남소리)

사찰 각종 행사대행

011-243-3587

여여선원 법일 합장

타로 수강생 모집

수강료 - 카드결제 가능
한달 배우면 손님 상담 가능.
멀리 계신 분, 전화수강 가능.

010-9068-9123

055)533-9319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세계불교법왕청

봉안(납골당) 안내

- 평생 관리비 무료 -

010-4724-1723

화성, 괴산, 청원 (3곳 중 선택)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공양주
모십니다

▷강원도 철원군 소재사찰

033)455-5882

010-8879-84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782-3216

미국에서
부전 수행하실
스님모십니다

공양주보살, 사무장 모십니다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횡성

010-3738-033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2620-3310

사상체질과 팔상체질

역학을 25년간
공부통달
좋은인연을 기다립니다

010-6500-257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정릉 보림사

02) 919-048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구례 화엄사

010-3639-966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화정 광명사

011-493-11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0세,

서울 도봉산사

02)954-984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이하

경기 김포

010-9469-6625

50세미만
비구 부전
스님 모십니다

▷ 대구

053)851-1080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혜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포교당

011-229-6061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찾아오실 분은 이포나루터 남한강 뚝방 2층 베란다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미사리에서 40분 소요)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극락사 불교대학 3기생 모집안내

개강 및 입학식 : 9월7일 오후2시 대웅전

▸교육내용
불교입문. 불교이해의신행
불교문화. 사좌소학 , 기도법특강

▸강의 시간
주간반 (화요일) 오후 2시 : 00 60명
주말반 (일요일) 오후 2시 : 00 60명

교육접수문의 02)434-1717 대한불교조계종 극락사

◎ 극락사 납골당(추모원)분양합니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특강 영가 찾는 법

일 시 : 9월 1일(수), 9월 8일(수)
각 오후 2시

영가 찾는 법	전래비법, 생년월일로만 쉽게 찾는 법, 조상발동, 산소탈 주장신과 귀신발동 아는 법, 치방법 등	1개월
일진법 (점)과 소리 성명학	방문목적 아는 법, 사안별 점치는 법, 신수, 한글 소리 성명학 동시 강의	3개월
육효(기초)	기초이론, 점사 쉽게 보는 법	"
명리(기초)	듣기만 해도 이해되는 쉬운 오행비법, 각종 신살 쉽게 외우는 법 등	"

매주 수요일 수강상담 주야 및 주말반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선릉역 1번출구 신한은행우회전 직진150m(세븐일레븐 골목안)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110평
- 가액 : 8억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외 35평
- 요사 : 25외 1동
- 부지 : 21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4억 5천
  동해바다가 보는
  해맞이자리 경관특급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낙동강 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전통법당 : 35평
- 요사채 100평, 대종각, 기타 전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
-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버스진입가)
- 총금액 : 13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대지 : 약 300평
- 법당 : 23평 (90%완성)
- 요사채 : 31평(완공)
- 산신각, 창고
- 가액: 8천만원(절충불가)
- (총공사비는 1억 5천만원소요)
  50년이상된 사찰임

010-9215-476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3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기도처안내

- 위치 : 포항 월포
- 바다접한 전망
  좋은 기도처
- 대지 65평
- 1층 슬라브
- 가액: 9천 8백만원

010-6474-590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 평수: 2층 건물 중 2층, 35평
- 주차장 완비, 모든 시설 A급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2천만원 월 35만원
  전세, 월세 조정가능
- 시설비 7백만원(조절가능)

010-4870-8359

명당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마을 인근
- 뒤에는 산 지고 앞에는 큰 저수지
  바로 접해 있는 독립된 터
- 고속도로 4차선에서 10분거리
- 면적 609평
- 가액: 평당 20만원(주인직)

010-5014-145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인동 최고요지
- 평수 45평
- 법당, 주방, 방4칸,
- 살림가능,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1-540-3313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 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대출 가능

011-869-8608
큰스님 직

사찰터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 터 약 3000평(대지 200평)
- 계곡도 있고 산세가 수려하여
  사찰터로써는 명당으로 보임
- 평당 가액 25만원
  (약 7억 5천만원)

017-536-2222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시내사찰안내

- 위치: 인천 동구 박문사거리 근방
  전철 제물포역 도보 10분거리
- 대지 약 45평
- 1층 단독건물,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부엌
- 화장실, 도시가스, 거실, 상담실
- 투자가치성 있음 ● 융자 6450만원
- 가액: 1억 9천만원

010-4517-37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후문
  온천시장
- 평수 50평, 방2, 주방1, 화장실
- 최고시설, 최고위치, 위치 좋음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
  종교용지 300평,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
  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내 상업지역
- 상가 5층 건물의 2층
  (옥상 텃밭 30평 단독사용)
- 평수 50평
- 기본 법당시설 A급 완비
- 소임관계로 급하게안내
  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180-38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이동저수지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삼성각 7평, 호신불 108불
- 주차 30대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215-9749
011-508-146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20평, 산신각5평,
  요사채 10평,공양실15평
- 연못, 식물, 5층탑, 해태(2마리)
- 가액 : 9,500만원

011-9004-1492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 (방 많음),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 대지 200평 전 합 1,300평
- 신축황토목주택 약 20평 구조
  방2개, 찜질방포함
- 실개울 접, 2차선에서
  800미터 끝지점
- 스님모시고 조용히 계실분
- 가액: 9,500만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 대구 부산 IC에서 2분거리
  밀양시내 10분거리
- 전답, 임야 388평, 텃밭 200평
- 법당: 30평(원불: 200불, 부처님 11불)
-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10평
- 가액: 2억 2천 5백만원

011-824-5939
010-9418-59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정골목 38번지
- 2층, 3층 합 60평
- 3층 법당, 2층 요사, 방 3
  식당거실
- 인테리어 –황토방 시설A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461-1626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모곡리
- 평수 3000평
- 법당 3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60평, 조립식 40평
- 연못 있음
- 가액: 15억 (답사 후 절충)

011-737-9626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비, 단독 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감만1동
  재래시장 앞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주인인정)

010-8108-01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내
- 대지 66평, 사용평수 120평
- 1층 37평, 2층법당 20평
- 법당뒤 밭. 대나무밭.
  바다가 보임
- 교통편리, 주차가능,
- 도시가스, 화장실 4개
- 가액: 2억 7천만원
- 주인직

010-3133-0018

주 택 안 내

- 대지 650평, 건평 식당 30평
- 2층건물 1동, 1층 30평
  2층 30평, 노래방건물 1동 20평
- 건물뒤편 산세가 좋음
- 사찰도 가능한 자리
- 합천댐전경이 내려다보임
- 현재 4찬선도로 공사중
- 가액: 4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8794-1257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3층건물중 2층 60평
- 법당: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
  신중, 지장탱화, 인등400,소불 108
- 시설: 방3, 종무소, 산신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절충가능
- 소임관계로 급하게 안내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450-77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남양주 진접 장현리
- 법당30평 ● 요사30평(심야보일러)
- 방3, 주방거실, 화장실3
- 공양실(콘테이너) 3m×9m
- 대지 264평(시유지: 50평)
- 가액: 5억(융자 2억포함)
- 전세 1억 5천만원(부동산 사절)

010-8710-78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 4층건물의 3층, 50평
- 법당, 삼존불, 방2, 공양간
- 모든 시설완비,몸만 오시면 됨
- 시내 도로변 1, 2층 병원
- 유동인구 많음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315-21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5분)
- 4층건물의 4층, 40평
- 냉난방 등 모든시설 완벽
-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
  시설비 별도

010-2640-81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사림동
- 평수 : 실평수 50평
  법당 25평, 방大1, 小 1,
- 주방大, 화장실 1, 욕실 1
- 보증금 500에 월60만원
- 시설A급,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 즉시법회가능

016-9315-36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혁 신도시(김천시내에서 7~8분거리)
- 대지 171평(법당 1,2층 1동. 요사채 1,2층 1동. 합 건물 2동)
- 법당 2층 : 20평. 건물 단청되어 있음. 수미단 조성, 영단. LED인등
- 종무소 1층 : 20평. 방3개 ● 요사채 : 1층 30평, 방3개, 2층 30평, 방3개
  (귀뚜라미화목 보일러와 린라이가스 보일러겸용)
- 140여가구 마을 옆 산자락 아래 자리하고 법당옆으로 골짜기
  물이 졸졸 흐르는 깨끗한 도량, 주차공간이 넓으며, 텃밭도 있음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되어 있음
- 가액 : 2억 3천 5백만원 (은행융자 1억 포함)
- 실질적인 가액이므로 금액절충은 불가하오니 꼭! 필요로 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7133-22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예정지 5분거리
- 평수: 약 2700중 구교지 약 700평
- 건물: 법당 30평(임) 요사채 30평 2동
- 황토방 3태 산신각
- 신중 104위 88평, 접안식 하지 않았음
- 풍수지리(최적지) 항아리터,사계절 생수
- 가액: 4억 5천
- 꼭 필요하신 분은 토요일. 일요일 오셔서
  상담 바랍니다.

011-526-70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만수산 자락
  보령 20분, 청양 20분, 부여 30분
  서해고속도로 20분거리
- 부지: 약 1,200평 (사찰 뒤 도유림. 주차장 완비)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신축건물,
  방 4, 주방, 거실) , 산신각 3평, 창고 20평
- 사찰주변 경관 및 전망이 수려한 기도사찰
- 가액: 2억 8천만원(시설집기포함)
- 거래하실분만 연락바람(부동산사절)

010-3857-3366

도 심 포 교 원

- 위치 : 서울 강동구 5호선 도보 2분거리,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고급무늬목 상단
- 접견실 1, 방3, 실내화장실1, (대형)복도화장실 1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 집기일체, 도시가스
- 도심속 최고자리, 주차장 완비

011-716-38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남 목포 삼정동
  아파트 1,200세대 입주 예정지, 사거리 대로변
- 총 43평 , 4층 건물에 3층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 즉시법회 가능

010-3535-2469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평당 1만 4천원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전원주택 인법당 안내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30-1
- 면적 380평, 주거용 주택 38평
  (방 3, 거실1, 주방1, 다용도실1, 화장실 2)
- 컨테이너1, 전 60평, ● 업무용 주택(법당용)
  22평(탕비실1, 화장실2, 주차장완비)
- 인근 대한민국 최대의 예당호와 임존성
- 가액: 3억 8천만원, 전화상담후 가격절충 가능

011-425-6054
041)333-60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서면,시내 15분거리
- 뒤 산자락 물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
- 교통 최고 마을 인접 ● 총대지 650평
-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화장실2, 부속건물 2동
- 각종 유실수 조경완벽
- 가액: 3억 2천 5백만원

010-4802-3836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32 발가락

'발의 변형' 골반·척추이상 신호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변형이 일어나는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미국의 족병(足病)학회에 따르면, 막 태어난 아기들의 발은 99%가 원형에 가까운데, 1년 후에는 8%, 5세가 되면 41%, 20세에 이르러는 80%가 변형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1980년대 중반에 공업진흥청이 신발의 표준치수를 내기 위해 한국 여성들의 발을 조사했더니 무려 90%가 변형이 일어났다고 조사 됐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의 신기에 가까운 몸짓과 기술에 전 세계가 흥분했고 우리 모두는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자는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과 동시에 스케이팅 선수들의 상처 난 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감동적인 공연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들의 발은 헤어지고 망가진 상처투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체형교정 전문가인 필자는 습관적으로 그 발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의 발의 변형은 필히 골반과 척추의 비틀림으로 인한 발목관절의 내외전 변형으로 인한 족부불균형 현상이기에 선수의 전신의 골반과 척추의 휘어짐을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골반과 척추를 비틀어 가면서 하는 피겨스케이팅과 발레를 전공으로 하는 여성들의 발은 한결 같이 변형이 되는 걸까요? 단순히 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까요? 그 원인은 과도하게 한쪽 발을 들어 올리는 운동 종목의 특징으로 인해 유발되는 체형관절의 변형 메커니즘과 연관이 있습니다. 체형 교정 관리를 받기 위해 자주 방문하시는 직업의 종사자 분들이 바로 무용전공자들입니다. 무용전공자들은 골반의 비틀림과 발가락의 불균형으로 인해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무릎, 발 통증 등에 노출돼 있습니다.

발레와 피겨스케이팅은 발가락으로 신체를 지탱하는 동작이 주가 되며, 이 경우 골반과 척추를 비트는 동작을 많이 사용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발가락과 발목을 사용해 전신의 체형을 지탱함과 동시에 과도하게 골반이 뒤로 젖혀지는 운동 동작을 함으로 대부분 오리엉덩이와 같은 자세를 갖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발레나 무용전공자들이 갖고 있는 엄지발가락의 발가락뼈 모양이 망치처럼 튀어나오는 무지외반증, 발가락이 휘어지거나 발목이 휘어지는 등의 족부불균형은 단순히 발목관절 및 발 관절만의 문제가 아닌 전신의 체형불균형으로 발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일명 '하이힐 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앞이 좁고, 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발가락을 꽉 죄는 구두를 신을 경우 발생하기 쉬우며, 평발이나 선천적으로 관절이 유연한 사람, 가족 중 무지외반증이 있다면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람의 발은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뛸 때는 체중의 10배에 해당하는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굽이 높은 하이힐의 경우 자기 체중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무게가 발가락 쪽으로 쏠리면서 발가락의 변형이 생깁니다. 특히 40~50대 중년 여성에게 무지외반증이 많이 생기는데, 하이힐을 신은 지 20년 이상 지나 발의 변형이 눈에 보일정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평한 신발을 신고 편한 상태에서 걸어 다니는 일반인, 특히 남성에게는 무지외반증 또는 발의 변형이 드물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독자들께서는 한번쯤 자신의 발가락 모양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발가락의 변형을 가져오는 골반과 척추의 불균형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시면 더욱 건강장수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쁜 체형을 위해 발레와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발가락 변형과 골반 불균형을 항상 유의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한 자세에서 아름다운 체형 및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단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하이힐 등으로 변형된 발 모습 '무지외반증'.



김경현 원장의 몸·마음 이야기 20 어린이 보약

열이 많을땐 보약도 독이 된다

한방에서 어린이들에게 쓰는 모든 처방들은 어떤 의미로는 모두 보약에 속한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그 질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것이 한방치료의 목적이다. 나무 개체보다는 숲 전체 속의 나무를 보고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는 균형 있는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치료에 있어서도 병 자체보다는 성장에 바탕을 둔 보법(補法)을 위주로 한다. 생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생장활동을 도와줘 오장육부의 균형발달을 돕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보법은 모든 치료의 바탕이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몇 가지 생리적인 특성이 있다. 오장육부의 발달이 미숙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며, 스스로 추위와 더위를 조절할 수 없고, 음식 절제를 잘 하지 못해 환경변화와 음식으로 인한 소화기, 호흡기 질환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과 회복에서도 어른들과는 다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예방과 성장을 위한 보약은 언제 얼마나 써야 하는가. 흔히들 용을 먹인다고 한다. 용이란 녹용을 가리키는 말로 녹용이 든 처방을 줄인 말로 사용되고 있다. 용을 몇 첩 먹였더니 감기를 달고 다니던 아이가 감기를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녹용과 기타 약제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면역능력과 조절능력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보통 첫 돌이 지난 이후에 별 탈이 없으면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을 쓰지만, 허약한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먹인다. 1년에 몇 번 써야만 한다는 공식이나 법은 없다. 건강하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 한 번 쓸 때에는 가을이 좋고, 두 번일 때에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 즉 봄과 가을이 좋다. 면역능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녹용이 든 약은 만나이 수만큼 쓰면 된다. 예를 들자면 만 두 살이면 두 첩, 세 살이면 세 첩 정도이며 초등학생이면 6첩 내외가 적당하다.

보약을 꼭 써야할 어린이들은 어떠한 어린이들인가. 대략 다음과 같은 증세들이 몇 가지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밥맛을 잃은 지 오래 됐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잘 놀지도 않고 활동성이 떨어졌다 △체중이 줄어든다 △감기에 걸려다하면 기침을 한다 △원인불명의 미열이 잘 나타나고 신경질을 잘 낸다 △편도선이 잘 붓고 잠잘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자주 배가 아프다 △설사가 잦다 등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이 허약한 어린이들에게 예방과 성장을 위한 보약은 필수적이다.

흔히들 땀을 많이 흘린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보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체온조절중추는 10세 이후에 완성되므로 땀을 많이 흘린다는 증세 하나가 허약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물론 10살 이상이 돼도 지나치게 땀을 흘린다면 이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

또 1년에 지나치게 많은 성장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약을 써야 한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1년에 7~8㎝이상을 성장하면 급격한 성장에 뒤따른 후유증인 성장통에 시달리기 쉽다. 병 없이 잘 크는데도 팔다리가 저리고 떨린다거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고 추위를 심하게 타며, 키에 비해 체중이 적은 경우 성장통을 의심해야 한다. 성장통이 심해지면 관절의 변형이나 기형, 전신적인 균형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보약을 쓰는데도 금기사항은 있다. 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열이 심할 때 병증과 관계없는 보약을 쓰면 열이 발산을 못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용을 먹어서 바보가 됐다'는 속설이 많은 한의사를 괴롭혀 온 것은 열이 심할 때 약을 잘못 써서 보약이 독약이 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열이 심하면 보약도 독약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열이 없을 때 적당량을 써야만 보약 본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32 철사장1

경지에 오르기 위한 필수 단련기법

무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철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 단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사장은 쉽게 말해 외가기공의 최고봉이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려는 무술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련 기법입니다.

철사장은 말 그대로 손이 철같이 단단하며 무엇이든 뚫을 수 있을 정도의 경지를 갖게 하는 손 단련법입니다. 하지만 수련의 과정은 너무 험난합니다.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손가락과 손바닥, 손등, 손날을 연마해야 합니다.

먼저 손가락의 경우, 쇠구슬을 양동이에 넣고 관수로 손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동작을 할 경우에는 단순히 손만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힘을 최대한 빼고 손끝으로만 힘을 가해야 합니다. 이 수련법은 위험요소가 많아 스승 없이는 하기 힘든 단련법으로, 혹여 재미삼아 혼자서 이 수련을 따라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과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단련법을 처음 시작할 때는 쇠구슬로 연마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마른 메주콩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같이 연습해야 하며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주의 할 것이 이 단련기간에는 이성과의 관계는 절대 금합니다. 몽정이나 유정이 흐른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외가권 중에 최고로 닦기 힘든 공법입니다.

이 수련을 아무리 해도 아프지 않다고 느끼면 1차적으로 완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기간 동안에도 손톱의 반 이상이 파여 나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실제 철사장 수련은 파상풍이나 혹은 쇠독, 흙에 포함된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부상 등이 심해 수련자들은 비전으로 내려오는 약물의 복용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때 바르는 약 중 가장 좋은 약은 호랑이 앞 발뼈를 고아서 바르는 것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도 한때에는 철사장 수련을 할 때,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이런 사실을 듣고 약을 구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구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보편적으로 녹슨 쇳물을 바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용골이라는 돌가루를 바르는 것입니다.

철사장은 이렇게 1차적인 콩 단련이 끝나며 2차로 콩과 쇠구슬을 반반 섞어 수련을 하게 됩니다. 쇠구슬은 보통 쌀알 크기만 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3차에는 콩을 빼고 쇠구슬로만 단련을 하며 4차에는 그 쇠를 달궈 수련을 합니다.

필자도 2년간 이 철사장을 단련했지만 4단계에서 접어들며 포기하게 됐습니다. 비록 4단계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철사장은 3단계 과정만으로도 손쉽게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대단합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철사장 단련 모습.

영남범패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 진주 및 울산교육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9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진주교육원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울산교육원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진주교육원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울산교육원 - 울산시 동구 방어동 990-2 〈화봉사〉
■ 문의전화 : 진주 055) 747 - 8419 울산 052) 201 - 1468
■ 수 강 일 : 진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6시
울산 - 매주 수 · 목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11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9월 3일(금)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사주명리
이름에 관한 모든 것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기문둔갑에 정통하신 이광재교수님이 사주명리, 기문둔갑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은평구 작명 www.goodname114.com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 소개료, 수수료가 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을 수 있습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대출안내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❸ 돈황에서 찾은 불교신앙 2

전란 중에 이상세계를 꿈꾸다

막고굴 초기에 해당되는 4~6세기 경 만들어진 굴실의 숫자는 후대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곳이 서역과 중국을 잇는 중요교통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초기에 중국으로 전해지는 불교의 흐름을 살피기에 충분하다.

축법호가 떠난 뒤, 낙준은 명사산 자락에 중국이 자랑하는 막고굴을 파기 시작했다. 인도나 실크로드 지역에서는 석굴에 탑이나 불상을 안치한 차이티야형 석굴과 승려들이 머무르는 비하라형 석굴을 같이 판다. 실크로드를 거치며 이러한 전통은 중국 땅 까지 전해지지만 돈황을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비하라에서는 승려들이 주로 선정에 드는 명상을 하거나, 중정이라고 불리는 공간을 둬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은 인도적인 수행풍토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런 수행과 신앙이 결합된 것이 중국에 들어온 초기불교의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 내륙으로 오게 되면서 승려들의 거주처나 수행처로서 사용된 비하라형 석굴이 사라진다. 하지만 돈황에는 비하라형 석굴이 남아 있다. 275번 굴은 불교의 중요한 수행인 선정(禪定)을 행하던 승방으로, 초기 수행의 단면을 보게 해준다.

초기 석굴 중 최고는 5세기 초 북량(北凉: 397~439년) 시기에 세워진 교각미륵보살상이다. 다리가 X자로 꼬여 인상적인 의자에 앉아 있는 이 보살상은 미륵보살을 새겨 놓은 것이다. 교각상은 호좌(胡坐)라고도 하는데, 책상다리 그대로 의자에 걸터앉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풍습은 호(胡)라는 말대로 서역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도솔정토에 가기 위한 그들의 염원이 아로 새겨져 있는 이 보살상의 옷자락과 얼굴은 동아시아의 모습이 아닌 서역과 인도의 불상을 닮아있다. 이러한 서역풍의 교각미륵상 앞에서 사람들은 도솔왕생의 염원을 발했다.



돈황막고굴 275번굴 본존미륵보살교각상(북량시대). 두 다리를 교차한 모습이 무척이나 이채롭다. 막고굴을 대표하는 보살상으로 서역의 모습이 중국으로 들어와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대륙의 문화> 3권, 한국언론자료간행회, p.75에서 전재)

중국 초기에는 이런 신앙의 숨결이 막고굴에 주로 나타난다. 중국인들은 도솔천을 이상향으로 그리고 도솔왕생을 바라는 신앙이 발달했다. 입고 있는 옷이 서역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 내제된 신앙은 매우 중국적이다.

<묘법연화경(妙法法華經)> '보현보살권발품 (普賢菩薩勸發品)'에는 "만일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뜻을 해설하면 이 사람은 목숨이 마칠 때에 천불(千佛)이 손을 내밀 것이다. 그러면 두렵지도 않고 악취에 떨어지지도 않아 곧 도솔천의 미륵보살 계신 곳으로 갈 것이다. 그곳의 미륵보살은 30여의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중국 불교의 초기에는 석가모니불과 미륵보살(또는 미륵불)은 상당히 유행했다. 이러한 미륵에 대한 신앙은 <법화경>의 중심으로 유행하게 됐다. 당시 중국의 북쪽 지역은 짧은 기간 동안 왕조가 세워지고 망하기를 반복하던 5호 16국 시대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혼란함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토로 구현하고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부처에게 예불했다. 미륵상은 단순하게 죽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닌, 현실의 기반 위에서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이 표현된 것이다.

중국의 기반은 현실에 둔다. 그래서 중국으로 전래된 종교들은 중국의 심성과 부합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종교로 거듭난다. 이러한 현실을 잘 나타내는 것이 275번 굴의 교각미륵보살상이다. 당시 그들은 <법화경>의 미륵이 그토록 찾던 정토로 보았던 것이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48 태안사 오르는 길

시원한 비가 다녀가고 움츠렸던 숲이 다시 일어났다. 매미부터 하나 둘 목청을 돋우고, 여기저기서 새소리가 튀었다. 태안사 오르는 길이다.

동구에서부터 스님은 걷고 있었다. 절까지 이어진 숲길은 연로하신 스님의 걸음으로 걷기에는 조금 멀다 싶어 차를 세워 스님을 모실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차가 스님 가까이 다가가 서는데도 스님은 차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가던 길만 말없이 갈 뿐이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더 이상 차를 몰 수 없었다. 걷고 있는 스님 앞으로 차를 몰 수가 없었다. 차를 세우고 비에 젖은 숲길위로 걸어 들어갔다. 절에서 일을 다 보고 절을 나설 때쯤 스님을 다시 만났다. 스님은 여전히 걷고 계셨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0도 제보행수미풍동음중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있는 보수(寶樹)에 대한 설명이다. 미풍이 불어 모든 보수 및 보라망(寶羅網)을 움직이면 미묘한 소리를 낸다는 본문을 판각한 장면이다.

세 그루의 보수는 각기 망으로 쌓여 있으며, 나무 주위에는 보수에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소리를 나타낸 듯 선들이 후광으로 표현돼 있으며, 일부 잎들은 바람에 날려가고 있다. 이 도상은 목판 원판 6번째의 후반부 1/2에서 7번째의 전반부 1/2 이상까지 이어지며, 제 4도에서 10도까지는 칠보행수, 연못, 누각, 연꽃, 음악, 꽃, 새, 그리고 나무의 장엄함을 묘사하여 정토의 장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미풍이 불어와 보배나무와 보배 그물을 흔들면 마치 백 천 가지 음악이 일시에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느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참으로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舍利佛 彼佛國土 微風 諸寶行樹 及寶羅網 出微妙音 譬如百千種樂 同時俱作 聞是音者 自然皆生念佛念法念僧之心 舍利佛 其佛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극락세계에는 약간의 바람이 불어도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나망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백 천 가지 악기가 합주하는 거와 같으며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세상의 소리가 조화롭게 되어 관현악단이 울려 퍼지듯이 평화와 화합의 소리가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즐겁고 황홀한 이야기인가. 이와 같은 세계가 열려 있으니, 바로 극락세계요, 극락에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말씀을 믿고 극락세계에 태어나 이 평화롭고 안온한 소리를 듣고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선지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시 한번 극락이 그리워진다.

극락세계의 모든 장엄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으나 이 몸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몸을 바꾸지 않고도 지금 현실에서도 극락의 장엄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다. 천 갈래 만 갈래로 흩어지고 찢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관현악단의 합주소리와 같이 화합하고 조화로운 소리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인 것이다. 이러한 마음 작용에 의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로 극락의 장엄함이 관현악단의 합주소리 같이 우리 마음속에 정토로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부지런히 마음의 주인공이 되는 수행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정토를 건설해야 할 때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0도제보행수미풍동음중장엄(諸寶行樹微風動音衆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12절 1,100원 (200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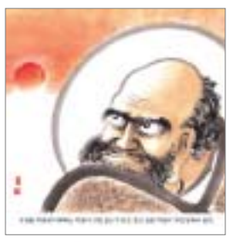
정성드려 만든 2011년 불교달력. 주문하시면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불서보급 37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달력 1~40호 {국6절 · 12절 · 미니 · 다이어리 · 한지 · 탁상} www.buddhashopping.com


3호 붓다의 메아리


4호 산사로 가는 길


18호 산사에 피는 연화


9호 기 달마도


12호 마음이 머무는 곳


20호 홀로있는 시간


2호 맑은마음


27호 천진불 (미니)


28호 향기로운 말 (미니)


37호 관세음보살 (한지)


32호 아하조타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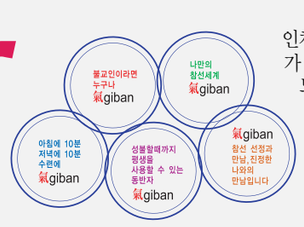
달력규격 / 달력할인가

국6절(大)	규격:30.5×31.0㎝	1,900원 ····· 1,400원(200부이상)
12절	규격:25.8×26.5㎝	1,600원 ····· 1,100원(200부이상)
차걸이	규격: 9.0×15.5㎝	650원 ····· 450원(200부이상)
미니	규격: 8.9× 9.5㎝	800원 ····· 450원(200부이상)
다이어리	규격: 9.5×13.4㎝	1,000원 ····· 650원(200부이상)
한지	규격:30.0×45.5㎝	2,200원 ····· 1,700원(100부이상)
탁상	규격:26.2×19.0㎝	2,700원 ····· 2,200원(100부이상)

◈ 대량주문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 달력카다로그, 용품카다로그가 필요하신분은 대표번호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대표번호 : (051)515-8888 H·P : 011-554-2988, 011-879-0889
Tel : (051)515-2988, 555-1087, 508-9377~8, 070-7425-0518
Fax : (051)508-0101 E-mail :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진짜로 자기 근본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었지만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 몇 명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일 지금 혼동되는 것이, 저 자신도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겨우 조금 아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잘못된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믿고 사람들이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큰스님: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제도하시는 그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관하는 것만 일러 주세요. 여러 말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우환이 있거나 애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너만이 가난치 않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못났으면 좀더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끔, 물리가 터지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지 않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 주면 그냥 자기가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 이럭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몇 번 그렇게 해 보고 그게 되더라 이러는 건 알았는데, 또 큰 거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유죠. '내가 조그마한 건 이렇게 되는데 큰 거는 안될 거다. 요렇게는 되는데 이렇게 큰 거를 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요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업을 얼마나 지었기에 이런 고통이 오나?' 요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업 불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서 입력이 된 것을 모두 지워 버리면 되는 거지, 그 업이 어디에 붙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야, 무명천(無明天)을 넘어서라.' 이러니까 이 무명천이 어디 있나 하곤 그냥 찾아다니다가 하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 불사천(不死天)에 가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고, 그냥 천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무명천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 빠져 가지고 애를 쓰는 거지, 누가 구덩이에 빠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구덩이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죄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조절해 나가면서 자기를 믿고 찾아라 이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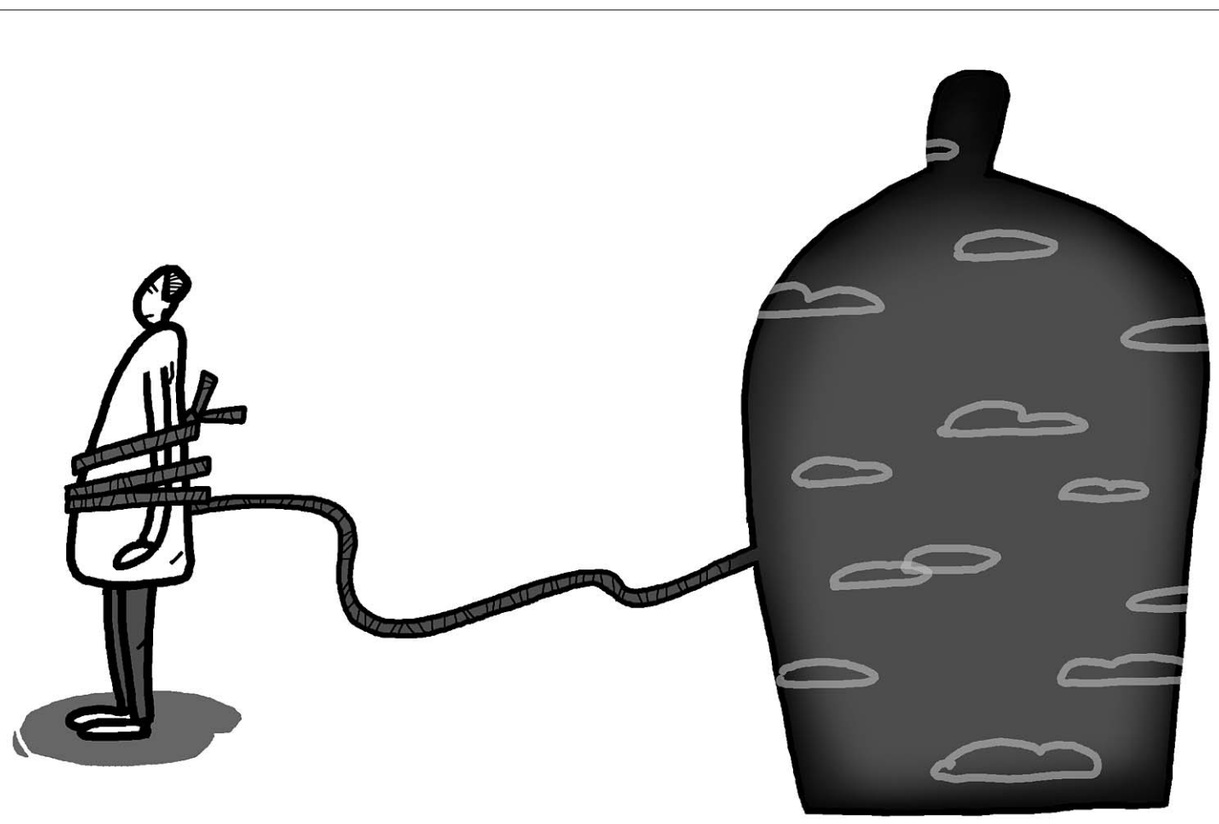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2(남):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스님: 나는 그래서 이날까지요, '내가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손을 꼽고 빌어 본 예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그런 걸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이지 않는 중생들과 더불어 친구가 된 거지, 그것을 무서워서 피했다면 귀신들의…. 여러분, 귀신들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귀신들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조상이 잘못됐고 이런 거죠, 다. 그리고 조상의 탓을 하고요. 이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모두가…. 무명천이 아예 없어요.

질문자3(남):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지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주인공 잡기가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려운데, 스님께서는 늘 '말겨라, 관해라' 하시는데 좀더, 주인공을 쉽게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네, 그러죠. 하하하…. (대중 웃음) 지금 주인공이 안 계시다면 댁은 지금 송장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게 되는 것도 자기의 근본,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냥 천차만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율적이죠. 그러니까 그놈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지만 역력하게 말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작용하고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음'과 그냥 '마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한마음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만 알면, 외부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되죠. 사대 성인들이 모두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너부터 알아야 큰 공덕이 되지, 너를 네가 모르고는 절대 공덕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공덕이란 뜻은,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바로 나 하나가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거하고 같이 한자리를 할 때에 비로소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3(남): 공부하다 보니까, 놓아야 된다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자식놈이 눈앞에서 깔장거리는 데는 영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집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자식놈의 물질적인 육신이 까닥까닥하는 거지, 허허, 마음이 나와서 그렇게 까닥까닥합니까? 아니, 그 육신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까닥까닥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 너 까닥거리지 마라.'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놓으면 슬며시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육신은 움죽거릴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의 놀음이니까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지, 육신을 잡으려고 하거나 말로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가서 안 들어오든 나가서 공부를 안 하든 그게 걱정이 안될 만하게 원력이 서야 걱정이 안되죠. 권투선수가 권투 실력이 아주 극치에 도달했을 때에는 상대가 누가 온대도 걱정이 안되죠. 만약에 그게 설익었으면 걱정이 되죠. 온통 그냥 떨리고, 부자연스럽고, 무겁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설익지 않았다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까닭에, 걔네들은 잔잔하게 그냥 돌아가요, 또. 걱정이 없는 까닭에 그 마음하고 다 이렇게 통하니까요. 그러니 사는 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일이 생긴다 하면 걱정이 되지 어찌 안되겠습니까? 걱정이 돼도 바깥으로 온통 이렇게 풍기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익은 사람들은 안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부지런히 육신도 뛰면, 그냥 걱정 없이 뛰면

☞26면으로 계속

봉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임원 공고

축

종 정 운허 연화 대종사
승정원장 무여 정각

법률고문 최낙균 변호사 (법학박사)

종회의장 무진 혜암
총무원장 무학 보월
사정원장 무일 마하
호법원장 무불 월산
교육원장 무허 혜월
문화원장 무상 도산
선 원 장 무애 구암
포교원장 무휴 가산
비구니원장 무행 동성
비구니회장 무찰 현준

☆ 본종에 입종 서류는 본산과 총무과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본종에 입종시 일체 공과금을 면제합니다.
입종문의 : 본산 양산 대인사 (055-375-2076) / 총무원 포항 구운사 (054-231-3101)
☆ 승려가 되고자 하는 남녀 지망생을 접수합니다.

불기 2554년 8월 22일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보월 합장

위로는 선장을 믿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가라

☞25면에서 계속

그냥 해결이 되고 싹 무마가 돼 버리죠. 그러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쳐 놓고 움죽거리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사는 세태다 이겁니다. 지금 가부좌를 틀고 좌선을 하고 앉았다면 앉아 있는 그 동안만 우주가 돌아가고, 또 일어났을 때는 우주가 안 돌아갑니까? 그러니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자나 깨나, 돌아가는 건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공이 없이 생각하면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거기다 놓곤 태연히 그냥 '날 잡아잡수. 허허허…, 하늘이 무너진대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뛰란 말입니다.

그것을 말로다가, 생각으로다가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잡아집니까, 그게? 생전 안 잡아지지.

사회자: 네, 날씨도 무척 덥고….

큰스님: 아니,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대중 웃음) 조금만 더 합시다.

사회자: 큰스님께서 땀 흘리시는 것 같아서….

큰스님: 아니, 괜찮아요. 이 세상에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땀을 흘려야 시원하고 또 시원하니 땀을 흘리고 이런 거죠.

질문자4(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때나, 꿈을 꿀 때나, 푹 잠이 들어 있을 때에 너를 보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너'가 주인공이나 대무심지(大無心地)나 다 같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무심지,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그 적정(寂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큰스님: 이 부동한, 움죽거리지 않고 능력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나의 근본 자체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근본을 선장이다 한다면 내 영혼은 부선장이 되죠, 얼른 쉽게 말하자면. 이 선장에 의해서 부선장이, 지금 여러분이 다 부선장입니다. 허허허…. 부선장이, '위로는 선장을 믿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가거라.' 이런 말이 있죠.

질문자4(남): 또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아니요, 들어 보세요. 급하기는 꽤 급하신데, 하하하…. 그러니까 위로는 선장을 쥐고 아래로는 중생의 팔을 쥐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맷돌을 굴리는데, 그 맷돌 심봉이 구르지도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맷돌을 돌아가게 하는 힘의 배출구란 말입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질문자4(남):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는 화두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확철대오하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을 신통하게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대자유인으로서 경계가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중도(中道)에서 얘기하는 삼제원융(三諦圓融)이나, 무작사제(無作四諦)나 또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사고의 관념을 갖지 않는…, 예컨대 부처님한테 착을 두면 부처에 빠지고 또 열반에 착을 두면 열반에 빠진다는 그런 착이 놓아진 상태를 무심, 또는 아까 말씀을 올린 대무심지의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언어라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그냥 스님 말씀대로 오면 치고 또 오면 받고, 경계 없이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실천해 봐야 알고, 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그렇듯이 댁에서 겪어 봐야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만큼 이치대로 얘기를 하려면, 사람을 다 낳기는 하되 애가 어른 노릇을 못하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수행정진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린애도 생산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른 쉽게 말하자면, 내 육신이 태어났지 정신이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태어났으면 바로 육신을 이끌어 가는 참나, 즉 정신을 태어나게 하면 그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견성한 자체를 키워야 하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리든 이 안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처음에 내가 탄생하기 전에 놓고 들어가듯이 모든 거를 또 놓고 들어가야죠. 내가 탄생한 후에도 이 체험하는 것을 또 놓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둘 아닌 도리를 또 알게 되죠.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서 그땐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열반경지에 든다' 이럴 때는 둘 아닌 도리에서 둘 아니게 화해서 나투면서 어느 만물만생이 원하더라도 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육신 속의 모든 의식들이 보살로 화해서 나투면서 돼지가 원하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되고 이렇게…. 모두 중용을 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능할 때, 이것을 도리천에 이르고 구경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모두를 그냥 말 없이도 할 수 있고 말 없이 알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지금 견성도 못했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만 듣고 아무리 책을 보고 그냥 뭐 무불통지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물 한 컵을,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무궁무진하게 아는 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내가 나를 발견하고 어른으로 키워서 또 늙어야 된다. 늙으면 생사도 없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없다' 하고 '끄달리지 않는다'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없다' 하는 거는, 아주 그, 들어가서 없다는 건 사실인데, 아래에 있든 중간에 있든 위에 있든 모두 포함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끄달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떼어 놓고 한 발 딛고, 내가 귀머거리에서 벗어나고 장님에서 벗어난다면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나 찾기에 바쁜 거지, 그리고 나는 세 가지 두 가지를 한데 합쳐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첫번에 유(有)의 법을 가르치고 두번째, 무(無)의 법을 가르치고 세번째, 유와 무를 한데 합쳐서 가르치고 했던 것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주좌와(行住坐臥)를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대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고통이 오고, 애고가 오고, 병고가 오는데 어떻게 틀고 앉아서 그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고가 오는 거를 오는 대로 밀쳐 나가고 타파해 가면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그게 아주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질문자4(남): "문자와 언어를 버리고, 관념을 버리고 망령된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기는 거지만 고정화가 안되니까 공과 유와 다 같다. 이쪽으로 원융(圓融)을 해라." 하는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또 "고(苦)와 집(集)을 버리고 도(道)를 떠나서 생멸(生滅)을 생각하지 않고 열반까지 버려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문자가 하나의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끝이 향하는 방향은….

큰스님: 방편이지만 현실이고 현실이지만 방편이지, 그게 방편이라고 해서 그냥 이론만 붙여서 방편으로 한 게 아니고, 방편 아닌 방편입니다, 즉 말하자면.

질문자4(남): 그러면 '물속에 달이 떴는데 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나 '거울 속에 사람 얼굴이 있는데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그 경계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있다고 해야 합니까, 없다고 해야 합니까?

큰스님: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 테고 아는 사람은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형상인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일체 만물을 다 이렇게 응시하시고 비추시고 통하시고 그러시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부처님이 계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계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통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 속에, 아무 말 없는 돌부처 안에 부처님의 얼굴이 있느냐 없느냐, 생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린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는 것은 아예 물을 수도 없는 말이고, 깨친 사람들끼리나 한 소식 얻은 사람 앞에 그 말을 탁 던지면 탁 알아들어서 받아넘기겠죠.

질문자4(남): 공부를 하면서 특히 제일 의심가는 게 시공, 소위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공부 할 때는 시공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우리 공부에 좀 도움이 될는지요?

큰스님: 허어, 그거 무슨 해결입니까? 나 참, 아,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화돼서 바뀌고 그러는데 그걸 시간을 재서 말합니까? 아니, 이 사람 만날 때 요 시간은 몇 시간인가 하고 재고, 요 사람 만날 때 또 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길을 가다가 이 사람 만나면 요렇게 마음이 돌아가서 "어, 자넨가?" 하고, 또 금방 식구를 만나면 또 "여보!" 뭐 어쩌고저쩌고. 시간 잴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건 초월된 상태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초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미. 그런데 그대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하고 가니까 그런 거죠.

질문자4(남): 큰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사회자: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큰스님 하명을 받잡고 법형제 합창단을 구성했습니다. 아직 뜸은 덜 들었습니다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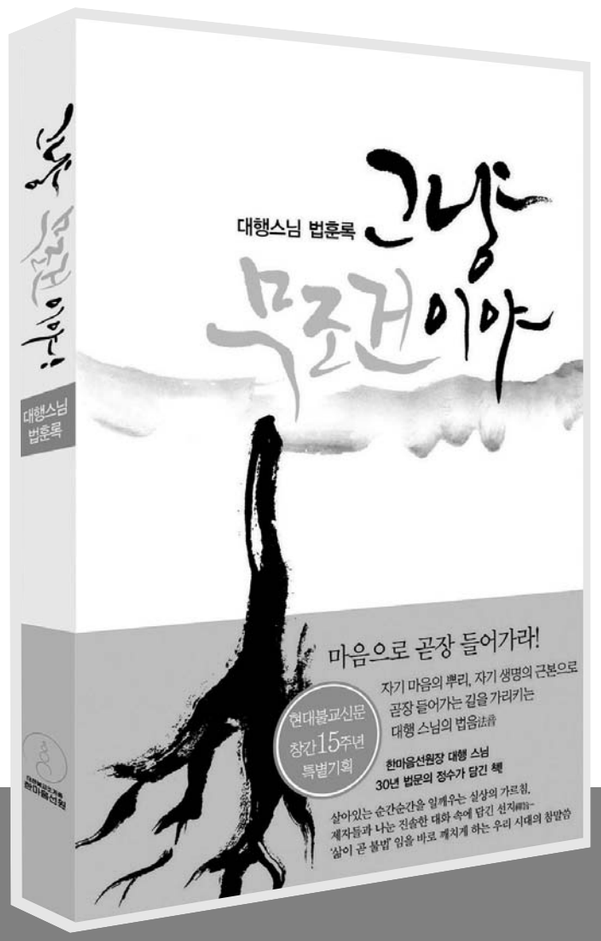
큰스님: ('내 마음의 주인' 음성 공양이 끝나자 박수를 치시며)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이 천지가 전부 꽃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아이고, 정말 잘하십니다.

('임의 소식' 음성 공양이 끝난 후) 아마 요 다음에도 천상에서 모두 모여서 꽃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 모두 노래들을 이렇게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마. 참 감사합니다. 정말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애고가 오는 거를 오는 대로 밀쳐나가고 타파해가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게 아주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위 법문은 1994년 8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 사회심리학적 분석

개신교의 불교 폄하 무엇이 문제인가



불자 세상보기

신승철
시인 · 정신과전문의

200년 전 미국 땅에서 백인 선교사들이 인디언들을 상대로 선교를 했던 때의 기록이다. 어느 선교사는 인디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그들 생활 방식에 따라 적응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 선교사가 인디언 부족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부족의 상당수가 그를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다른 류의 선교사도 있었다. 그는 인디언들의 생활습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 서먹한 관계가 오래 지속됐다. 개종을 서두르는 태도, 그리고 부족민의 말에 대해서는 싫은 기색과 거부하는 표정을 자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선교사 자신의 얘기는 성스러운 진리이고, 부족민의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는 허구이며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비난까지 했다.

경험 있는 인디언끼리 모여 토의를 했다. 기독교의 원리나 그 내용을 듣고 보니, 분명 마음을 이끄는 영적인 메시지가 많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부자와 재물욕에 대한 예수의 엄한 질책,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듣고 많은 동감도 느꼈다 한다. 허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느꼈던 바, 설교와 선교사들이 보인 실제 행동과는 그 차이가 많았

에고가 오만함의 싹

다. 기독교는 과시와 자기 권리 확장의 특성이 있어, 적극적 개종을 꾀하면서 다른 종교를 공공연하게 모욕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해서 그 후 인디언들 사이에 극단적인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굳이 인용한 것은 200년이 지난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서 그 유사현상을 목도하기 때문이다. 선교과정의 역사를 훑어보면, 곳곳에서 이 같은 문화적 충돌로 인한 저항의 흔적들이 발견된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이나 리비아 등 회교권 국가에서 공격적 선교를 하다 큰 곤란을 겪었던 보도도 있었다. 물론 희생적 정신으로 더러는 그 나라에 숭고한 삶의 궤적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 슬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기독교인 가운데는 자기네들만이 진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간 인간의 의식 수준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예전과 달리 상당 진화가 됐다. 또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원화된 사회다. 인권의식의 향상, 문화의 상대성, 타 종교에 대한 존중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다. 불교의 경우 2500여 년 간 아시아에서 널리 전통적 믿음의 기반이었고, 그것은 현재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인류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다. 불교 역시 그 근본 자리에는 자비, 생명, 평화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주요 종교의 근본모습은 고귀하고, 진실하고, 품위 있고, 평화적이며 사랑일 것이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 훌륭한 종교들은 개체인간으로 하여금 자아실현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의미도 있다.

문제는 알다시피 초기종교의 순수한 의도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됐다는 점일 것이다. 그중 하나는 필연적인 사회조직화의 문제다. 집단 규모로 제도화된 종교는 나름대로 권력과 질서가 생기는

종교 폄하 · 편향의 근본 자리에는
자기쪽이 최고라는 종교적
우월감이 깔려있는 듯 하다
엘리트 의식은 역시 자기애와 더불어
영적 에고에 집착하기 쉽다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일부 종교 지도자 가운데 소위 영적 에고(spiritual ego : 깨달음이나 신에 대한 고착된 개념, 그래서 예컨대 불가에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일컫기도 한다)에 집착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종교의 사회화, 세속화 또는 권력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인간의 자기애(自己愛)심리와도 관련이 깊다. 흔히 이 영적 에고에 집착한 종교인들 가운데 오만함이나 가식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저명 목사이며 신학자이기도 했던 R. 니이버 박사의 논조를 잠시 살펴본다. 그는 1950년대에 이미 기독교의 자기 정당화에 따른 오만을 우려하면서, 죄 중에 가장 파괴적인 것이 자기 정당화와 가식임을 강조한바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존중하는 만큼, 종교에서도 상대주의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역사적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순수한 회개와 겸손을 이룩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이런 종지를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쉽사리 오만에 대한 새로운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종교계 내부에서든 개인이든 권력화가 지나치면, 오만에 따른 자기 정당화의 사고나 판단의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어느 누가 의롭다는 신념하에 또는 스스로 올바른 신념이라 생각하고 남의 과실을 폭로하는 일이 있다 하면,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의로운 일인가는 사안에 따라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새겨진다.

나는 여기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개신교 일부에서의 불교 폄하 발언 문제를 놓고, 그에 앞서 간단히 종교집단의 성격에 대해 사회심리적 맥락에서 그 배경을 살펴봤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히스테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그 현황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몇 가지 상기시키고 싶다.

첫째, 개신교 쪽 일부에서 제기한바, 불교 쪽에 국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나 투명성을 언급하며 국민의 혈세 낭비 운운하는 문제다. 과거 불교계 쪽에서 국고 지원 시설 개 · 보수 건으로 횡령 같은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 사실 이런 사고로 인해 3년여 전부터 사찰에 직접 국고를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국고 지원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 감독하게 되었다. 이런 정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교계에서도 향후 국고 지원 사업 관련 그 내용이나 자금의 투명성에 대해 더욱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오래된 사찰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오랜 우리의 역사적 삶속에서 흥망을 같이 하며 살아왔던 문화재를 제대로 보전하며 가꾸는 일은 분명 마땅한 일이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소중한 유산에 대해 폄하하는 일은 없어야 될 듯싶다. 전통문화에 대한 예의나 소양은 종교나 종파를 떠나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해서 사찰 관련 국고 지원이 혹여 종교폄하의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것은 견강부회일 것이다.

둘째, 정치권이 종교계를 이용한다는 태도의 문제다. 앞서 언급했듯 어느 종교집단이든 제도화된 우리 사회에서 그 집단의 행위는 어느 하나 정치적 의미를 띄지 않는 것은 없다. 결국 국고 지원의 성격이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예산 지원에 대한 편파성이 의심되면, 관련 학술단체 또는 정부쪽 사업 지원 내용이나 그 평가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본 뒤 논하면 된다. 기독교든 불교든 우리 사회, 국가, 문화의 건강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타자의 일부 약점을 들추어내어 종교집단 전체로 확산시켜 덮어씌우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해당 종교단체는 국고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그 합목적성을 널리 사회 일반에 인지시켜야 한다. 정책 관련 책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동감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관련 NGO 단체의 감시 혹은 비판하는 기능도 함께 수용되어야 한다. 뻔한 이해관계를 갖고 네 탓으로 돌리는 심리는 결국 양쪽 다 피해를 보

편향적 관점 성찰해야

고, 서로 상대를 가해자로 몰게 하기에, 어떤 사안이든 그 공평성을 잃게 한다.

종교 폄하 · 편향의 근본 자리에는 자기쪽이 최고라는 종교적 우월감이 깔려 있는 듯하다. 엘리트 의식은 역시 자기애와 더불어 영적 에고에 집착하기 쉽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투쟁했던 민주 투사들이 민주화가 된 후, 독재 정권의 습성을 그대로 닮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적대적 동일시라는 심리 기전에 따른 탓이다. 기존의 종교 내부의 권력 투쟁적 습성은 다음 세대로도 대물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종교 집단 역시 높은 권위에 따른 지배의식에 의존한다. 다음 세대 역시 그 지배 권력 의식을 자동 상속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삼 부패, 부정직, 탐욕의 위험성이 도사리게 된다. 해서 종교체라는 집단적 자아는 그 내부에서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과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그 어느 집단보다 더욱더 요구된다.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목소리는 개인뿐 아니라 어느 (종교)집단에도 해당된다. 인간이든 어느 사회든 어떤 문제의 원인을 조사해 보려 할 때, 그 자신(또는 집단)의 주관적 · 편향적 관점이 있다는 것을 성찰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만큼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사 설

대북 인도 지원은 종교인의 도리다

남북의 갈등이 2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륜 스님과 김대선 원불교 교무, 김홍진 신부, 김명혁 · 박종화 · 인명진 목사,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등이 종교인들이 8월 27일 육로를 통해 개성을 방문했다. 밀가루 300톤을 6개 지역의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돌아왔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적은 양이지만 천안함 사태로 금지된 대북 물자지원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북한은 압록강 지역 홍수 피해를 입었다.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8월 25일 조계종총무원을 방문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B) 북한담당관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자승 스님은 이에 대해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쌀 창구를 열 때가 됐다"면서 정부에 대해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촉구했다.

종교인의 입장에서 적이란 개념은 없다. 체제와 이념, 인종과 빈부, 남녀노소 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갈 이웃이 있을 뿐이다. 때론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북한의 주민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굶주림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며, 그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야 하는 것은 자비니 사랑이니 하는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북녘 땅에 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유보할 근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종교인 밀가루 지원이 대북 인도 지원이 다시 활발하게 펼쳐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WFB 한국대회를 기대한다

세계불교도우의회(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세계 146개 나라의 불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불교조직이다. 1950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창설됐다. 2년마다 세계대회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는 WFB대회에 1963년부터 함께 했다. 그 즈음 주요종단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참석해 여러 나라의 불교도들과 교류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단 분규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종단적 차원의 참여가 뜸해졌다.

8월 25일 WFB의 팰롭 타이어리 사무총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2010년 대회를 한국에서 열어주기를 요청했다. 자승 스님은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화답했다.

2008년 일본에서 열린 제24차 대회에서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여성 부회장으로 당선되어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지만, 세계 속의 한국불교의 역할은 크지 않다. 한 · 중 · 일 세 나라 불교도들이 우호대회를 열고 있지만, 매번 비슷한 내용의 선언문 발표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 적지 않다.

WFB 한국대회를 열어 불국정토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불교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 한국불교는 간화선 수행, 비구니스님들의 활발한 활동 등 우리만의 독특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불교의 고유한 전통을 여러 불교나라들이 공유토록 할 기회이다. 세계의 불교인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불교 내적, 인류적 과제가 많은데, 한국불교가 더 많이 짊어져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적중도최고효과성
최대효사활인천역
집2010완결보정판
구입교환및육임활
용서학습서구입안내

1. CD프로그램
교환대상 효사활인천역집 Ⅰ,Ⅱ,Ⅲ, 완결판 소지자
교환가격 효사활인천역집 Ⅰ 교환 1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Ⅱ 교환 12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Ⅲ 교환 8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교환 50만원
신규구입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 보정판 500만원
기 능 원터치 · 매일 매시간별 자동화면 · 동일 시간내 다수방문자 구분식별 · 상담 메모리 · 자료출력 등등
장착목록 (아래 제 3항참조)

2. 미리보고 먼저 알게되는 자동화면의 우선항목들
• 시보(時報 : 왜 왔는가?)
• 내정(來情 : 어떤 정황인가?)
• 득지(得知 : 무슨 비밀사정이 있는가?)
• 아타(我他 : 저지른 일인가, 일어날 것인가?)
• 미기(未旣 : 이미 일어났는가, 일어날 것인가?)
• 귀신(鬼神 : 어떻게 죽은 · 누구의 귀신이 침범했는가?)
• 병귀(病鬼 : 무슨 귀신침범으로 병이 났는가?)
• 사숭(邪崇 : 신변 · 가택 어디에 무슨 부정이 들었는가?)
• 산소(山所 : 누구 묘지, 무슨 좌향 · 물형, 어떤 경관인가?)
◆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소 시킬수 있는가?
◆ 비방 · 부적 · 굿 · 천도재 · 불제 등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며칠 후 언제 해야만 좋은가?
• 이외 24개항목의 길흉성부를 결정지어 놓았고, 50여 인사(人事)문제도 미리보고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화면 배치 했습니다.

3. 육임활용서(위 1항 CD프로그램에 장착 됨)
① 효사육임산책 2010최신판(휴대용) 1 · 6 · 60권 250만원
② 효사육임복변집 2010 보정판(좌정용) 1 · 6 · 60권 250만원
③ 육임대계전서 2010개편본(휴대용) 1 · 6 · 60권 250만원
④ 육임풍수 2010개편본(휴대용) 1 · 6 · 60권 70만원
⑤ 육임1년신수비결 2010개편본(좌정용) 1 · 6 · 60권 35만원
⑥ 육임래정비법 2010개편본(휴대용 · 좌정용) 1 · 6 · 60권 50만원
⑦ 도사에게 물어봐 2010증보판 육임길흉성부상담지침록(휴대용) 10만원
⑧ 육임사주감정법 2010개편본(좌정용) 20만원
⑨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좌정용) 12만원
⑩ 효사숙 사주(CD전용) ⑪ 성명학(CD전용) ⑫ 매화역수(CD전용)
⑬ 월영도(CD전용) ⑭ 부적보감(CD전용) ⑮ 동의보감(CD전용)

4. 육임학습서
① 효사육임강론 2010개편 증보 제 8판본 상권 종합학습편 1800쪽
② 下권 활용편 1800쪽 사과 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격 체출법 및 각 상의 · 국수 해설 · 24개 항목별 단정 및 대별 교체 적시함

구입 승인 교환 안내 011-9795-1773 담당 양광표 / 계좌번호 : 농협 356-0340-6628-13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